

박지나 대표 (국제구호단체 JTS)
지구촌 이웃 돕기 보현행 20년
"자비나눔에 작은 보탬 됐으면…"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6월 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99호 2014년 7월 2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이익을 위하 남을 모함말며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 비겁하지 말라.

비구니 스님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참여 문 열리다

조계종 중앙종회서 통과… 25일 개원, 각종 法 처리

원장 선거인단 확대 종헌
진정성 논란… 차기 이월
각종 종단 인사안 통과도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 장벽 중 하나였던 호계원과 법규위원회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6월 25일 제198차 임시회를 열고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참여등 종헌 개정안과 각종 종법 제 · 개정안을 논의했다.

종헌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비구니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었다. 중앙종회는 관련 종헌 개정안을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초심호계원은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을 법계 종덕 · 현덕, 승납 25년, 연령 45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해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참여를 열었다. 초심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들은 2인이 참여하게 된다. 다만 비구니 호계위원이 비구를 갈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 · 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에 이상의 법리에 밝은 승려' 로 개정해 수정해 비구니 스님들이 법규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종헌기구인 호계원과 법규위원회 참여가 가능해진 것은 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참종권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승납 20년 이상의 비구 · 비구니 스님들에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졸속 법안' 이라는 비판을 받고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종회의원 영담 스님은 총무원이 입법 예고한 선거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레 공청회와는 다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종회 통과를 원칙적으로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단 주요 인사도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호법부장 세영 스님의 임명 동의안을 비롯해 초 · 재심 호계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을 선출했다.

임명동의 직후 종회의원 일문 스님은 의사발언을 통해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의 호법부 징계를 촉구했다. 일문 스님은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이 1달 전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현직 총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에 대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면서 "어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이 지광 스님의 호법부 징계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엄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논란 많은 新법인법 가결

논란의 요지가 많은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은 장시간의 수정 끝에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5일 열린 제198차 임시회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 법 통과에 따라 경과조치를 마련해 선학원과 대각회 등 '사찰보유법인' 과 '사찰법인' 에 대해서는 9월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여타 법인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종단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법인관리법은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종단법인 · 사찰보유법인 · 사찰법인 · 사찰출연법인 · 사찰공동출연법인 · 승려법인 · 종단등록법인 · 미등록법인 등으로 세분화했다.

법인정관의 임원조항에서는 사찰의 재산을 출연한 법인의 경우 각각의 규정에 따라 종단소속 스님을 이사로 두도록 했다. 다만 선학원의 경우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선학원과 별다른 소통없이 만든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관련 해설 2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교인 단체는 6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랍니다"

불교 등 4대종교 단체, 23일 기자회견… '정부의 무능' 지탄

유사 이래 최대 인재(人災)로 손꼽히는 세월호 침몰사고부터 최악의 인사 참사로 불리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한 행태에 종교인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교인 단체는 6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무능력과 국가 폭력을 비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사회' 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무엇인지,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노골적인 국가폭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은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국민이 세월호 유가족이 됐다. 은폐된 구조 과정이 국가와 정부의 무능과 범죄를 의심하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 종교인들은 70~80대 어르신과 수녀들을 공권력의 폭력으로 끌어내고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밀양 사태와 설계 수명 종료된 노후 원전들의 무리한 운영 연장, 철도 민간 매각과 의료 민영화 등 사회 현안를 예로 들며 현 시국을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4대 종교인들은 "안타깝고 슬픈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독거 왕궁에서 사는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무능력" 이라며 "유사 이래 참사라 기록된 정부 인사 조치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상황에 대통령 혼자 탈출한 형국" 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와 밀양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국가 폭력은 이미 그 도가 지나쳤다"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고 주장했다.

국정 쇄신을 위한 첫 걸음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꼽은 종교인들은 △밀양 송전탑 원점 재검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인사 참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및 부적격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했다.

4대 종교인들은 "4대 종단 성직자들은 정부의 무능한 행동에 슬픔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정부라면 그 어떤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맞설 것" 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99호 INDEX

종합 3
〈님의 침묵〉 전편 해설서 분석



신행 · 복지 6·7
용수 스님, 영어 자비명상 인기
복지관 세대통합 프로그램 눈길

함께가요 강의실 8
불교인문학 강좌-신앙으로서 부처님

해외불교 18
간다라 미술 목공예 사라질 위기

문화 20·21
불교중앙박물관 사리장엄 특별전
아이티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

'호국불교 성지'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리나라 11번째… 실크로드 · 중국 대운하도 함께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제38차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6월 22일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했다.

남한산성은 승군이 축조를 담당했으며, 성곽 방어 등을 위해 승군 사찰을 지어 승군을 주둔케 한 곳이다. 특히 인조는 승도청(僧徒廳)을 두고 각성 스님을 도총섭으로 8도의 승군을 동원해 항마군(降魔軍)이라 명명, 망월사와 옥정사, 국청사, 동림사, 개원사, 천주사, 장경사 등을 건립케 했다.

세계유산위원회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남한산성이 17세기 초 비상시 임시 수도로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산성 건축기술을 반영하고, 서양식 무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방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세계유산 선정에는 지금까지 사찰을 비롯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 인접 지역의 개발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주민들이 유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남한산성의 승군사찰들은 현재 장경사, 국청사, 망월사, 개원사가 복원됐으며 나머지는 사찰터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문화재청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실크로드와 중국대운하, 프랑스 남부 그로트 쇼베 동굴의 세계유산 등재도 승인했다. 이중 실크로드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공동 신청한 것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세워진 불교사원과 탑 등의 유적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기사 5면〉

최초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임관

27일 괴산 학생군사학교서 임관식

군부대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게 될 최초의 비구니 군종장교 임관식이 6월 27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군불교 사상 최초의 비구니 군승인 명법 스님을 비롯해 신임 군승 13명이 함께 임관을 치뤘다. 이들은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자승 스님에게 임관신고를 올렸다.

한편, 1980년 태어난 명법 스님은 1999년 19세에 마곡사를 재적본사로 출가해 2000년 사미니계를 받았다. 그후 2006년 동학사 승가대학 졸업, 2010년 어산작법학교 졸업, 2014년 2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를 졸업했다.

군종특별교구는 국방부가 2013년 7월 군종병과에도 여성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비구니회와 협의 하에 비구니 군승 파송을 추진해왔으며 부산 군수사령부 2보급단 군법당인 금련사에서 설법과 상담, 심리학 등 '입대 전 교육' 을 이수하고 학생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왔다. 노덕현 기자

사 고

알립니다

서울지방우정청의 우편 집중국 토요우편창구 운영 폐지 방침에 따라 본지는 오는 **7월 9일 이후 발행되는 신문부터 발행일이 수요일에서 매주 목요일로 변경됩니다.** 되도록이면 빠르게 발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혜량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지역문화를 빛낸 역대조사님을 위한
전통다례 문화대축제
일시 : 2014년 7월 5일(토) 9시 30분
장소 : 포항시 내연산 보경사
주최·주관 :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후원 : 경상북도 · 포항시 · 포항불교신도단체연합회 · 위덕대학교 정각회 · 의사불자회 · BBS 불교방송 동부취재본부 · 대경일보
문 의 : 행사추진위원장 준제 (010-7757-2313)

“천주강학 돕다 스님들 수난사 복원·기려야… 제2천진암 안돼”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 6일 주어사지 복원 발원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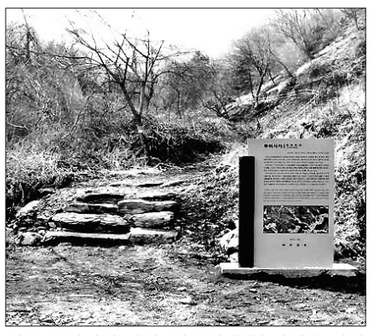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가 7월 6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에 소재한 주어사 절터의 원형복원을 발원하는 기도입재를 거행한다.

주어사는 조선 후기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천주교 자료들을 공부하던 권철신 등이 1779년 주어사와 인근 천진암을 오가며 천주강학을 진행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천주학을 공부하던 이들과 이를 보듬고 지켜 주던 스님들이 함께 수난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조선 말 폐사의 길로 접어든 사찰이다.

제2교구 신도회는 “조선 말 서구사상의 범람을 염려한 조정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어사와 천진암에서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발휘해 천주강학을 보호했다”며 “이러한 연유로 스님들의 수난과 폐사의 수난을 당했던 침통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후대 불교도인 우리가 위험 속에서도 자비심을 발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신도회에 따르면 주어사와 함께 천주교 학자들의 강학을 보호했던 천진암은 천주교 성지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흔적이 송두리째 파헤쳐지고 사라지게 됐다. 이후 그 자리에는 천주교 성인 5명의 무덤과 성당이 건축됨으로써 천주강학이 이루어진 장소가 사찰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현장에서 흔적도 찾을 수 없고 기록으로만 남게 됐다.

이에 제2교구 신도회는 지난 6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에 주어사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고, 중앙신도회



여주 주어사지 전경. 카톨릭 도래 성지로 변화될 지경에 있다.

천진암 성지 과정서 비석 유출
여주 시청엔 부도… 반환돼야

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신도회는 “천주교 측이 천진암을 성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천주교 성당으로 옮긴 주어사 해운당 대사 의징 스님비와 여주시청에 보관돼 있는 부도탑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회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복원해 신유박해 때 천주학자들과 함께 수난을 당한 불제자들의 억울함을 해원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숭고한 자비심이 현재와 후대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어사에 얽힌 역사를 다시 복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번 기도입재를 시작으로 종단 신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원형복원을 위한 마음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총리 인선 갈등… 국민안정 최우선 해 달라”

자승 스님, 유임된 정홍원 총리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유임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정에 최우선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6월 26일 오후 2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걸어 온 전화통화에서 “총리 인선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산적한 국가현안이 많은 만큼 지금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만큼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그것이 국정을 잘 이끄는 것이고 바로 국가개조가 아니겠느냐”면서 “국정 책임자로서 지혜롭게 헌신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정 국무총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에 있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협조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민행복과 국가개조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했다. 사의 표명을 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뒤에 뒤집어진 것은 정 총리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신성민 기자

‘규제’ 新법인법, 일선 법인 호응 얻을까

[해설]조계종 중앙종회 제198차 임시회가 남긴 것

법인법 대체입법인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일부 조문이 수정한 후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6월 25일 열린 제198차 임시회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법은 폐기되고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이 대체된다.

법인관리법의 기존 법인법과 차이점은 법인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했다는 것이다. 법인 종류를 종단이 출자한 종단법인, 사찰을 보유한 사찰보유법인, 사찰 자체가 법인인 사찰법인, 사찰이 재산을 출연한 사찰출연법인, 복수의 사찰이 출연한 사찰공동출연법인, 승려 개인이 출연한 승려법인 등 세부적으로 나눴다. 종립학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규제 조항 중 하나로 꼽혔던 정관 변경 종단 승인은 법인 명칭, 임원 자격과 선출, 정관 개정 정족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으로 별도의 세부항을 만들어 이전 법인법과는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법인관리법에 내재된 규제 요소들은 여전하다.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예 사찰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항까지 신설했다. 이는 법인으로의 사찰 등록 차단하고 사찰이 곧 법인인 ‘사찰 법인’의 난립을 막아 종단 재산 유출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찰이 발전해 포교·재정 역량이 커지는 것을 막는 규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존의 사찰 법인, 사찰 보유 법인들도 법인 산하 사찰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들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고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학원과 별다른 대화 없이 만든 완화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인관리법은 선학원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은 조계종 승려로, 이사 1/4 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에 의한 이사회 선출로 규정했다. 분명 이전 법인법과는 눈에 띄는 완화책이지만 법인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선학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법인관리법, 확신없이 수정 가결
규제 요소 여전… 효과는 미지수
선학원과는 갈등 더욱 첨예해질 듯
원장 선거인단 확대 종헌 이월
진정성 보여야… 떠넘기기 안돼
‘만장일치’ 관행 논란 숙고해봐야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선학원과 전쟁 선포 수준의 으름장을 놨다.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종회에서 “6월 30일까지 선학원 정관을 원상복귀하라는 골자의 공문을 보냈고, 이를 어길 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되고 대화 시도를 계속할 것이고 거부하면 종헌 종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이 논란 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법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5일 제198차 임시회를 열고 종헌, 종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인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일선 법인들에게 상당한 무리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종회 논의 과정에서 한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법인관리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법인법 대체입법이 솔직히 불안하다. 확신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법안 발의자인 만당 스님은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위험 소지가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졸속 논란에 휩싸인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가 총무원에 던진 숙제다. 애초 의견 수렴을 위해 단 한 번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었고, 그마저도 의견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총무원이 올린 승납 20년 이상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에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종헌 개정안은 분명 획기적인 법안이기는 하나 대중의 공의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모든 것을 종회 의결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회피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논란이 된 종헌 만장일치 가결은 관행에 대한 적용을 어디까지 해야할 지를 되짚게 했다. ‘종헌’ 제130조2항과 3항은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항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로회의가 이 같은 조항을 문제삼아 종헌을 무효로 돌려도 중앙종회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두 번에 걸친 종헌 부결로 압박이 왔다고 해도 스스로 종헌을 어기면서 입법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함을 증명한 것이다.

15대 중앙종회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겨진 과제들을 수습해야 하는 것은 11월 이후 새로 이름을 올릴 16대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종무기관, 종도들이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책 전문위원 확대로 종단 아젠다 개발·평가해야”

삼화도량 산하 삼화연구소, 제1회 종책세미나

안정적인 종책 개발과 선출을 위한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 산하 삼화연구소(소장 법인)은 6월 24일 제1차 종책 토론회를 열고 그간의 조계종 종책방향 등을 점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요 종책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경우 아젠다 형성부터 결정, 집행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중앙종회에서 상시적으로 평가사업을 전개할 경우 사업추진과정과 집행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업전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단의 주요 종책사업들을 분석해본 결과 총무원장의 잦은 교체가 장기적 사업개발과 추진을 어렵게 했다”며 “2000년 이후에는 종책아젠다 개발과 집행력을 갖출 수 있게 됐으나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회의원 스님들이 대부분 일선 사찰 주지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종책 개발에 오롯이 힘을 쏟기가 어려운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종회의원 스님들이 대부분 사찰주지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때가 아니면 종책아젠다 개발과 평가에 집중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 삼화연구소는 6월 24일 첫 종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조계종의 종책 방향을 점검했다.

종단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교구 분권화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김 교수는 “교구분권화는 중앙집권화된 중권구조를 분산해 교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장점이 있다”며 “광역자치에 비견할 수 있는 교구제의 개선도 주요 종책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종책 토론회에서는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이 ‘34대 집행부 종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조기룡 동국대 교수와 주경 스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달라이라마 방한 다시 추진된다

추진위 7월 5일 조계사서 발족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준비위원장 금강)가 오는 7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족한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는 "추진회는 생명존중과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한국 방한을 위해 결집한 순수 신행모임"이라며 "오는 7월 5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포식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추진회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생명존중과 평화수호의 정신을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켜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종교와 정파를 초월한 평화의 상징인 달라이라마를 초청해 국민적 고통을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의 정신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추진회 준비위원장은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이, 집행위원장은 월호 스님(행불선원장)이 맡았다. 준비위원에는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진옥 스님(여주 석천사)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마가 스님(동국대 정각원) 정목 스님(서울 정각사) 등 20여 명의 스님이 참여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님의 침묵' 증도가인가, 애민의 노래인가

만해 열반 70주년에 살펴본 '님의 침묵' 전편 해설서

한 시인이 쓴 시작(時作)의 전편을 해석하는 것은 시인에게도 주해하는 이에게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한국 문단을 통틀어 전편 해설서가 나온 시인은 김소월, 정지용, 백석, 이육사, 만해 한용운 스님 등 정도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전편 해설은 문학계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는지 많은 해설서가 나와 있지 않다.

1970년대 송욱의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전편 해설이 발간된 이래 30년간 전편 해설서는 나오지 않았다. 〈님의 침묵〉 전편 해설서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30년이 지난 후부터다.

박현수 경북대 국문과 교수는 시 전문 월간지〈유심〉제68호(2013년 12월)에 〈님의 침묵〉 전편 해설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박 교수가 주목한 해설서는 송욱의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전편해설(1974)〉을 비롯해 김광원의 〈님의 침묵과 선의 세계(2008)〉. 김용직의 〈님의 침묵 총체적 분석연구: 한용운의 시, 새롭게 읽기(2010)〉, 정효구의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전편 다시 읽기(2013)〉다.

박 교수는 송욱은 〈님의 침묵〉을 증도가로 보고 있다고 소개한다. 실제 송욱은 "〈님의 침묵〉은 전체로서 하나의 증도가를 이루고 있다"면서 "만해의 시집은 사랑의 시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이를 '사랑의 증도가' 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그는 이 시집을 통하여 선의 세계를 처음으로 인간화하고 역사화 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현대화하고 보편화하는 데 성공한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30년 이후 전편 해설을 시도한 김광원은 그 폭을 좁혀 〈님의 침묵〉을 만해 스님이 저술한 〈십현담주해〉라는 저서의 구조와 일대일 대응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송욱의 해설과 김광원의 비교한 박 교수는 "송욱의 해설이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에 바탕을 두면서도 그것의 사회화, 역사화라는 부분을 인정해 '님' 이 불교적 진리뿐만 아니라 애정의 대상, 잃어버린 조국 등으로 해석되는 가능성을 남겨놓았다"면서 "김광원의 해석은 오직 불교적 진리, 그것도 〈십현담주해〉의 세계로만 그 폭을 좁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욱 · 정효구 등 해설서 5권 나와
'님의 침묵' 불교적 해석이 주류
김용직은 작품 자체 자율성 주목
"영웅 · 종교적 사랑의 발현" 주장도

반면 〈님의 침묵〉은 '불교의 깨달음' 이라는 구도에서 탈피한 해설도 있다. 바로 김용직의 해설서다. 박 교수는 김용직의 해설서에 대해 "사상의 매개로만 읽는 관점에 경각심을 주어 그 시집을 하나의 완결된 미적 구조물로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한마디로 김용직의 해설은 작가의 사상보다는 문학 작품의 자율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근작인 정효구의 해설서는 다시 불교를 주목한다. 정효구는 해설서를 통해 〈님의 침묵〉을 불교 수행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효구는 "이 시집은 예술가로서의 단순한 예술행위의 결과물이라기보다 불교 수행자로서의 폭넓은 수도 및 수행과정의 한 부분이고, 개인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세속인의 자기표현 행위라기보다 견성(見性)한 자의 성불(成佛)을 위한 원력(願力)의 결과물"이라고 기술했다.

세 권의 전편 해설서를 정리한 박 교수는 현상을 근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님의 침묵〉의 님의 개념을 다양한 차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다양하게 분기된 현실의 축에서 초월적인 것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 점 때문에 한용운의 시는 현상을 궁극의 근원으로 두고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쓴 〈님의 침묵〉 평설집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2008)〉도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던진다. 김 교수는 " '님의 침묵' 의 전체 기조로 볼 때 에로티시즘이 영웅적 사랑과 종교적 사랑으로 승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 파격적이지만 원시와 현대어로 옮긴 시, 그리고 기존의 도식적 틀에서 벗어나 시 그 자체로 접근한 저자의 해석은 눈여겨 볼만 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웃과 종교는 겪어봐야 안다

KCRP, '이웃종교스테이' 진행

이웃종교화합주간을 맞이해 이웃종교 성지 및 수도원 등에서 해당 종교를 체험해보는 이웃종교스테이가 열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는 2박 3일 스테이를 통해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마련했다.

1회차로 7월 4일에는 전북 완주에 위치한 천호성지에서 천주교 스테이가 열린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길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이어 매주 금요일마다 개신교(서울, 강화, 7월 11~13일), 천도교(전북 부안 호암수도원, 7월 18~20일), 원불교(전남 영광 영산성지, 7월 25~27일), 유교(충북 청주향교, 8월 1일~3일), 조계종(강화 전등사, 8월 15일~17일)이 차례로 종단별 스테이를 운영한다.

조계종은 '산사의 숨결을 찾아서' 라는 테마로 스테이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회당 40명이 정원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www.harmonyweek.kr)

배현진 기자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위치 아닌 동력이 문제

정진단 23일 조계사 경내 이동 … 세월호 참회 기도 병행

릴레이 기도 · 자율 정진 함께
폐쇄아닌 열린 기도처 지향

특정 단체 의존한 정진 한계
대부분 재가자… 스님은 '無'
이동만으로 활성화 기대 어려워
동력 활성화 아이템 발굴 절실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설치됐던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이 경내 사적비 옆으로 이동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위치 이동과 함께 세월호 참사 추모와 참회 기도를 봉행해 대중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진에 대한 내부 동력마저 떨어진 상황에서 활성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결사추진본부는 6월 24일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생명평화결사 1000일 정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진단을 일주문에서 조계사 경내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은 1000일 정진에 대한 본부장 도법 스님의 총무원장 보고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자승 스님은 정진단의 이동을 부실장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번에 걸친 부실장 간담회가 진행돼 정진단 이동에 협의했고, 6월 23일 경내 이동을 진행한 것이다.

총괄부장 덕신 스님은 "정진단이 일주문에 위치해 각종 안전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회향을 18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낮아진 동력을 활성화시켜 1000일 정진을 안정적이고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동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명평화 1000일 기도와 함께 세월호 참회 기도도 이뤄질 것"이라며 "12시간 릴레이를 바탕으로 기도단을 개방해 자율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폐쇄적 기도 공간이 아닌 열린 기도처를 표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1000일 정단의 위치 이동은 낮아진 정진 동력을 활성화 시키려는 시도이다. 실제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5월 이후 동참률은 매우 낮다. 결사추진본부가 집계한 5월 이후 정진 동참률은 70% 정도로 6월 한달만으로 국한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6월 23일 조계사 사적비 옆으로 이동한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6월 6일 경우에는 1명(1시간)이, 6월 10일에는 3명(총 3시간)의 동참 예약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동참자들도 특정 사찰과 포교단체, 중앙종무기관 재가 종무원들이었다. 부실장, 국장급 교역직 스님들의 동참은 전무했다.

다시 말해 정진에 대한 내 · 외부의 동력이 모두 상실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진단 이동이 1000일 정진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800여 일동안 정진을 진행했음에도 대중과 종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의 중요한 기조"라면서 "내부부터 정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오는 12월 22일 회향한다. 위치 이동과 함께 낮아진 정진 동력을 회복할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성민 기자

한일불교 탈핵 논하다

7월 3일 공동 세미나 개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일본 불교계와 공조해 7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일 불교 국제세미나' 를 개최한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일본참여불교네트워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탈핵 활동에 주력해온 단체다.

세미나에서는 김익중 교수(동국대 교수, 환경위원회 위원)가 '왜 탈핵인가' 를 주제로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최원형 소장(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소장) 역시 '기후변화와 탈핵, 그리고 녹색불교' 를 주제로 불교계의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활동을 소개한다. 일본참여불교네트워크에서는 히데히토 오코치 스님이 '후쿠시마 상황과 일본불교의 탈핵운동' 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히데히토 오코치 스님은 20년 넘게 활동해온 탈핵운동가이며 자신의 사찰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어 양측간 한일불교 탈핵운동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일 주 문



제31회 호국영령천도법회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호국영령천도법회 봉행위원장)은 6월 25일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제31회 호국영령천도법회를 열었다.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기금 기부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7월 1일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레인보우 합창단 후원식 개최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무원 스님은 6월 26일 오후 5시 30분 대웅제약 별관 베어홀에서 레인보우합창단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조계종 노동위,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노동자 53명과 함께 속리산 법주사에서 6월 27~28일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운문사, 세월호 희생자 지원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6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부했다.

광주불교방송 이민수 사장 취임식



광주불교방송의 이민수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호남지역 불교포교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불교방송(사장 이민수)는 지난 6월 26일 신양파크호텔 대연회장에서 제2대 사장 취임식을 갖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지역 방송사 대표 등 3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이민수 신임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 광주불교방송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다시 도약하는 시기"라며, "영광과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불국정토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사장은 "난청지역인 전남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의 중계소 설치에 전력을 쏟을 것이며, 나아가 전북지역까지 아울러 호남을 대표하는 불교방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융합·밀착형 복지관 만들것"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 새로 취임한 가섭 스님



젊은 세대 찾아오는 곳으로
서비스질 향상 최우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다시 사회복지사로 돌아왔습니다. 복지관안에서는 스님이라기보다는 복지관 관장이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입니다."

7월 1일 경기도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취임하게 된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 운영법인이 승가원에서 연꽃마을로 바뀌면서 복지관의 새로운 수장이 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에서 물러난지 2년만이다.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일했던 가섭 스님은 다시 복지현장으로 돌아오게 돼 의욕이 넘치는 눈치다.

가섭 스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융합복지'라고 꼽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역시 노인복지관이었으나 젊은 세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강남어르신부터 강북어르신까지 찾아오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비스 질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이런 경험을 발판삼아 스님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향 역시 융합형으로 잡았다. 지역 복지관이라는 특성도 감안해 밀착형도 추가시켰다. 세대 간 함께할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 만들되 지역 여건에 맞춘 밀착 서비스로 먼저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이용하는 종합복지관은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기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중심축에도 변화가 생길 듯하다. 상당부분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 프로그램을 복지관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다. 저소득 노년층 비율이 높다는 지역 성격도 고려됐다.

또한 지역 밀착 서비스를 위해 동마다 찾아가는 순회 프로그램 등을 구상중이다. 돋보기 맞춤 등 다양한 형태로 복지 서비스를 들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쌍방향 복지서비스는 수혜자 발굴에만 머물지 않는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복지관'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복지관을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가섭 스님은 복지관이 지역 사회의 소통의 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험해볼 것이라고 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복지관에 와서 쉬다갈 수 있는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한솔복지관이 자리잡게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챙길 수 없었던 부분을 복지관에서 촘촘히 메워줘야 한다는 가섭 스님은 지역 복지관의 역할을 공동체 회복에서 찾았다. 스님은 앞으로 3년동안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가섭 스님은 복지관이 불자를 만들어내는 곳은 아니라고 단언하며 철저히 사회복지사업 관점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할 때 "불교역시 주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처럼 은은한 불교적 교훈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2014 불이상(不二賞) 수상자 선정

동출 스님 · 김영진 교수 수상
7월 7일 신라호텔서 시상식

2014년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김영진 동국대 조교수를, 실천 분야에 동출 스님(설법연구원 원장)이 선정됐다.

연구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조교수는 철학과 사회학 등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중국 근대 불교부문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총 6권의 저서와 30여 편 이상의 논문 집필 활동을 통해 국내 학계에 생소한 중국 근대 불교, 중국 불교 철학사상 부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문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김 교수의 학문적 자질과 소장 학자로서의 능력이 향후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영진 교수는 "그동안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중국 근대불교 분야는 국내에 연구하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점을 불이상 측에서 인정해 주신 거 같아 고마울 따름이다. 〈중국 근대 불교학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몇 년간 저술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영역을 확장해 명 · 청 시대까지 연구 분야를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출 스님


김영진 교수

김영진 교수는 1970년생으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 문학석사와 불교교학 철학박사를 받고 현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실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동출 스님은 불교 문서 포교 부문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님은 25년 동안 〈불교설법전서 총 10권〉 〈불교만화 총 17권〉을 완간하고, 〈전통사찰 총서〉 간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서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동출 스님은 불서 보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불교계 출판 문화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으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교 활동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불법 실천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출 스님은 "지금까지 불서 만화를 17권 냈는데 30권까지는 채우고 싶다. 또한 지금한 권을 출판한 틱낫한 스님 책도 10권까지는 내고 싶다. 실천가 지원사업은 10년을 마치고 회향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다시 이어갈 생각"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총 상금은 4천만원(각 분야 2천만원)으로 시상식은 7월 7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종정협의회 호국연무사 위령재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는 6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대법당에서 '6 · 25전몰장병 및 세월호 희생자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 월인 스님을 비롯한 50여 회원 종단 종정 스님님들과 종단 지도자, 훈련장병 5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원불교조계종(종정 청봉) 종도들의 의식집전으로 범패, 바라, 나비춤, 진혼무 등에 이어 호국영령 위패단 헌화 등이 진행되었다. 종정협의회는 이번 위령제를 계기로 매년 6월 호국연무사 위령제와 훈련장병 위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이산 탑사, 자비의 김치와 쌀 전달



신비의 돌탑으로 널리 알려진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스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끊임없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탑사는 6월 20일 진안군 자원봉사 센터 앞 마당에서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원불교, 장애인 봉사단체들과 함께 밑반찬과 겉저리 김치를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밖에 탑사 나누우리 자원봉사단은 진안군내 11개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김치와 자비의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힘든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12회 한불련 체육대회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이하 한불련, 회장 석인경)는 6월 22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제12회 한불련 정기연수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포교사를 대상으로 10분 포교 경연대회가 열렸다.

노덕현 기자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45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에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21세기**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2014년 7월 20일 ~ 8월 23일
모집 인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 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 문의 ☎ 054)775-1689, 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솟대만들기, 경주남산답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2014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아동 마음자람(정서지원) 멘토"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 보살피는 엄마의 일하는 여성되기 프로젝트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을 아동의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로 양성하고, 취약계층이 밀집한 복지관 등에 파견하여 여성과 아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교육대상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
■ 교육기간 : **7월 14일(월) ~ 7월 25일(금) 오후 2시 ~ 5시**(단, 금요일 수업은 10시~17시)
(2주간 주 5회 / 총 34시간 교육)
■ 교육인원 : 40명(교육 특성 상 인원 초과시 내부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조계사 맞은편)
■ 수 강 료 : 무료
■ 접수기간 : **7월 6일(일) 23:00 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팩스, 우편 신청
홈페이지 : www.kbcd.org , E-mail : jabi7378@naver.com
Fax : 02)737-8802,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4번지 3층 사)자비의전화
■ 주 최 : 사단법인 자비의전화
■ 후 원 : 여성가족부
■ 문 의 : 사단법인 자비의전화 (Tel : 02)737-7378)

특전
1) 본 과정 이수 시 수료증 수여 (출석률 80% 이상 달성자에 한함)
2) 교육 수료생 중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실습기회 부여

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승군, 예불 간경하며 축성한 호국성지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이 우리나라 11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오랜 세월동안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남한산성은 외세와 치열한 항전을 벌인 호국의 현장으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동안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을 활용해 성을 쌓아 국가를 방비하였다. '산성'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산성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성곽요소를 띈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다.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이러한 성곽요소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한산성은 특히 스님들이 직접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았으며, 사찰을 지어 외적을 방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인조2년인 1625년 남한산성이 축성된 이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호국의승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한산성은 산성 내 사찰이 산성방어시설로 세워졌는데, 이런 사찰이 9곳에 달한다. 승군사찰에서 전국의 스님들은 수행과 동시에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시대 억불숭유가 팽배했던 시절 호국불교로 임했던 불교계의 모습은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승군사찰 일본군 방화로 전소

그렇다면 현존하는 남한산성 승군사찰은 어디인가. 남한산성의 사찰들은 대부분 1600년대 초에 세워졌다. 남한산성 성곽을 따라 군사시설인 4장대와 함께 사찰이 빙 둘러 자리하고 있다.

남한산성 내 사찰 중 신라고찰인 망월사와 옥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벽암 각성스님이 축성과 수성을 위해 만들었다. 남한산성 내 승군사찰들은 일제시대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다. 한양 인근의 의병들이 남한산성의 승군사찰을 본거지로 했기 때문이다. 1907년 8월 승군사찰들이 의병들의 본거지로 탄로나자 일본군은 당시 무기고 등으로 활용된 사찰에 불을 지른다. 이때 동문 북쪽의 장경사를 제외한 8개 사찰이 전소된다. 망월사 · 개원사 · 국청사는 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나머지는 5개 사찰은 아직 복원이 되지 않아 폐사지로 남아있다.

산성 방어시설 9곳 승군사찰 지금은?

승군사찰 중 본영을 담당한 개원사는 현재 남한산성 역사관 옆에 자리하고 있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본영인 만큼 불경이 많았으며, 쌀 몇 섬이 한번에 들어가는 무게 200여 근의 솥이 4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본군의 방화 이외에도 1970년 화재가 발생해 법당, 누각 등이 전소됐다. 1971년 옛 개원사 터에 복원불사가 진행됐으며 1985년 개축과 복원 등으로 현재 모습을 하고 있다.

망월사는 9개의 승군사찰 중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망월사는 태조 이성계가 도성을 정할 때 한양의 장의사를 허물고 그곳의 성보를 망월사에 보관했다고 한다. 현재는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 5개 동이 복원되 예전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다.

장경사는 남한산성 동문에서 동북쪽 청량산 망월봉 중턱에 대웅전 · 종무소 등 건물 3동과 사리탑 등으로 구성된 작은 사찰이다. 이 곳은 승병들의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곳으로 일본군의 방화에 가장 적은 참화를 당했다. 1975년 화재로 소실돼 다시 중창했으며, 1988년 대웅전 증축 등을 거쳤다. 장경사의 진남루 남쪽에는 전망대가 있어 이에 오르면 산성의 경치가 두루 살펴진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누각자리만이 남아 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호다.

국청사는 남한산성 서문에 자리한 사찰로 1624년 건립됐다. 지금의 국청사는 일제에 의한 파괴 이후 옛터 인근에 대웅전과 요사채 등을 새로이 건립한 사찰이다. 국청사에는 병을 낫게 해주는 샘물이 나와 피부질환을 앓는 이들의 발길이 예로부터 끊이지 않았는데 여러 명사들도 즐겨 찾았던 곳이다. 국청사에는 성삼문 친필 병품 1점과 송시열 친필 3권도 함께 전해진다.

나머지 사찰들은 폐사지 형태로 남아있다. 남단사지는 남한산성 남쪽에 자리하며 정남쪽인 남장대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한흥사와 함께 방비를 하였다. 개원사 동쪽으로 남단사 옆에 지어진 한승사는 각성선사가 우리나라가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곳이다. 〈남한지〉에는 한흥사 승려가 종이와 산나물, 순무 등을 진상해 종이는 비구에게 내리고, 무와 나물은 종신과 부마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동림사지는 남한산성 9개 사찰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사찰이다. 주적이 북쪽에서 오기에 방비를 위해 건물이 모두 북향으로 지어졌다. 동림사가 자리했던 벌봉은 남한산성 안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옥정사지는 망월사와 함께 남한산성 축조 전부터 있었던 고찰로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다. 옥정사는 북문 안 남쪽 기슭에 있는데 북문을 지키던 승군들이 기거했다.

수어장대의 오른쪽에 위치한 천주사지는 현재 공터로 남아있다. 자연석 주춧돌과 유구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절터가 현재 경작지로 이용돼 문화재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한산성 쌓은 스님들은 누구인가?

남한산성에 대한 기록은 〈남성지〉를 비롯해 〈남한가람지〉 등에 있다. 또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방어한 의승군에 대한 기록은 〈남북한의승방번변통절목〉 등이 있다.

남한산성은 특히 벽암 각성 스님(1575~1660)과 인연이 깊다. 1575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각성 스님은 현종 1년(1660년) 사신으로 일본에 가다가 중도에 병으로 입적하기 까지 86년을 오로지 국방의 임무와 중생교화에 몸바쳤다.

1593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는 스승 부휴 스님을 따라 의승군으로 나섰다. 부휴 스님을 20여년 간 시봉한 스님은 광해군때 의승군을 총괄하는 팔도도총섭의 직위를 받았으며 인조 때 다시 팔도도청섭을 맡아 남한산성을 쌓게 된다. 스님의 지휘하에 소집된 의승군은 남한산성 축성 이후 망월사 · 옥정사 · 개원사 등 9개 사찰에 흩어져 산성 방위를 담당했다. 승군들은 약 460여 명으로 편제돼있었는데, 아침저녁으로는 예불과 간경(看經)을 하며 국가의 안전을 기원하였고, 낮에는 훈련을 받으며 유사시에 대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간경도감을 설치해 경전을 간행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이다. 승려들이 경전공부와 무예의 길이 둘이 아님을 직접 실천한 것이다.

각성 스님과 의승군들은 아무런 국가의 도움없이 축성하여 당시 전란으로 피폐해졌던 민초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도왔다. 조정은 남한산성에 이어 1711년에는 북한산성 축성도 의승군들의 손에 맡긴다. 북한산성은 중흥사를 본영으로 태고사, 국녕사, 원각사 등 11개 승군사찰이 있었으며 370여 명의 의승군이 번을 섰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의승군들은 갑오경장으로 승번제가 폐지되기까지 270년간 수도권 방위를 담당했는데 총 1년에 2개월씩 윤번으로 매 회수당 번을 서는 인원은 707~728명에 달했다.

의승군들의 번은 그 경비와 장비를 각자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교계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장경사는 화마의 피해를 적게받아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행궁과 서문 사이 자리해 중요한 방위 임무를 맡았던 국청사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189만원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17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핸드폰없이 4일간 신나게 영어로 놀자"

비로자나 국제선원 마곡사서 8월5~8일 청소년 영어캠프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이 진행하는 영어 담마 캠프가 8월 5~8일 3박 4일간 공주 태화산 마곡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 열리는 이번 영어캠프는 'Stopping, Stopping, Stop! 그대로 멈춰라' 를 주제로 바쁨과 어리석음을 멈추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미국,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며, △새벽명상 △108배 △게임을 통한 불교 영어수업 △물놀이 △풍등날리기 △모래만다라 △개그맨과의 만남 △수계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학생까지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

자우 스님은 "현대의 어린이 ·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매우 바쁘다. 또 여가시간에는 핸드폰과 컴퓨터게임만 하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다"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산사에서 핸드폰과 컴퓨터 없이 즐기는 3박 4일간의 캠프는 아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게 해줄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6012-1731 이나은 기자

문화나눔, 외국인 문화체험 행사 실시

6월 22일, 북한산 트레킹 · 사찰음식 체험행사 가져

사단법인 문화나눔(이사장 권영구)은 6월 22일 미국 · 일본에서 온 20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산 둘레길 트레킹과 진관사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의 부설법인인 문화나눔이 지난 4월 설립 후 가진 첫 행사다.

문화나눔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홍보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20여 외국인을 모집했다. 참가자들은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에서 시작해 둘레길 트레킹을 마친 후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스님과 차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나눔은 "참가자들이 스님과 차담하는 시간을 매우 좋아했다. 기름진 서양 음식만 먹다 천연조미료로만 만든 사찰음식을 먹고 흡족해 했다"며 "행사가 끝난 후 1박 2일 템플스테이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나눔은 "8월부터 12월 까지 트래킹과 사찰음식 체험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문화나눔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부설법인으로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창립된 비영리 문화법인이다. 권영구 이사장은 "앞으로 차별화된 문화상품을 통해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사찰문화재 해설을 듣고 있는 외국인들.

대불련, 8월 14~17일 영부디스트캠프

전등사 · 보문사 등 강화도에서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신경선, 이하 대불련)은 대학생 불자들의 역량결집과 신심증진을 위한 제5회 KBUF Young Buddhist Camp(영부디스트캠프, 이하 영캠프)를 8월 14~17일 3박 4일간 전등사, 보문사 및 강화도 일대에서 개최한다.청년 대학생 불자 200여명과 함께하는 이번 영캠프는 '우리들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 를 주제로 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19금 붓다' , '강화도의 숨은 문화재를 찾아라' , 대학생 불자들의 끼와 열정을 펼치는 '청춘을 빛내라! 별빛 문화제' , 경쟁하지 않고 화합하는 것이 더 행복한 길임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프로그램 등 대학생 불자가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02)732-0239 이나은 기자

영어로 명상하기 "정말 쉽고 간단해요"

용수 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티베트 자비명상' 인기

"Just relax. Don't try to remember something. We're not doing anything yet there is sense of awareness. You can hear sound and you can feel body. Just let them go(마음을 편히 쉬세요. 무언가를 기억하려 하지 말고, 소리가 들리고 감촉이 느껴지는 등 마음에서 반응이 올라와도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6월 25일 저녁 7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풍경소리 학교 사무실. 수행모임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의 불교 영어명상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6월 25일 저녁 7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풍경소리 학교 사무실. 수행모임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의 불교 영어명상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영어로 티베트 자비명상을 지도하는 용수 스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명상에 몰입한다.

명상을 영어로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용수 스님은 알아차림 게임(mindfulness game)과 소리명상을 쉽고 간결한 영어로 설명해 학생들이 온전한 본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끈다.

"I am being mindful because I can hear the sound of traffic out there(나는 주의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바깥에서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 게임은 간단하다. 학생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현재 눈 · 귀 · 코 · 혀 · 몸 · 생각 등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그 순간을 알아차렸다고 영어로 이야기 하면 나머지 학생들도 같이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이다.

이어서 소리명상이 진행됐다. 용수 스님이 명상음악을 틀어주면 학생들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된다.

"소리에만 집중하면 다른 감각기관의 반응은 알아차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어볼 시간을 자주 가져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좋아요. 소리가 다양할수록 더 좋아요."

한 학생이 졸음이 왔는지 용수 스님에게 질문을 했다.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수 스님은 "졸음을 쫓아내려고 졸음과 싸우는 괴로운 명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 '내가 졸음을 느끼는구나' 하고 그냥 그 느낌이 사라지게 내버려두세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고 소리에 집중한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법이었다. 용수 스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도 내줬다. 매일 짧게 5분이라도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것이다. "짧게 가능한 자주 마음을 알아차려보세요. 생각과 감정 속에 빠졌을 때 그저 이 상태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자연스럽게 놓으세요. 알아차림의 기간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저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다보면 알아차리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마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참가자들은 용수 스님의 명상법이 쉽고 실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티베트 수행에 관심이 많다는 서원국(43 · 남) 씨는 "용수 스님께서 또박또박 쉽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명상이 쉽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오성연 (36 · 여)씨는 "처음 명상을 배웠을 때는 명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용수 스님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며 "지하철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스트레스였는데 용수 스님으로부터 소리명상을 배우고서는 실생활에서 재밌게 알아차림 명상을 하게 돼 유익하다"고 말했다.

용수 스님은 9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 유타주로 이민, 유타주립대를 다녔다. 가족 모두가 독실한 모르몬교 신자였다고 한다. 2001년 유타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의 법문을 듣고 티베트 불교에 매료돼 출가를 결심했다.

이후 2003년 네팔에서 닝마파의 법맥을 계승한 페마 왕겔 린포체의 제자로 정식 티베트 승려가 됐다. 페마 왕겔 린포체가 운영하는 프랑스의 티베트 불교 사원 무문관에서 4년 동안 명상 수행을 한 뒤 2007년 10월 한국에 왔다.

용수 스님은 티베트 명상만큼 쉽고 체계적인 명상법이 없다고 말한다.

"티베트 불교는 부처님을 따르는 정통불교이고, 훌륭한 교리체계와 명상 수행의 전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요즘 여러 가지 힐링과 명상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화와 분노가 없고, 자아로부터 자유롭게 초월해 이타주의와 자비, 행복에 이르는 가장 훌륭한 답이 티베트 불교의 자비명상에 있습니다."

청소년 사경공모전 대상에 유은석 · 김채린

파라미타, 제17회 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 발표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6월 23일 제17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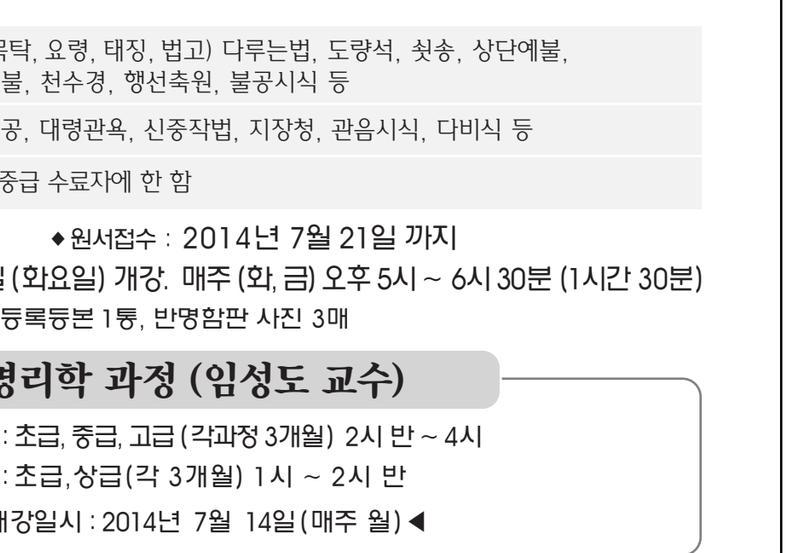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대상에는 유은석(광동고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김채린(광동고2, 봉축위원장) 학생이 선정됐다. 또 최우수상(동국대학교 총장상)은 최이진(광동고3) · 김태연(동대부여고2)학생이, 포교원장상은 장석민(능인고1) · 이상문(동성중2)학생이 수상했다.

파라미타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공모전을 접수하고 5월 29일 사경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에는 1만8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그 중 34개 단체의 작품 중 360점이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추천작들은 5월 29일 심사를 통해 대상 2점과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특선 10점, 장려 10점 외에 입선 40점 등 총 70점이 선정됐다.

사경 심사위원으로 전통사경 기능전승자 김경호(한국사경연구회 회장)회장과 한국사경 전문가 강경애(한국사경연구회 회원), 파라미타 상임이사인 법경 스님이 심사를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경전과 그림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발상의 참신함과 사경을 할 때 글자에 들어간 정성을 수상기준으로 잡고 작품들을 선별했다. 하지만 사경인 만큼 글씨에 중점을 두어 오 · 탈자가 있는 경우 엄격하게 제외했다.

수상한 작품들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나은 기자



(사진 왼쪽부터) 대상을 수상한 유은석(광동고3) · 김채린(광동고2) 학생의 작품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5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9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1년차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사상 (반야심경 · 금강경) 3. 유식과 명상 4. 불교사의 전개 (인도 · 중국 · 한국) 5. 대승불교총론 6. 법화경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주명철교수
2년차	과 목	7. 밀교사상과 천수경 8. 아미타경과 불교의식 9. 화엄경 10. 불교개론 11. 불교문화와 포교 (불교미술 · 다도) 12. 선불교
	교수진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김형준교수, 정엄스님,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2일, 불교미술학과 9월4일, 선·명상학과 9월4일]

✲ 불교대학원 개강 [9월2일, 9월4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6일, 범패의식반 9월3일]

■모집인원(불교학과) | 15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50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4년 7월 1일부터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 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7월 21일 까지

◆개강일시 :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7월 14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60년 전 숨바꼭질, 할머니 돼서 물려주죠

탑골미술관 '종이놀이터'
1·3세대 통합 교감전
노인들 사회참여 · 자존감 높이고
아이한테는 문화 · 교육 기회 확대

가족구조가 변하면서 뜸해지는 조손교류가 복지관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아이들 보는 재미에 어르신은 물론 세대통합 교육 기회가 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인기가 많다. 어르신들은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아동들은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현장을 가 봤다.

원뿔 모양으로 둘둘말린 폐지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머뭇댄다면 당신은 틀림없는 어른이다. 네살배기 아이들은 3초도 안 지나 고깔 모자, 망원경, 확성기를 만들어냈다. 폐지는 머리, 눈, 입 근처에서 휙휙 변신했다. 마술같은 상상력에 주변 어른들은 박수를 보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에서 진행되는 종이놀이터 교실. 주변에서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종이 상자를 재활용해 만든 놀이공간이다. 종이 슬리퍼부터 종이집, 종이의자, 종이자동차, 종이성까지 그야말로 '종이나라' 다. 바닥도 종이라 마음대로 낙서도 가능하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할 뿐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의식도 심어준다.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가 함께하는 세대 공감전이기도 하다. 3~9세 어린이들은 탑골미술관 실버도슨트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공작, IT그림체험, 전통놀이를 함께 한다. 6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동안 운영된다.

서울 남가좌동 환희어린이집 34명의 친구들이 6월 26일 종이놀이터를 찾았다. 평균연령 5세. "이제 놀아볼까요"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종이박스로 만든 성으로 우르르 달려간다. 아이들의 난공에 박스가 하나둘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그저 폐지에 지나지 않지만 아이들은 박스를 넘어다니고 부둥켜안고 던지고 노느라 시종일관 깔깔댄다. 얼마나 신나게 뛰놀았는지 신덕주(6) 어린이 몸에는 땀이 흥건하다.

체력 짱짱한 아이들을 쫓아다니기에 60대 중반 어르신들은 힘이 부친다. 종이자동차를 밀어달라 세 번 네 번 같은 아이가 찾아올 때면 한 대 쥐어박고 싶다가도 "할머니~"하고 안길때면 이내 마음이 누그러진다. 환희 어린이집 친구들이 유난히 '잘 논다' 싶다. 백영자(69) 어르신은 "노인들 딱 과로사하기 좋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5명의 실버 도슨트들은 아이들과 숨바꼭질, 동대문을 열어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며 함께 어울린다. 자신들이 어려서 했던 놀이를 50년이 훌쩍 지나 새로운 세대들에게 물려준다. 아이들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놀이를 하며 함박웃음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실버도슨트지만 중요한 건 용돈 벌이보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데 있죠. 뒷방 늙은이로 앉아있기보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놀이도 가르쳐주고 하는 게 더 쓸모있지 않나요?"

이명숙(67) 어르신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고립감을 줄여준다는 것을 꼽았다.

신분교(69) 어르신도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동심도 느끼니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몰랐던 재미도 지금에서야 느낀다고 했다. 1시간 넘게 신나게 뛰어논 아이들이 떠나갈 시간이 되자, 신분교 어르신이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다. 이내 주변에 있던 어린이들도 몰려든다.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전화로 본다' 던 황준성(5) 군은 "할머니 선생님과 놀아서 즐겁다"며 어르신들께 꾸벅 인사를 건넸다.



탑골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종이놀이터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동대문을 열어라 전통놀이를 하고 있다.

복지관 세대통합 프로그램

탁구교실

서호노인복지관(관장 윤학수)의 토마토 탁구교실은 복지관에서 탁구반을 수강중인 어르신 10명이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20명과 1:2로 결연을 맺어 탁구강습을 하는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이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1시간씩 진행된다. 토마토는 토끼같은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토토시니어 탁구교실의 줄임말이다. 복지관 측은 고령화시대에 따른 긍정적인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고 저소득 아동들에게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1 · 3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있었던 발대식에서는 적극적 참여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031)291-0911

난타교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에서는 어르신의 올바른 여가선용을 돕고 아동과 어르신의 1 · 3세대 간 바람직한 상호작용 활동을 위해 난타교실 '한울림' 을 실시하고 있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짝을 이뤄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난타연습을 한다. 함께 모여 작품을 완성해가며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지역 행사나 복지관 자체 행사에서의 공연도 할 예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며 서로 이해폭을 넓혀간다. 난타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은 여가문화활동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도 줄여나간다. (02)817-8052

댄스스포츠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수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어르신과 학생들이 함께 댄스스포츠를 배우는 '어흥프로젝트' (어르신과 어린이가 흥이나는)를 운영중이다. 초등학생들은 특별활동으로 매주 금요일 복지관을 찾아 약 1시간 넘게 어르신과 어울려 춤을 춘다. 지난 3월에 개강해 약 20명의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댄스파트너가 되었다. 7월까지 운영된다. (02)581-7992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故 배춘희 할머니, 5천만원 기부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 교육불사에 써달라" 유서남겨

지난 6월 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91) 할머니가 마지막 길까지 나눔을 실천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급여(월 90만원)와 광주시 지원금(월 60만원) 등을 모아 마련한 5천만원을 중앙승가대에 기부하고 돌아가신 것. 전달식은 6월 26일 중앙승가대에서 총장 원행스님과 나눔의집 부원장 호련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배 할머니는 타계 직전 유서를 작성해 학인 스님들의 교육 불사에 관한 후원금 지원 뜻을 전했다. 나눔의 집 입소자였던 할머니는 "생전 불교에 귀의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했을 정도로 불심이 남달랐다.

할머니는 이루지 못한 공부 한을 풀고자 지난 2012년 중앙승가대에 3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 할머니는 5천만원을 중앙승가대에 기부했다. 6월 26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석한 중앙승가대 후원회 사무처장 초우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나눔의 집 부원장 호련 스님.(왼쪽부터)

배현진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무악센터 개관행사

지역주민과 바자회, 풍선아트 등 즐겨

종로구의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보완하고 기존 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 16일 개관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관장 정관)가 6월 30일 개관행사를 가졌다.

이날 열린 개관행사 청춘마당은 문화 · 건강 · 체험 · 나눔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문화마당은 종로노인복지관 실버밴드인 상상밴드가 축하공연을 펼쳤고 지역주민들이 노래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이어 건강마당에서는 종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검사와 종로치매지원센터에서 인지력검사를 시행했고 골밀도, 청력 검사 등이 외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지역주민과 무악센터 이용 어르신 3백여명이 참여해 풍선아트, 캐리커쳐, 바자회 등을 즐기기도 했다.

한편 6월 27일에는 노인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문화체험 '6월 유랑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종로노인복지관 실버밴드인 상상밴드가 6월 30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 80여명은 전남 담양 대나무축제를 즐기며 죽녹원 등을 관광하고 돌아왔다.

배현진 기자



6월 26일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개소 5주년 행사포럼을 개최하고 탤런트 김미경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개소 5주년 행사포럼

홍보대사에 탤런트 김미경씨 위촉

조계종복지재단이 2013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가 개소 5주년을 맞아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5주년을 축하하는 행사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는 36만7천가구. 전국적으로는 9.3%가 한부모 가구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이들을 위한 맞춤정보제공, 위기지원, 대안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포럼에서 김혜영 교수(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는 "한부모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보다 3~4배 높다"며 한부모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7만원 지원에 머무는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관점으로 한부모를 지원하는 민간자원 발굴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역시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한부모 지원서비스의 주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종교계는 지역사회 안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장학금과 빈곤가정 지원금을 한부모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자원등을 활용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 및 돌봄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핀란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센터 개소 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대통령을 두 번이나 역임한 타르야 카리나 할로넨 여사 또한 축사를 통해 "핀란드의 약 40%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다"며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는 존경받아 마땅하며 그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할로넨 여사 역시 미혼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온 경험이 있다.

이날 홍보대사로 임명된 탤런트 김미경씨는 "자신 역시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4자매를 키워주셨다"며 한부모 어머니 아버지에게 "미래의 일꾼, 아티스트, 학자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갖고 힘을 내라"고 격려했다. **배현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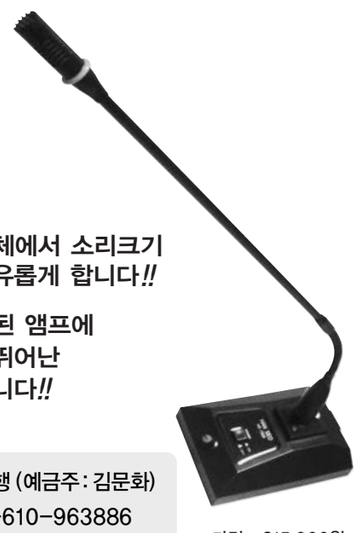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가격 : 2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뻔뻔(FunFun)한 템플스테이'
제5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불교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2회(여름 · 겨울)씩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제5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는 불교학교(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유익하게 익힐 수 있도록 "뻔뻔(funfun)한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정조의 효심이 깃들어 있는 효행본찰 용주사에서 개최합니다.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레크리에이션 이것만 알면 끝! (SPOT 및 불교학교 놀이의 실제)
● 부모은중경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 노래와 율동으로 배우는 부처님 법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이렇게 운영하세요!
● 붓다로 살자 (법회 및 불교학교 활용 소개)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7월 5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전법회관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 대 상 : 각 사찰 법회 및 불교학교(수련회) 지도자,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 참가비 : 5만원 (사전 접수 시 / 당일접수 6만원)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신청방법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참가신청서 다운.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E-mail (burec@hanmail.net), Fax (02-738-7863)]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신청기한 : 7월 2일 (수) 오후 1시까지
■ 문 의 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한국은 미륵·아미타신앙 모두 포용

화쟁아카데미 · 시민행성
조성택 교수(고려대)

1강 '샤키야무니 붓다 등장의 역사적 배경'
2강 역사적 붓다의 재구성
3강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4강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경쟁' 중
5강 근대 유럽이 바라본 '붓다': 부처님은 '영국신사'인가 '맑시스트'인가?
6강 우리 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오늘은 미륵신앙과 아미타신앙을 비교해서 이야기할까합니다.

미륵신앙과 아미타 신앙이 인도, 중국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어왔는가를 살펴보면 자연히 한국불교의 특징 또한 보입니다. 세 곳 모두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아미타신앙이 미륵신앙보다 좀 더 인기를 끌었던 반면 중국에서는 두 가지가 배타적 경쟁관계가 되고, 이후 한국에서는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륵 · 아미타신앙의 차이

미륵신앙의 출발 지점은 현재 미륵보살이 어디 계시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륵보살은 욕계의 여섯 하늘 중 하나인 도솔천에 있습니다. 도솔천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싯다르타 태자로 태어나기 전 있던 곳입니다. 다음에 올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기에 의미상 적합한 장소죠. 또한 인간세계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점 역시 미륵보살의 장소로 어울리는 곳이죠.

그러나 도솔천은 욕계의 하늘이기에 여전히 욕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깨끗하지 못한 곳이죠. 반면 아미타부처님이 있다는 서방정토는 삼계 바깥에 있는 다른 우주입니다. 아미타는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인거죠. 한분은 도솔천에 있고 다른 분은 서방정토에 있다는 것, 처음 출발부터 성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은 아미타불 자신의 '구원 능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떤 고통도 없는, 천상의 지복(至福)만이 존재하는 정토에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륵신앙은 좀 복잡합니다. 신앙 형태에 따라 '상생(上生)' 또는 '하생(下生)'의 방식이 존재하죠. 상생의 유형에서는 신도가 도솔천에 환생하여 미륵을 친견하고자 하며, '하생(下生)'의 유형에서는 미륵이 부처로 지상에 출현할 때 자신도 지상에 재생(再生)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미륵이 살고 있는 도솔천이라는 '장소'로부터 미륵이 부처로서 미래에 도래하는 '시간'이라는 강조점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도솔천에 태어나겠다고 하는 것이 신라의 향가 도솔가입니다. 사회변혁 기이자 정치적 혼란기죠. 불교도들은 보통 미륵이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기를 바라는 혁명 사상 및 활동과 관련 될 경우 미륵의 '하생(下生)'은 보다 임박한 것으로 믿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이 미륵의 현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사회운동을 꿈꾸며 변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미륵신앙입니다.

인도, 대중적인 아미타신앙

미륵신앙은 복합적이고 불분명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붓다로서 미륵을 인정하는 자료들은 너무나 단편적이죠. 인도에서 미륵신앙이 생겨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불교도들에게 도솔천은 욕계라는 이유로 이상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석가모니가 존재하던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었기에 미륵은 별로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미륵은 인도가 아닌 곳에서, 후대가 되어서야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4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미륵불상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 인도에 존재했던 구원론적 신앙은 2세기경 아미타신앙으로 변모됩니다. 동아시아의 아미타불신앙이 관 혹은 염불과 같이 아미타불의 모습에 집중한다거나 그의 이름을 외우는 등 철저하게 아미타불에 헌신하는 신앙행위를 강조하는 반면, 초기 인도에서는 아미타불 정토 재생을 위해 보시 혹은 사경과 같은 신앙행위를 언급합니다. 또한 기원을 전후해 퍼진 멸법이라는 관념, 즉 붓다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된다는 종말론적인 생각은 인도 승려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붓다라는 목표를 추구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지닌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신앙은 재가 불자뿐 아니라 인도의 거의 모든 대승 전통 출가자들에게 타당한 종교적 목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인도에서는 인도 특유의 종교관념으로 인해 미륵신앙이 종교로 굳어지기는 어려웠지만 아미타 신앙은 시대여건상 하나의 지향점이 될 수 있었죠.

중국, 미륵 · 아미타 우월성 논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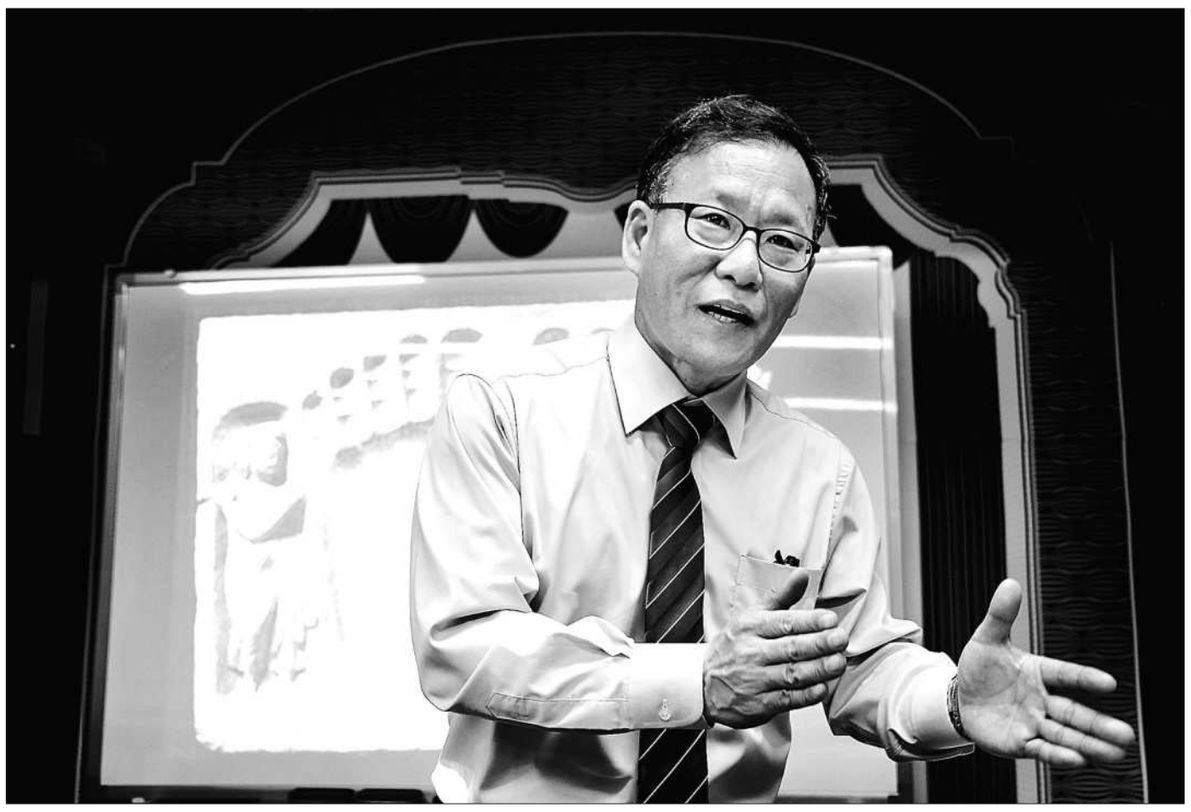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 이야기를 해보죠. 중국을 하나의 문화라고 이해합니다만, 중국은 사실 유럽 범위로 생각해야합니다. 지역마다 관례도 다르고 풍습도 다릅니다. 때문에 중국불교가 한국에 전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불교로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족과 비한족의 구분은 가져야 하죠.

불교가 처음 중국에 소개되었을 때, 당시 중국 북방을 점령하고 있던 유목민족과 남쪽의 한족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방의 유목민족은 처음부터 불교에 우호적이었어요. 불교의 업설은 혈연관계로 왕권을 계승하는 한족에 의해 무시당하던 그들의 선출제 왕권에 특별한 의미와 정당성을 부여해줬죠. 게다가 미륵과 전륜성왕의 개념은 당시 그들의 중국 북방에 대한 침입과 정복을 정당화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족은 불교가 유교적 사회 질서에 기반한 자신들의 고유한 풍속과 달랐기 때문에 불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출가 전통과 금욕적 수행은 가족의 혈연적 유대와 그들의 조상숭배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구요. 한족은 북방유목민들의 침입으로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족은 종교행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상숭배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덤과 사당인데 혼란의 와중에 고향을 떠나게 된 이들에게 당시 불교는 당시 거의 마비 상태가 된 유교의 의례와 종교적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교 승려들은 회한과 죄책감으로 고통 받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종교적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며, 피난길에 죽은 이들의 영혼 또한 달래줄 수 있었죠.

이후 수, 당나라를 거쳐 중원을 되찾게 되면서 왕실의 비호하에서 불교 역시 융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부터 불교는 사회적인 문제에 전혀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제도 근간은 기본적으로 유교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고, 불교의 역할은 특정시간, 영역에 대해서만 제한돼있었죠. 미륵과 아미타신앙의 배타적 경쟁 신앙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수당이후 한족이 아미타 신앙을 중심으로 사후영생에 관심을 두면서 미륵에 관한 관심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륵이 완전히 망각된 적은 없었어요.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철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인도 중국 한국 등 지역, 시대 따라
아미타, 미륵신앙 제각기 수용
욕계 도솔천에 속한 미륵,
동아시아 역사서 변혁 주체로 등장
아미타 정토 신앙, 왕실 민중 선호

한국 불교는 중국화 되지 않은
한국학의 지평확장 가능성 내재

그는 기존 질서에 반하는 정치사회적 운동의 중심적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입장에서는 미래권력중의 하나인 미륵은 언제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미륵은 또한 종교적 엘리트들의 신앙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장은 도솔천에 다시 태어나 미래불의 가르침을 듣고 유식불교에 대한 지식을 완성하고 싶어 했던 미륵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미타 신앙을 선호했던 왕실과 민중, 그리고 미륵을 선호했던 일부 엘리트 승려들간 두 신앙은 배타적 경쟁 관계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미타 신앙을 믿는 이들은 욕계에 속하는 미륵보다 더 깨끗한 서방정토의 장소적 우월성을 들며 옹호하고 나서죠. 인도에서는 없던 이야기가 중국논사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미륵 · 아미타 인기도 같아

한편 한국은 미륵과 아미타신앙을 종합적으로 포용합니다. 처음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 수립된 북조(北朝)를 통하여 불교를 소개받은 한반도에서는 당연히 처음에는 미륵 신앙이 강조되었죠. 중국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했던 한반도의 왕조들 또한 이 새로운 종교가 그들의 나라를 신비로운 힘으로 지켜주길 바랬던 측면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륵의 인기는 당나라 시대 중국에서 아미타불 신앙에 의해 미륵신앙이 침체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남아있는 370개의 미륵 형상 중 221개가 선불교가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인 고려시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불교는 일반적으로 금욕 수행과 명상 수련을 강조하는 반면 신앙 활동을 무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그와 같이 많은 미륵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미래불'의 관념이 한국 불교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미륵 신앙은 미술, 문학, 민담, 대중적인 정치 활동, 그리고 무속적인 종교들을 포함한 한국인의 문화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미타신앙 역시 한국에서는 인기를 끕니다. 원효와 같은 신라의 승려들은 아미타불의 '정토'와 미륵의 '도솔천'과 관련해 어느 천상에 재생하든, 그것이 그 자체로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무상정등각의 성취가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토든 도솔천이든 원효에게 있어 그 차이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은 이후 신라 승려들에 의해 계승됩니다.

한국인들은 미륵사상을 어떻게 그토록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국의 토착적인 믿음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단군신화에서 보면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반도로 강림했습니다. 이러한 설화의 골격이 재림 부처로서 미륵설화와 유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한국불교야말로 한국문화 중 가장 중국화 되지 않은 전통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유일하게 한국학의 지평과 한국을 바라보는 문화적 컨텍스트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거죠.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7월 15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등록문화재 평가 기준 바꿔야"

대각사상연구원 '근대 고승 자료의 수집 · 보존 · 활용' 워크숍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해 지정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불교계가 모호한 등록문화재 기준을 정립해 등록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대각사상연구원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6월 26일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근대 고승 자료의 수집 · 보존 · 활용'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에 대한 관련학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2001년 시행된 제도로 50년 이상된 보호 가치가 충분한 유물을 보존하기 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재보호법이다. 현재까지 종교 관련 등록문화재 59건 중 개신교 30건, 가톨릭 24건, 유교 및 토속신앙 17건으로 불교의 경우 9건에 불과하다.

"불교계, 등록문화재에 관심 인식 부족"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광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몇 백년 이상의 국보나 보물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50년 이상만 돼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등록문화재 지정에 큰 열의를 보이는 이웃종교에 비해 인식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불사 등에 법적인 장애요소가 될까봐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등록문화재를 추진하려 하여도 학술적 자료가 축적되지 않고, 불사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의 '만일참선결사회 만일선회 방함록'과 '고향 흥국사 대방'을 예로 들며 신청절차를 소개했다.

보광 스님은 "불교계에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근현대 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등록문화재가 수 백 년 뒤엔 국보나 보물이 될 수 있다. 역으로 이에 대해 소홀할 시 근현대 시기가 불교문화의 공백기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불교문화재 등록의 평가기준 미흡"

이와 함께 정작 근현대 불교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해도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미흡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인용민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실 팀장은 "문화재청이 근현대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근대성'에 치우쳐 그 문화재의 '종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웃종교는 서양양식 등으로 근대성에 높은 평가를 받지만 불교는 그렇지 못하다. 종교문화재로서의 분야별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팀장은 또 "동시기 같은 작가에 의해 조성된 불교유물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며 "각 지역에서도 문화재 수준과 지정된 문화재의 수량에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인 팀장은 2013년 진행한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목록화 조사 연구'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에 있어서는 지정문화재, 지원 및 활용에 있어서는 등록문화재라는 양대 축으로 불교계가 문화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관리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팀장은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에서 전국사찰의 1만 1309건의 근대문화재를 조사해 등록문화재로 81건 729점을 추천한 바 있다.



보광 스님이 등록문화재 예시로 든 남양주 흥국사 대방.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염불 수행 공간으로 전통방식을 벗어난 근대건축의 성립을 보여준다.

인 팀장은 "보존의 효율성은 지방문화재가, 국가의 지원과 유물의 활용에 있어 등록문화재가 훨씬 유리하다"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나중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등록문화재 지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 팀장은 "근대 조성된 불교유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목록화 조사와 종합적인 정밀학술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과제도 제시했다.

용성 · 운허 스님 근현대 자료 공개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이날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한 용성 스님 관련 역경, 사상서, 전적 및 유품, 잡지, 신문 등 총 277건의 자료의 목록도 공개했다.

김 교수는 "이들 자료는 용성 스님의 생애, 사상, 대각교운동, 일제 치하 불교의 동향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근대기 자료들이 근대불교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귀중한 단서들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광 스님



인용민

남양주 봉선사 지환 스님은 역경불사에 앞장 선 운허 스님이 21년간 빠짐없이 쓴 '탁상일기'를 소개했다.

지환 스님은 "일기를 통해 운허 스님이 진력을 다한 역경사업의 역사적 맥락, 관련 인물과 사건, 문헌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역경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며 근대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지환 스님은 "이웃종교계의 성역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해서"라며 "뒤늦었지만 불교계도 등록문화재에 관심 갖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삼국에 미친 영향은?

불교사회연구소 7월 2일 '고대 불교와 국가' 학술세미나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7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고대 불교와 국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조경철 연세대 박사의 '한국 고대의 불교와 정치' △남무희 국민대 박사의 '고대 불교와 왕권-신라 중고시대와 중대를 중심으로' △박광연 동국대 박사의 '신라시대 불교와 왕권' 등이 발표된다.

이날 조경철 박사는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불교수용과 국난 타개,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주도권 경쟁, 백제와 신라의 정통성 확립과 신화의 재편, 백제 불신(佛神)의 도읍 창건, 신라의 황룡사 창건 등을 발표하며 토론은 조우연 박사(인하대 한국학연구소)가 나선다.

한편, 2011년부터 호국불교 재조명을 주제로 사업을 진행해 온 불교사회연구소는 2014년부터 '불교와 국가'를 주제로 각 시대별 · 국가별 불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 그리고 불교학'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7월 21~22일 가야산 심원사에서 '불교, 그리고 불교학'를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불교의 학문적 연구와 영역을 논의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권오민 경상대 교수와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함께 한국불교의 현실과 불교학의 당면과제를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권탄준 교수(금강대, 한국불교학회장), 김영진 교수(동국대), 배경아(동국대)씨가 나선다.

워크숍 두번째날에는 법수사지와 해인사, 청량사 답사가 진행된다.

조은수 회장은 "최근 불교학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불교학 분야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 불교학의 장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수리현장 '상시 점검' 실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 품질을 향상하고, 수리현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점검단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격 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문화재 수리현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된 민간점검단은 안전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문화재위원,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자 등이 모두 참여한다. 점검단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불법 자격 대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은 6월 말부터 연중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점검을 통해 발견된 가벼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에서 바로잡고, 부실시공 등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사에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문화재 수리현장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 센터'는 2014년 초부터 각 시 · 도에서 운영 중이던 '자격증 불법대여 등 신고 전화․온라인 사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해 신고 대상에 부실 수리와 감리를 포함해 6월부터 운영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 제38호 원고 모집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선학〉 제38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분야는 선불교 관계의 수행, 사상, 역사, 문학, 어학, 문화, 예술 방면이며 원고마감은 오는 7월12일까지.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150매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seonstudy.org) 논문투고 안내와 규정을 참고하면 되며, 한국선학회 이메일(seonstudy@naver.com)로 한글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등을 적어 논문과 함께 보내면 된다.

한국선학 38호는 8월 31일 발간된다. 한국선학회는 "엄정한 절차로 옥고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며 연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종교,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 매개 역할 해야"

유기쁨 연구원, '종교와 공공성' 심포지엄서 주장

종교문화비평학회(회장 장석만)는 6월 21일 만해NGO교육센터 '2014년도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종교와 공공성'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종교안팎의 공공성을 물음으로써 한국사회의 공공성 문제에 내포된 근원적인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유기쁨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각종 사회현안, 특히 생태 사안에 대해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여러 현안을 국가에만 맡겨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을 찾는데 종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가 생태운동 등에서 시민단체와 정부의 중간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사회적 약자는 이전보다 더욱 박탈당하고 소외된다"며 "문제는 그 책임이 개개인에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개인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요청되는 집단적 보호망 가운데 종교는 빼놓을 수 없는 장치"라며 "종교는 생태운동의 현장에서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특히 종교는 폭력적 대치국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사안으로 시민들이 모인 현장마다 종교계의 참여가 요청되는데 이는 생태 공공성이 종교계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생태 운동가들의 저항에 대해 종교계가 일차적으로 보호자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저항세력을 해체하려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한다는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유 연구원은 종교의 대형화로 생태 공공성을 헤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心 靈 治 療 (심령치료)

당신은 심령치료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노우"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석학이신 이희승 박사 편저 국어대사전에 심령요법에 관해 해설되어 있습니다.

또 심령학, 심령현상, 심령술에 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요법은 비 종교 행위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 심령연구에 관한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영국 캠브리지대학 몇 몇 대학에는 심령 연구생 제도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에는 심령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양에는 매우 뒤져 있을 뿐, 그나마 일본에서는 "일본심령과학협회"라는 간판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에 지부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초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 심령치료의 종류

① 재령에 의한 방법

② 인연 해제에 의한 방법

③ 영계 의사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령치료에는 접촉치료와 손바닥 치료가 있고 저마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약이나 물리적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심령술, 심령학, 심령현상 등 복잡한 내용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심령요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치료는 특수 능력을 가진 영모(靈謀), 영능자(靈能者)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의학 등 방법으로 못 고치는 분은 심령치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많은 분을 심령요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심령 연구발전을 위하여 학교선생님, 의사, 학자 등 사회 각계의 관심있는 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青岩禪院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2동 602-4호 전화 02)992-8624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지리산 댐 건설, 다시 수면위로

실상사 비롯한 지리산 종교연대, 건설백지화 촉구



지리산 종교연대 등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6월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도지사 댐건설 재언급
지역불교계 · 시민단체 반발
"문화재 훼손, 침수피해 뻔해"

지난 2012년 환경단체와 지역단체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예산이 삭감으로 중단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지리산댐(문정댐)의 건설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댐 건설 사전 검토회의를 7월 7일 개최한다고 한국수자원 공사 경남 부산지역본부가 밝혔다.

수자원 공사는 애초 다목적 댐으로 건설을 계획했던 지리산 댐을 홍수조절 전용으로 바꾸고 저수량 규모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상사 등 사찰과 문화재, 용유담 등에 침수 · 수몰되는 피해가 없도록 댐 저수량도 1억 7천만톤에서 6천만~7천만톤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부산의 식수 공급용으로 보고 있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는 홍수조절용 댐은 앞 부분에 커다란 방류구를 설치해 담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식수공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이후 업무에 복귀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6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경남 협력문제를 다루며 '부산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 문제'. '지리산 댐을 부산 물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댐으로 건설하는 방안' 과 '주민투표로 댐 건설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동안 지리산 댐 건설을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의 실상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리산 종교연대, 지리산 생명연대와 서부 경남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리산 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 연합등 4개 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지사가 왜 부산시장 노릇까지 하려하느냐' 며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며 지리산 댐의 건설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리산 환경과 주변 문화재들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은 뻔하다" 며 "지리산 다목적댐(식수용)이나 홍수 조절용 댐 건설 모두를 반대한다" 면서 "지리산댐 건설은 기본적인 절차 없이는 주민참여가 불가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천지역 시민 · 사회단체들도 지난 11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문정댐을 홍수조절댐으로 부르는 것은 댐 건설 후 예상하는 실상사 문화재 훼손이나 절경을 자랑하는 용유담 수몰, 남강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사천만 침수 피해 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경련 등은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자연환경과 주변 문화재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낙동강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전 등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애초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세우려 했던 지리산댐 규모는 길이 896m, 높이 141m, 담수 면적 4.6㎢이다. 사업비는 9천897억원이 투입되며 총 저수량은 1억7천만t에 이른다.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용유담의 명승 재지정 절차와 맞물리면서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등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서 65년전 '백범' 을 느끼다

김구 선생 추모재… 사진 20여점 · 휘호 10여점 전시



백범 김구 선생의 추모제가 공주 마곡사에서 열렸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는 6월 26일 연화당와 백범당 일원에서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원종 스님) 65주기 추모 다례재와 사진 · 휘호 전시회' 를 열었다.

이날 원경 스님은 봉행사에서 "김구 선생은 풍전등화에 놓인 민족과 나라의 명운을 밝혀 오늘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데 초석을 다진 분"이라며 "김구 선생의 구국 애민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마곡사는 추모제에 이어 백범당 일원에서 김구 선생의 사진 · 휘호 전시회도 진행했다. 전시회에서는 김구 선생이 1946년 마곡사를 방문했을 때의 기념사진를 비롯해 49재 기념 사진 등 20여 점이 선보였다.

김구 선생은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해 마곡사에서 은거할 때 원종(圓宗)이라는 법명으로 출가했다. 3 · 1 운동 직후 중국으로 망명한 김구 선생은 환국 후 50여 년 만에 마곡사를 방문했다. 마곡사는 이러한 인연으로 김구 선생의 49재를 지낸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신흥사 '스킨스쿠버 양성교육' 개강식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가 설립한 (사)완도문화21은 6월 24일 고용노동부 지원 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완도 스킨스쿠버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30명의 교육생과 운영위원, 6 · 4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 내외빈 소개에 이어 사업목적, 강의내용 및 일정, 강사소개, 운영계획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완도 스킨스쿠버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들은 올해 연말까지 스킨스쿠버 이론 · 실무, 창업 프로그램 교육, 취업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배우게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6월 25일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사찰과 사하촌의 마을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6월 25일 선운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선운골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는 '제 5회 선운골 화합 한마당 잔치' 를 개최했다.

선운골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감대와 일체감을 갖고 사찰, 상가, 주민들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운골 공동체 화합 한마당' 은 스님, 지역 주민등 200여명이 동참해 모처럼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선운사 유스호스텔 앞 생태공원에서 열린 화합한마당은 선운사 주변 마을 사람들과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유스호스텔, 우체국, 농협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공동체인 선운골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했다.

족구, 농구공 넣기,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 던지기, 림보, 과자 따먹기 등의 놀이를 겸한 게임을 즐기며 공동체 구성원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승속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덕사 프랑스 샹송 작은음악회



산사에서 프랑스 샹송과 문화가 어울어지는 공연이 개최됐다. 광주 광덕사(주지 효진)는 지난 25일 대웅전에서 프랑스 샹송 가수 및 연주자 '장폴과 친구들' 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장폴(트럼본, 아코디언), 프랑수아(기타), 아르노(기타, 노래), 제프(드럼) 뮤지션들은 샹송음악 '커피카페' , '쟈바의 여인' 등 주옥같은 샹송을 열창해 신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음악회를 참가한 장폴씨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마치고 퇴직해 프랑스로 돌아갔으나 퇴직 후 음악활동에 시작한 후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자비로 다른 음악가들과 한국에 들어와 대전, 전주, 거제도 등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효진 스님은 "먼저 스스로 한국을 찾아 프랑스의 대중음악을 선보여준 뮤지션들에게 감사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음악여행을 하는 이분들이 진정한 음악예술인이다. 한국에서 만나는 한국사람들과 불교문화를 많이 체험하고 가길 바란다"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생활불교동구협의회, 불교지도자 간담회

생활불교동구협의회 함께하는 공덕회(대표 대현)는 6월 24일 무등파크호텔 연회실에서 지방선거 광주 동구지역 당선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해 동구지역 시의원, 구의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와 불교계를 지원방안들이 논의됐다.

대현 스님은 "앞으로 4년간 동구지역을 이끌 민선 지도자들에게 불교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희용 동구청장 당선자는 "앞으로 구정을 펴는데 불교계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며, "구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행복바라미 실천운동 전개

전국적으로 새로운 나눔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행복바라미' 실천운동이 전북지역에서도 펼쳐졌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는 6월 21일 전주 세이브존 앞 광장에서 행복바라미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전북지역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들이 동참한 이날 모금행사에서 동참한 포교사들은 전주 시민들에게 행복바라미의 의미를 설명하며 새로운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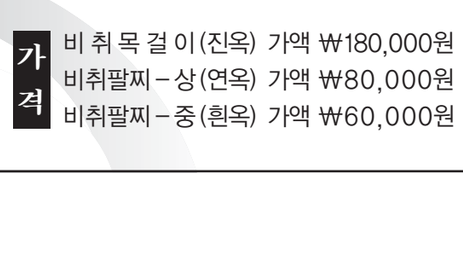
현재 전국적으로 행복바라미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에는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의 무관심속에 모금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어르신 위한 치유 병원 설립

통도사 노인요양병원 6월 21일 기공식


양산 통도사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한다. 6월 21일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는 내빈과 스님들.

5층 건물에 200개 병상 갖추고 '봉양 정신'으로 환자 돌보려
2015년 완공 목표 불사 시작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하화중생과 자비정신을 널리 펼치기 위해 통도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한다. 이에 통도사는 6월 21일 통도사 자비원 앞 부지에서 '통도사 요양병원 기공식'을 가지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간다.

이날 기공식에는 증명법사인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과 원로의원 성파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나동연 양산시장,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축사를 대독한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통도사가 불교 집안에서 해야 할 자비실천을 앞장서 하는 것으로 축하와 더불어 무한한 기대 또한 적지 않다. 모쪼록 육신을 치유하고 나아가 마음까지 치유하는 불교병원으로 기틀을 다지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고령화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항상 체감하고 있었다. 통도사 자비원 산하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불자들이 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하루빨리 요양병원 불사가 이뤄졌으면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원산 스님은 "양산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원력으로 오늘 이렇게 요양병원 불사의 첫 삽을 뜨게 됐다. 끝까지 원만한 불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발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축사에서 고영립 통도사 신도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동현 부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효의 의미가 급격히 퇴색되고 있는 지금, 통도사의 요양병원 건립은 불교계가 사회에 자비행보로 회향한다는 큰 뜻이며, 이는 통도사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진정한 하화중생이다"며 통도사 요양병원의 불사를 치하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양산의 중심인 통도사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게 되어서 한없이 감사하다. 뜻깊은 날, 양산시민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더욱 더 흐뭇하다"며 양산 시민과 함께하는 통도사의 뜻깊은 행보에 감사함을 표했다.

김복광 울산광역시신도회장은 "최고의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의료봉사로 단순한 병원이 아닌 부처님의 불법이 널리 실천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빈들의 인사말과 축사 이후에는 본격적인 불사를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과 시삽이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불사의 첫 삽을 뜬 스님들과 내빈들은 노인요양병원의 원만한 불사와 더불어 통도사 노인요양병원이 부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은 기관으로 사부대중에게 진정한 자비를 펼칠 수 있기를 발원했다.

한편, 통도사 요양병원은 불교의 회향 정신인 '봉양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건립되는 병원으로 부지 5,980㎡에 연면적 360평의 지하1층, 지상 4층건물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수용하게 된다. 병원 내에는 법당, 진료실, 재활 · 물리치료실, 중환자실 등 총 200개의 병상이 갖춰질 예정이며, 최첨단의료시설을 구축하여 뛰어난 불교의료복지시설로 환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지난 2013년 2월, 제60회 임회에서 병원 건립 계획 추진을 확정하고 2014년 6월 임회의 승인을 거쳐 오늘의 준공식에 이르렀으며, 병원 불사를 위해 통도사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시금을 모아 병상, 의료기기, 휠체어 구입 등에 동참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동명세계선센터 '선 수행학교' 첫 수료식

6월 25일 졸업생 60명 배출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수진 스님과 선 수행학교 제1기 수료생들

선 교육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가 현대인의 심신 안정과 평온으로 이끄는 교육 프로그램인 '선 수행학교'의 첫 수료생을 지난 6월 25일 배출했다.

세계선센터 선원장 수진스님이 지도하는 선 수행학교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 입문 과정으로 매주 1회씩 좌선, 차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선 수행법을 전하고 있다.

이날 마지막 수업이자 수료식에 참여한 수강생 총60여명은 여느 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수진 스님이 직접 반야심경을 풀어쓴 '지혜의 길' 봉독으로 시작했으며, 이어서 수료증과 개근상을 각각 수여받았다. 개근상을 받은 14명에게는 특별상으로 수진 스님이 쓴 '중심中心'이라는 서한이 같이 전달됐다.

선원장 수진 스님은 "선이라는 것은 잡다한 마음을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은 졸업 이후에도 마음의 창고를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수진 스님은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의 선 수행 덕분에 학생들의 인성을 위한 공식적인 강의 '선명상과 현대사회' 등이 신설되는 등 선 수행이 대중화되고 있다. 선이 교육에 포함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불교의 포교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며 불교의 선 문화 교육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선센터는 하반기 제2기 학생들을 모집한다. 강의는 상반기와 같이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 세계선센터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월 3만원 혹은 한 학기당 10만원이다. (051)629-3582

김나영 객원기자

"행복한 천진불 세상 만들어요"

동련 제5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동련이 제57회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희망찬 어린이 포교로 천진불 양성에 진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이 제5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6월 21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실시했다.

'희망찬 어린이 포교 · 새로운 출발 · 행복한 천진불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는 참가자250여명이 참가했다. 유진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심사위원의 강의 '국가인증프로그램 도입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활성화'로 그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부장인 송묵스님이 '붓다로 살자'란 주제로 참가자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서 천진불들에게 부처님을 닮은 삶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의 이후에는 천진불의 세상을 발원하는 입재식이 동련 이사장 성행 스님,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동련 부총재 덕진 스님 등 10여명의 대덕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입재식에서 성행 스님은 "여기 어린이 포교를 위해 참석하신 지도자 여러분 외에도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부모 및 자녀까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동련의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한편,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는 1박2일로 어린이 포교 관련 이론뿐만 아니라 찬불가 율동 등 천진불의 눈높이에 맞춘 알찬 포교 프로그램으로 매년 상 · 하반기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051)864-4665

김나영 객원기자

"이타행 본받아 보현행 실천하자"

법성사 창건주 덕오당 법성보살 유물관 낙성식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덕오당실 관람.

대한불교 관음종 영축산 법성사(주지 법명)가 6월 23일 창건주 故 덕오당 법성 보살을 기리는 '87세 탄신 다례법회 및 덕오당실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상단예불로 시작한 이번 탄신다례재에서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 법주사 무상 스님 등 여러 대덕스님들과 내빈을 비롯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법명 스님은 "덕오당 법성 보살님은 타인을 위해 몸과 경제적인 것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도 보살님의 생전 이타행을 본받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유물관 낙성식에서는 테이프 커팅식을 비롯한 '덕오당실' 현판이 공개됐다. 2013년부터 본격적인 불사가 진행된 덕오당실 유물관은 법성사 경내 대광명전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성 보살의 행장을 기록한 비와 석탑이 '덕오당실' 옆에 같이 준공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십시일반 보시금 모아 개금 불사

양산 정종사 개금식 및 백중기도 입재

양산 정종사(주지 여해)가 부처님의 광명을 되찾아주는 개금식 및 백중기도 입재를 6월 22일 봉행했다.

정종사는 16년 전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인 총 여섯 분의 부처님을 대웅전에 모시고 다양한 법회를 봉행해왔다.

하지만 부처님의 상호가 희미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신도들이 십시일반 보시금을 모아 이번 개금식을 봉행하게 된 것이다.

국가 중요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회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시작된 이번 의식에는 바라춤 등 다양한 전통 의식들이 집전됐으며, 백중기도 입재는 물론 세월호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49재가 같이 봉행됐다.

주지 여해 스님은 "개금불사라는 것은 무량한 공덕을 짓는 것과 같다. 불사에 동참해준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자신의 조상님 천도뿐만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 등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천도도 같이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여해 스님을 비롯한 10여명의 스님들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사)한국호국불교 조계종 합동위령재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위령재

(사)한국호국불교 조계종(종정 혜륜)총무원이 주최하고 총본산 법전사가 주관한 제33회 순국선열 및 호국 전몰군경 월남참전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재가 6월 24일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호국불교 조계종 종단 소임스님, 지역기관장, 단체장, 미망인, 유가족 시민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혜관 스님(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부장)이 사회를 맡았고 위령대재 육법공양 등의 의식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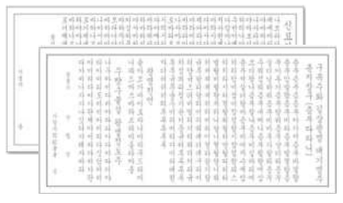
석혜륜 스님(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영령들과 일체 고혼 · 애혼들을 위로하고 천도해 이고득락토록하며 나아가 이 겨레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한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경전사경 ※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금지 관음도 액자 · 바림연등 ※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금지 관음도 액자 6종 38cm×58cm
할인가 20,000원 (10점이상) 정 가 30,000원
문수보살,보현보살,양류보살,월광보살유리보살,일광보살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밀 대 (70개입) 한박스 90,000원
돈타레 (40개입) 한박스 90,000원
원기둥 (20개입) 한박스 90,0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B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D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D형-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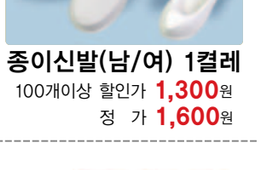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6·25때 소실된 고찰, 승리부대에 중건

호국의 달, 군법당을 찾아서

② 15사단 천불사



미당 서정주의 '천불사시비'

신라고찰 천불사 주춧돌 옮겨와 중건
1980년 서정주 등 불자 마음모아
양측에 계곡끼고 아름다운 가람배치



강원도 화천에 자리한 천불사 대웅전 모습. 신라 법흥왕 당시 지어진 고찰 천불사의 주춧돌을 가져와 중건했다. 대웅전은 그동안의 화재에도 1980년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대웅전 양측으로 계곡물이 흐른다. 계곡을 따라 다리를 놓아 운치를 더했다.

긴 산골의 길을 지나 신록이 찬연한 곳에 위치한 천불사. 서울에서 약 3시간 가량 구불구불 이어진 계곡길을 따라 가면 나오는 숨겨진 보고(寶庫)다.

철원군 천불산에 신라 법흥왕 17년(530년) 혜각스님이 창건한 화천 천불사. 현재 군법당인 천불사가 자리하기까지에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신라고찰인 천불사는 전소된 이후 조선 인조 16년(1638년)에 혜운 스님이 중건했다. 당시만 해도 천불사는 작은 규모로 천불암이라 불렸다. 천불사가 제대로 된 사격을 띄게 된 것은 고종 31년(1894년) 중수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천불사는 다시금 수난을 겪게 된다. 바로 민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 당시 화천 지역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천불사가 위치한 천불산 일대도 역시 고지 쟁탈을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천불사는 소실됐는데 천년고찰의 흔적으로는 주춧돌과 기와만이 남았다.

현재 위치인 화천군 명덕리로 천불사가 옮겨진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1952년 11월 강원도 양양에서 창설된 부대로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승리부대'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제15사단이 이곳에 자리하며 군법당의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군법당이 들어서기 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수많은 불자들의 원을 담아 군법당이 건립된 것은 1980년. 1980년 천불사 주지법사로 처음으로 부임한 김말환 법사는 당시 전소된 터를 찾아 주춧돌과 기와를 가져와 법당을 개설했다.

당시 미당 서정주 시인은 천불사를 찾아 축시를 남기기도 했다.

가문날에 오시는 단비 같이
장마 뒤에 비치는 햇빛 같이
어디가나 언제나 남김이 없이
모든 목숨 살려내는 부처님 마음
여기 이 천불사에 간절히 모시나니
신라통일 때에 이 겨레 도우신
그 힘 백갑절 하여 우리를 이끄소서
그 어느 악도, 병도 두루 씻게 하소서

– 미당 서정주

천불사는 전방지역 불산의 주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때 지어진 천불사의 가장 큰 특징은 양쪽으로 계곡물을 끼고 건립됐다는 점이다. 여느 군법당과 다른 점이다. 직접 살펴본 천불사의 호나경은 좌청룡 우백호의 풍수지리 가람배치가 인상깊다.

예전에는 이 계곡물로 인해 수해도 많았다고 한다. 1997년 천불사가 있는 명월리에서는 폭우로 인해 큰 수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에서인지 법당만큼은 피해를 집이 않았다. 1999년 대광강대남 법사가 도량을 정비하였다. 그 이후 무염 이태곤 법사가 근무할 당시 또 한번의 수해가 발생한다. 이때는 법당 마당이 유실됐으나 불자였던 공병대 대대장의 지극한 노력으로 계곡에 제방을 쌓고 도량을 일신해 피해가 없도록 했다. 최근에는 제방시설을 잘 해놓아, 계곡과 어우러진 멋진 사찰 환경을 뽐낸다.

특히 승리부대 훈련병을 위해서는 2003년 신규법당을 지었는데 90평 규모로 최대 400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천불사를 돌아 나오는 길은 찾은 이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발길을 재촉하면 신록이 찬연한 광덕계곡이 나온다. 광덕계곡의 싱그러운 풀내음을 맡으며 계속해 차를 달리면 구불텅한 산길로 접어든다. 곧이어 유명한 백운계곡이 나온다. 푸르름을 벗삼아 발걸음을 옮겨보면 어떤가.

화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변 안보 관광지

화천은 국내 최대 안보관광지다. 화천은 동으로는 양구, 서쪽으로는 철원, 북쪽으로는 경기도 포천, 남쪽은 춘천, 북쪽은 철원과 접해있다.

태백산맥의 허리 끝인 금강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광주산맥이 거치면서 백암 · 재안 · 사명산 같은 1,000m가 넘는 산이 열 개도 넘는 전형적인 산악지대로 때묻지 않은 청정자연을 자랑한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화천은 해방 직후 북한에 속하였고, 6.25때는 격렬한 격전지였다.

때문에 제대로 남아 있는 마을이나 가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폐허화 됐고, 댐건설로 인한 수몰이 유물을 수장시켰다.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무명용사의 넋을 노래한 가곡 '비목'이 있으며, 고려시대 것으로 짐작되는 위라리칠층석탑, 조선 현종때 성리학자 김수증이 후학을 가르치던 회음동정사지 등이 있다.

▲승리전망대

휴전선 155마일 중 정중앙에 위치하는 승리전망대는 가장 북한 쪽 관측이 잘 되는 곳으로 북한군의 이동모습을 물론, 경원선철도, 광삼평야, 아침리 마을 등 남북 분단의 현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15사단 관할 지역으로 차량으로 20분 가량 이동하면 된다.

▲평화의댐과 평화의종 공원

화천 관광의 중심에는 평화의 댐과 평화의종 공원이 있다. 화천읍 동촌리에 만들어진 평화의 댐은 북한의 수공(水攻)에 대비해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졌다. 북한 금강산댐의 위협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단계 공사가 2005년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평화의 댐은 민족 분단의 아픔과 함께 화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꼽힌다.

▲이외수의 감성마을(사진 오른쪽)

천불사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화천 상서면 다목리의 다목 감성마을은 이외수 씨 문학 작업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감성마을은 이외수 씨를 촌장으로 감성 테마 문학공원을 구성해놨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장병들 편히 쉬는 쉼터 역할"

주지 법찬 이재혁 법사



천불사 주지 법찬 이재혁 법사는 2005년 임관한 이후 현재 15사단 군법사로 있다. 이재혁 법사는 현재 천불사가 있기까지 수많은 선배 군법사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군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쉼터로 꾸며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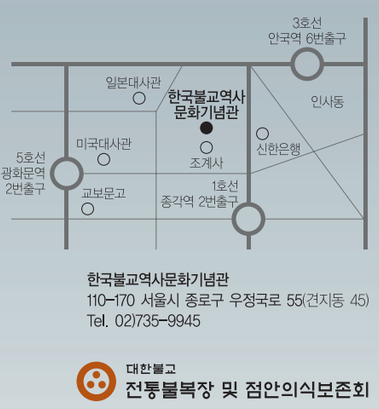
사실 천불사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 수나 재정 등이 열악한 상황이다. 천불사 일반 신자는 인근에 민가조차 많지 않아 30여 명에 불과하다. 초하루 관음 · 지장재일에는 군신자 10여 명이 찾고 있다.

하지만 천불사를 찾는 장병들은 평균 100~140명 가량에 달한다. 이 법사는 "인근 27사단 포병부대를 비롯해 인근부대의 인원도 소화하고 있다"며 "법회 때 법당에 다 앉지 못하고 밖에 서있는 장병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근 천불사는 인터넷 포교에 힘써 신병교육대 까페를 개설해 장병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방의 군법당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군장병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군법당 불사에도 불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시연회

| 일시 | 불기2558(2014)년 7월 9일(수) 오후 1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10-17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견지동 45)
Tel. 02)735-9945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부처님의 모습이 그리워 불상을 조성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 예경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상에 생명을 넣기 위한 의식은 오장육부를 채우는 복장의식과 정신을 깨우는 점안의식으로 거행됩니다. 복장점안의식은 사찰에서 비밀리에 행해지기에 많은 이들이 그 심오함을 알지 못하여 의식이 여법한 절차로 거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본 보존회는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이 지닌 의미와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 함께 자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장 무 관 합장



| 주최 |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 주관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



반야심경은
심(心) · 불(佛) · 중생(衆生) 모두
진공묘지(眞空妙智)에서는
본래 평등한 중도실상이고
열반피안(涅槃彼岸)임을 분명히 찬탄하고 있다

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심경 송찬우 편역 | 신국판 | 340쪽 | 14,800원

유식(唯識)을 바탕으로 마음 도리와 불교교리를 통설하다

『반야심경』은 부처님 49년 장광설법인 일대시교(一大時敎) 가운데 21년 동안 설한 광대하고 심오한 6백부 『대반야경』의 핵심 요지를 빠짐없이 원만구족하게 간직하고 있는 골수이다. 본서에서는 불교의 근본교의인 세간 · 출세간의 모든 인과차별상(因果差別相)과 성(性) · 상(相)이 둘이 아닌 중도실상진공(中道實相眞空)으로서의 열반을 더불어 비추고 있다. 이를 근본자체로 의지해서 일으키는 3관수행문(三觀修行門)과 현설반야(顯說般若)와 밀담반야(密談般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과 교리체계를 낱낱이 함축하고 있다. 실로 이는 교리적으로나 사상에 있어서도 위대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탄허스님으로부터 교(敎)를, 성수스님으로부터 선(禪)을 배운 동현학림 송찬우(前중앙승가대 교수) 원장의 역작.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新 사찰 건축
11. 논산 관동사

드러나지 않는 상징성… '새로운 전통'

충남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골짜기엔 관동사가 있다. 2005년에 지어진 관동사는 절이 분명하지만 외형만 봐서는 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관음전'이라는 현판을 찾아내는 순간 겨우 절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며, 법당 문을 밀고 나오는 스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동사의 '건축'을 살펴본다.

현대적인 절이란?

모든 건물은 용도에 따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주택, 갤러리, 학교, 극장, 식당 등 각자 외형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다. 대부분 건물의 외형이 그 건물의 용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은 지어야 할 건축물의 용도에 다른 상징성 안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절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절'의 모습이 있다. 절을 구성하는 당우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끝을 들어 올린 기와지붕. 벽면의 틀을 만들어 내는 원목의 기둥과 문살들, 원목에 베여있는 단청 등이 그것들이다. 물론 이는 그야말로 천년 이상을 이어져 온 전통적인 사찰의 모습이다. 현대에 지어지는 사찰들이 앞서 말한 전통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절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절이라는 상징성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와 한 장 볼 수 없는 관동사의 경우는 그 부분이 극히 미약하다. 관음전이라는 현판 자체도 전통적인 모습이라고는 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눈에 절임을 알아볼 수 없는 관동사는 건축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또 굳이 의도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사찰건축의 현대적인 모습, 즉 '현대적인 절'이란 어떤 모습이라야 하는 것일까. 관동사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가 김홍일(58 · 동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집(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생활에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생활의 반영이고 결과물인 것이다. 전통적인 사찰의 모습 역시 그 시대의 생활에서 온 것이다. 그럼 관동사는 이 시대의 생활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어진 것일까.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에 초점을 맞춰 설계한 요사채


많은 창호로 채광을 높인 관음전 내부

시작도 끝도 '실용성'

법당 관음전과 요사채 1동, 객실용 별채 1동으로 이뤄진 관동사의 건축은 실용성에서 시작해서 실용성으로 끝난 건축이다. 관동사를 세운 주지(본인의 요청으로 법명 생략) 스님은 현재 대중 스님 한 분과 절을 이끌며 노보살님 한 분을 모시고 있다. 절을 세울 당시에는 다섯 분의 노보살님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돌아가셔서 이제 한 분만 남아계신다고 했다. 주지 스님이 절을 지은 이유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함이었다. 주지 스님은 절을 짓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르신들의 만년을 지켜드리며 함께 살고 싶었다. 그것이 절을 세운 이유의 전부다. 결국 관동사는 '복지'의 공간인 것이다. 스님은 복지에 관심이 많았다.

"건축은 그 시대 생활상의 '반영'"
연로한 어르신들 위한 요사채 중점
어설픈 전통 흉내보다 '실용' 추구
종교적 상징성 '양식'으로 풀어내
'지붕-기둥-마루' 한옥전통 양식 도입
사찰건축의 현대적인 모습 제시
관음전 넓은 창호로 내부 밝게

여기저기 관련 강의도 들으러 다니며 복지에 대한 원을 키워갔다. 스님의 복지관(福祉觀)은 남달랐다. 스님은 "진정한 복지는 인간과 인간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나는 내가 결코 어르신들을 돌봐드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복지관(福祉館)은 '수용'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인간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공간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런 복지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관동사는 법당보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요사채를 중요하게 생각한 도량이다. 스님은 어르신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첫째도 '실용성'이고 둘째도 '실용성'이었다.

설계를 맡은 김홍일 교수는 고민했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공간의 실현은 어렵지 않았으나 '절'이라고 하는 종교적 상징성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일단 실용성에 맞춘 요사채와 조화를 이뤄야 하는 법당의 설계가 쉽지 않았다. 이미 목조가 아닌 시멘트 건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절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어울리지 않는 기와지붕을 올린다든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스님 역시 시멘트 건물에 기와지붕과 단청은 반대였다. 어설픈 금상첨화보다는 제대로 된 소창치마가 좋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원목의 기둥 위에 기와지붕을 얹고 꽃문양 문살로 지은 법당을 짓고도 싶었지만, 그보다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요사채가 더 중요했고 그런 스님의 생각은 건축가를 고민하게 했다.


법당 관음전과 요사채 1동, 객실용 별채 1동으로 이뤄진 관동사의 건축은 실용성에서 시작해서 실용성으로 끝난 건축이다.

현대적 건축언어로 풀어낸 '전통'

"지붕, 기둥, 마루. 이 세 가지가 우리 전통 건축의 기본 요소입니다." 김 교수는 건축적인 절의 상징성 문제를 구체적인 외형이 아닌 '양식'으로 풀어갔다. 관동사의 외형에서는 기와나 원목의 기둥 등 전통적인 사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색칠을 하기 전인 밑그림을 보면 그 양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 관동사의 건물들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하고 그 세 가지 요소의 틀에서 지어진 건물이다.

관음전은 전통양식의 거대한 기와지붕 대신 심플하고 슬림한 수평의 지붕을 얹었고, 벽면에 붙어있는 전통의 원목 기둥 대신 벽과 분리된 직선의 기둥이 그 날렵한 기둥을 받치고 있다. 그리고 툇마루 개념의 기단부를 지붕의 대칭 구조로 두었다.

관동사 관음전은 시멘트로 지어진 법당이지만 골격은 한옥의 골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의 전통적인 골격역시 한옥의 구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적 건축 언어로 고전적 건축 언어를 풀어낸 것이다. 관동사 건축은 우리 건축의 전통양식인 '지붕-기둥-마루'를 그대로 옮겨왔다. 시멘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절의 상징성을 느낄 수 없을 뿐이다. 한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입은 의복으로 국적이 구분되는 시대가 아닌 것처럼 건축 역시 시각적인 요소의 계승이 없다는 것만으로 상징성의 문제를 따질 일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관동사 건축에서 상징성 문제는 법당 내부에서 또 한 번 진일보한다. 관음전은 벽면 전체가 넓은 창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전통적인 법당보다 내부의 채광이 많다. 김 교수는 "왠지 종교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기 위해 다른 공간보다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불교는 깨달음을 위한 종교이고, 깨달음이란 곧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밝은 법당', 외형적인 상징성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상징성의 문제까지 새롭게 다가가고자 한 것이다.

현대건축에 이미 우리 전통이

"관동사 설계의 기본 양식인 '지붕-기둥-마루'는 현대건축에서 추구하는 기본 양식이기도 합니다." 관동사는 한 눈에 절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절이다. 하지만 전통의 양식을 뼈대로 지은 현대건축이다. 그런데 현대건축의 기본 양식 속에 이미 우리 전통의 요소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현대적인 사찰건축을 이야기할 때마다 '전통'의 문제가 숙제였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절'이라고 하는 상징성의 유지에 관한 문제였다. 기존의 '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는 것이다. 관동사 역시 현대건축으로 지은 절이기에 의뢰자나 설계자나 모두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관동사는 그 상징성의 문제를 겉모양에 연연해하지 않은 건축이다. 건축이 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절이라고 하는 종교적 상징성의 문제 역시 외형만을 의식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동사가 완공되었을 때 주지 스님은 지인들로부터 불사에 대한 아쉬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했다고 했다. "지붕에 기와라도 얹지 그랬어." 왜 절을 이렇게 지었냐고 마땅치 않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주지 스님은 여기저기서 싫은 소리를 듣다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고 다소 후회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다. 하지만 기와를 얹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관동사 자리는 산과 산 사이, 즉 골짜기인데 이 자리가 바람의 길목이라는 것이다. 특히 겨울엔 센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다. 스님은 "만약 기와를 얹었다면 허구한 날 기와 날아갈 걱정하며 살 뻔했죠."라고 했다.

관동사는 절이라고 하는 상징성의 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 끝에 선 도량이다. '평가'의 시선보다는 '수용'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건축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건축가 김홍일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고, 프랑스 파리 벨빌건축대학과 프랑스 파리 10대학 예술사학부 박사 준비과정을 졸업했다. 플랜비건축사무소와 위드종합건축사무소 소장을 지냈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대한 건축학회 편집위원 부위원장, 한국건축가협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시 공공건축가이며 동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이다.

주요 작업은 당진 무문암과 논산 관동사, 코코모 사옥, 금촌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설계를 담당했고, 국립중앙박물관 국제 현상설계 5위 입상 등 다수 현상설계 입상했으며, '돔-이노 이론에 의한 현대건축 입면공간에 대한 논문'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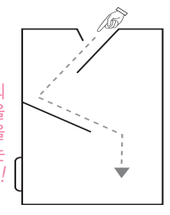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파손, 도난 걱정 끝!!
이제는 범양금고 철제 불전함 입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기존 목재 불전함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철제 복전함으로 실내외 어디든 정재보호와 도량장엄의 역할을 다합니다.



◆ 특징 : 파손 및 도난 걱정 끝, 견고한 통강판 사용, 번호 및 키 잠금장치, 바퀴 부착으로 이동편의
① 높이 650 × 너비 700 (85만원)
② 높이 620 × 너비 420 (50만원)
③ 높이 620 × 너비 350 (40만원)
④ 높이 900 × 너비 600 (80만원)
⑤ 높이 730 × 너비 600 (70만원)
⑥ 높이 1000 × 너비 600 (80만원)
⑦ 높이 700 × 너비 700 (70만원)
⑧ 높이 740 × 너비 650 (85만원)

◆ 주문 후 2~3일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송달비 별도)
◆ 시안 제작 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일반 금고 판매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 : 강순길)
기업은행 010-5414-2304 / 국민은행 614101-01-048120
농협중앙 221103-52-056910 / 하나은행 479-910037-98607





범양금고 031)764-6234. 010-5414-23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길 8 (연곡리 172-5)

후학들 '자주·개혁' 만해 사상을 실천하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⑫ 만해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들 〈끝〉



지난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린 만해축전에서 만해대상 수상자들과 각계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시작한 만해대상과 만해축전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발돋움했다.



백담사 만해마을 전경. 지금은 동국대 연구, 교육시설로 기증됐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전경. 만해 스님의 자료가 가장 잘 정리돼 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매년 3월 1일 개최하는 전국만해백일장.

올해는 만해 스님이 열반한지 꼭 70년이 되는 해이다. 1944년 6월 29일 입적 이후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려 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있어왔다.

대표적 시도로 꼽히는 것인 1973년 발간된 〈만해 한용운 전집〉이다. 박노준 한양대 명예교수가 2006년 〈고대 교우회보〉에 게재한 연재에 따르면 스님의 전집 발간을 위한 시도는 1958년부터 있어왔다. 박 교수는 은사인 조지훈으로부터 〈만해 한용운 전집〉의 편찬, 발간 작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받고 발간까지 실무를 맡았다.

박 교수는 전집 발간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 열람을 기초로 〈한용운 연구〉라는 단행본을 1960년 통문관에서 펴내기도 했다.

박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만해 한용운 전집〉의 유력은 대단했다. 그는 "범(凡) 학계와 문단의 여러 인사 그리고 석 ·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만해 스님의 여러 국면을 연구하는 붐이 갑가지 일어나 빠른 속도로 번졌다"면서 "그러한 움직임은 가속도가 붙어서 오늘 와서 '만해학' 이라는 학명이 나올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해를 기리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매년 곳곳에서 거행되거니와 이런 모든 학문적 열기는 〈만해 한용운 전집〉이 토대가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해대상' 과 축전–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후 불교계 안팎으로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단체들이 속속 만들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사)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 이하 만해선양회)다.

만해선양회는 만해 스님의 사상과 그 정신의 구현을 위해 1996년 백담사에서 발족했다. 초대 총재는 월주 스님(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추대됐다.

선양회의 설립 목적은 당시 발표한 취지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만해선양회는 취지문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불교 근대화운동과 개혁사상은 오늘날에도 커다란 울림을 지니며 새로운 빛과 향기를 더해 가고 있으며, 스님의 민족사상 역시 오늘날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횃불로써 타오르고 있지만 오늘날 선사의 이러한 큰 사상과 업적을 총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선양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국가적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만해 선사가 출가한 만해정신의 요람이자 불후의 시집 〈님의 침묵〉을 집필한 명작의 고향인 설악산과 백담사에서 중심이 되어 만해사상 실천과 선양운동을 전 국민적, 전 민족적으로 전개해 나아가는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립 이후 만해선양회는 만해 정신의 선양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만해정신의 선양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이들에게 수여하는 만해대상이다. 1997년 제1회 만해대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1회 수상자로는 △평화부문– 조영식(경희대학원장) △포교부문– 故 숭산 행원스님(화계사 조실) △실천부문– 카톨릭 농민회 △학술부문– 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예술부문– 이반(덕성여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1973년 만해 전집 편찬 · 발간
이후 선양사업 잇달아 시작
만해선양회 · 기념관 등 스님 조명

만해 스님 탄신 120주년을 맞는 1999년부터 시작한 만해축전은 이제는 강원 인제 지역을 대표하는 여름 문화 축제로 부상했다. 올해도 오는 8월11일부터 14일까지 만해마을 등 인제군 일원에서 만해축전을 열어 만해스님의 민족애와 문학정신을 계승할 예정이다.

만해선양회는 백담사 인근에 설립한 만해마을을 조계종립대학인 동국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만해마을은 △문인의 집(숙박 및 문인집필시설, 객실 47실 200여명 동시 수용) △만해기념관(박물관) △만해학교(교육시설) △서원보전(사찰) △만해수련원 △청소년수련원(500여명 수용가능 수련시설)등 건물 6개동과 종각, '님의 침묵 광장' 등 부대시설로 이뤄져 있다. 토지면적만 21,000㎡에 달하고, 건물 면적도 12,000㎡에 달하는 대규모 전시, 교육, 수련시설이다.

오현 스님은 당시 기증식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서 만해마을을 설립한 취지에도 부합하고, 만해광장, 만해관, 만해시비 등이 있는 동국대와 인연이 깊다"면서 "우리가 (만해마을을 운영)하는 것 보다 10배 이상 만해선양사업을 잘 할 것으로 생각해 동국대에 기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동국대는 만해 마을을 국제평화캠퍼스를 장기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만해마을 캠퍼스 교육원을 설치할 방침이다.

청년 만해의 산실–대한불교청년회

만해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대표적 단체 중 하나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다.

대한불교청년회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9년 3.1운동 이후 31개 본산 대표자와 중앙학림 학생들이 모여 민족운동가 만해 스님의 뜻을 받들어 1920년 6월 20일 각황사(覺皇寺, 현 조계사)에서 31명의 대표간사를 선출하고 조선불교청년회를 창립한 것이 대한불교청년회의 첫 출발이다.

1927년에는 통일전선체인 신간회(新幹會) 결성에 호응하여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신간회 경성지회장인 만해 스님의 지도하에 회원의 상당수가 신간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1930년대 일제가 중국대륙을 침략하면서 국내의 민족독립세력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하자 모든 항일운동이 지하로 잠복하게 되는데, 불교계에서도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비밀결사조직인 만당(卍黨)을 결성하고 조선불교청년동맹은 만당의 지도아래 활동한다.

1938년에 김법린 등 핵심당원들이 검거됨으로써 조선불교청년회 역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실질적 활동이 중단된다.

해방 이후 1948년 11월에 김법린 등이 조선불교청년회를 재건하였으며, 1962년 6월 20일 문화공보부에 대한불교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종교단체로 등록하고 조직활동을 활성화하였다.

1970년 창립50주년 기념행사로 한용운 초대회장 추모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그의 불교유신정신을 받들어 팔만대장경을 축약, 번역한 〈팔만대장경〉 한글판 단행본을 간행하였다.

1979년 3 · 1절을 기하여 전국만해백일장 및 전국찬불가경연대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만해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조계사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전국만해백일장은 현재까지 매년 3월 1일이면 개최되는 연례 기념행사가 됐으며, 그 규모도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문학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선양의 열정 담겨–남한산성 만해기념관

만해 스님의 유품과 자료가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돼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남한산성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이다. 이곳은 '만해 사상 선양' 이라는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의 필생 원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만해기념관의 시작은 1980년 심우장에 설치된 자료관이다. 전 관장은 당시 한양공고 야간부 교사로 재직하며 낮에는 만해 스님 연구와 자료관 관리를, 밤에는 교편을 잡는 생활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이에 전 관장은 만해 스님 정신을 선양하는 데 심우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관광지로 이목이 집중되던 남한산성에 지금의 기념관을 지었다. 1990년 심우장에서 남한산성으로 자리를 옮긴 자료관은 1997년 최종 완공돼 기념관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1995년에는 백담사에 만해기념관이 개관했고, 2006년 만해 스님 고향인 홍성에 만해 문학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전국에 세 곳에 있는 기념관에는 모두 전 관장이 제공한 자료와 콘텐츠들이 담겨 있다.

기념관은 만해 스님의 유품과 생전 저술 등을 상설 전시하면서 매년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시를 통해 스님을 조명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재를 마치며

연재를 시작하고 만해 스님 관련 자료와 연구 논문, 스님 평전 등을 살피면서 스님의 자세한 생애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만해 스님이 삶을 통해 보여준 업적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독립을 위해 투쟁한 운동가였으며, 깨달음과 자유의지의 열망을 노래한 시인이자 문학가였습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치열한 구도열을 가진 수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의 주요 행적에 따른 장소를 선정해 연재했지만, 사실 조선 팔도 스님의 발길이 닫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치열한 삶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자신을 던져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열정입니다. 전보삼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은 "행복해지고 싶다면 만해 스님의 열정을 배워라"라고 말했습니다.

연재를 마치며, 스님의 열정적 삶을 조금이나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심성의 공항으로 가는 길 '직심로'

법 신 ④

다행히 참 불문에 들어온 것은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또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불문에 들어온 사람 많이 있지만 말이죠, 대개 보면 다른 문으로 간 사람도 있잖아요? 참 이거 복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공부는 절대 복 있어야 됩니다.

난 이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가 날카로워야 되지만 복도 있어야 된다. 복이 없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연히 공부를 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고집. 고집이 있으면 말이지 업이니 복이니 이 놈이 들어붙지를 못 해.

저 여러분 신문 봐서 알겠습니다만도 대원경 보살하고 잘 아는 분입니다만 남자가 토목 사업을 하는데 아들 딸들이 다섯인가 여섯인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애가 다섯 살인가 여섯 살인가, 우리 지미만 한 놈인데 어찌 하다 오대산에 들어가서 큰 스님 만나고 와서 어떻게 됐든지 그만 집에 와서 참선하고 들어앉아 버렸어.

그러니 어린 것들이 찾아. 남자가 와서 이 사람아.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여. 이것들 보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 그래서 방한암 스님 밑에서, 대원사 밑에 집을 지어주었거든. 그러니까 고집이거든요. 딱 뗐어. 남편이다 자식이다 딱 뗐어. 자식도 다섯 살인가 여섯 살인가 그래요…

그후 죽긴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원망할 건데, 보통 상식 같으면 원망할 건데 원망을 안 했어. 신문에 보니, 내 그 사람들 모릅니다. 신문에 보니 애들이 말이죠 그 다섯 살인가 먹은 놈들도 청년이 되고 이리 됐거든.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해서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마운 생각이 나는지, 내하고 얼굴도 모르죠.

엔간한 사람 같으면 우리 어머니는 자기 혼자 잘 되려고 어린 것들 내버리고, 아버지는 나중에 홧병이 나서 죽었거든.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랬다 하고 얼마라도 말하려면 말할 구실이 있을 건데 도리어 어머니가 죽었다고. 책을 낼만 한 그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뭣인가 책이라도 내겠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아 참 고마운 분들이다 이랬어요. 고마운 분들이다. 엔간한 사람 같으면 원망합니다. 자기 잘 되려고 우릴 버렸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하나 고집인데. 복이 없으면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잘 쓰면 좋고 고집을 잘 못 쓰면 망하고 이런 건데 이 사람의 고집은 뭣이냐 공부를 하겠다는 고집이거든요. 생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고집이거든요. 영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고집인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말이죠. 좌우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참 아닌 게 아니라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데 큰 복이 없으면 불법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이해를 하

> **참 불문에 들어오는 것은**
> **복이 있어야 가능한 일**
>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
> **경계에 따라 방황하지 말고**
> **가지 본성의 길 직심로를**
> **따라 나아가라**

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실은 그 복이 이만저만한 복이 아닙니다. 만약 복이 없으면 꼭 오려고 약속을 해 놓고도 못 올 사정이 생겨. 못 와. 그리 됩니다.

마지막 가서는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말로 이거 선지식이 없으면. 이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 믿기나 하고 이러면 책만 봐도 행동에 옮길 수가 있어. 설법만 들어도 행동에 옮길 수가 있어. 그러한데 아 이건 아니네. 조금 달라. 나중에 내 얘기하죠. 조금 달라.

그러하니 선지식 만나기가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연 참 옳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겨지니까 어떻든지 여러분들은 모든 복을 그만큼 갖췄다고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 보겠습니다.

인신을 받은 것이 다행한 기틀이라면 불법을 만난 것은 고마운 인연이다. 부처님은 당신 자신의 경험을 통하시어 중생 제각기의 근기대로 팔만사천법문을 여기에 열어놓으시고 특히 격외 선지의 깃발을 드높이셨다. 뿐이랴. 세존께서는 이미 심성의 공항에다 팔만사천대의 제트기를 대기시켜 놓으시고 맑은 눈알을 굴려대시며 중생들이 달려와서 입맛대로 타기를 기다리신지 이미 오래다.

이거 여기 비유해서 말했지만 이거 사실입니다. 머리털만큼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석가세존. 우리가 달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구변, 말재주로서 여러분이 듣는다면 죄로 갑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의 소원이 중생제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 써 놓은 것은 머리털만치의 거짓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생 자기가 안 가, 안 가는데야 어떻게 하겠어요? 일로 쫓아다니고 절로 쫓아다니고, 안 가는데야 어찌 하겠어요? 억지로 끄집고 갈 수는 없네. 하하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렵느니라. 무엇들을 어정거리느냐. 심성의 공항으로 뛰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니 직심로일 따름이다.

심성의 공항으로 가는 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울로 가는 길 알죠? 우선 심성의 공항으로 가는 길이 이름이 무엇이더라. 그놈을 말로 하면 뭐라 하는고? 알긴 아는데 그 이름이 뭣이 있어. 심성의 공항으로 달리는 길은 직심로입니다. 직심로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 곧은 마음 그거 하나뿐이에요.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서 나타나는 길, 곧은 길, 직심로뿐이라. 서울에 가면 종로 무슨 로 무슨 로 이래 있잖아요? 하하하. 직심로뿐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만 이 말 듣고 이대로 결정하면 그만이에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스스로 깨치고 남 일깨우고 실천하자

⑧-2 상수불학(常隨佛學)

수행은 신(信)이 근본이며 이 속에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다. 신을 떠나서 주(住)도 행(行)도 회향(廻向), 지(地)도 있을 수 없다. 믿음을 알뜰한 것, 신리실유(信理實有)고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 노력을 하여 얻어진 경우엔 무궁한 공덕이 있다는 이것은 바로 묘각(妙覺)의 지경이다. 그러므로 신(信)에서 신실(信實)한 지경에서 모든 것을 다 본다. 이는 화엄경(華嚴經)에 있는 바와 같이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源功德母)다. 신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모다.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근원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지경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 신, 믿음이란 아미타불을 믿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아미타불의 본원력(本願力)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에 나무(의지)한다. 귀의한다.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만이다. 교학상으로는 이를 타력의존(他力依存)이라고 하는데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할 뿐이다. 아미타불을 객관적으로 볼 때 타(他)이다. 내가 타인 아미타불에 의지하므로 우리는 타에 의지해서 살아 나간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거기 의지한다.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주의 대생명(大生命)에 대생명을 깨친 이에게, 그리고 이를 성취한 이에게 돌아간다. 의지한다는 것이다. 우주의 전 인류를 대자대비로서 사랑하시는 대사회(大社會)를 건설하시는 그에게 이를 깨치고 성취한 이에게 우리는 의지할 뿐이다. 나무아미타불이란 이것이다.

이런 뜻으로 타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절대타력(絕代他力)의 본원력에 의지한다.

아미타경(阿彌陀經)에 순피본원고(順彼本願故)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본원력에 순종하는 연고로 해서 우리는 이에 의지한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뽐내지만 실상은 지지리 못났다. 인간이란 육체만으로 봐서는 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죄악의 뭉치고, 번뇌 망상과 온갖 어리석은 생각을 빼놓지 않고 잘도 갖추었다. 우리는 이렇듯 가련한 중생이다. 불쌍하다. 불쌍한 중생이 잘난 체 해 보아야 소용없고 차라리 제가 못생기고 지지리 못났다고 생각함만 갖지 못하다. 이렇듯 못생긴 것들만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이것들이 인간이다. 이생이다. 중생이다, 하고 꾸물거리고들 있다. 대자 대비한 부처님은 이런 우주에 가득 찬 못생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나시었다.

제가 잘 났다는 사람 저 혼자 아무렇게라도 살아나갈 사람은 대자 대비한 부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현대인은 먼저 이러한 아집(我執)을 버리기 전에는 신(信)에 들어갈 수가 없다. 번뇌 망상과 죄악의 뭉치인 중생을 아미타불은 한 사람이라도 다 빠짐없이 건져 주고 난 다음에라야 스스로 성불하겠다는 무연대비(無緣大悲)를 성취하시었다. 우리는 이래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의지한다. 또한 이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시방 삼세의 여래(如來)들이 다들 서설증(舒舌證)으로써 증명하였다.

> **불학은 사회와 우주의**
> **광범위한 진리를 터득해**
>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
>
> **대중과 함께 불법을**
> **실천해 안락에 이르는**
> **생활을 해나가자**

원효대사는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라는 저서에서 정토로써 본 원을 세움은 오로지 범부를 위한 정토본의 전위범부(淨土本意 專爲凡夫)이라, 하시었다. 유심안락도란 안락한 도에 마음을 노닐게 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으므로 오로지 가진 것이라곤 대자 대비밖엔 없었으며 이것이 전 재산이었다. 대자 대비란 중생 건지기이다. 그러므로 중생 건지기가 부처님의 재산 목록이다.

부처님의 전 재산이 중생 건지기라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뇌는 정토문(淨土門)이 열리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정토의 본뜻은 오로지 죄악 투성이인 범부를 위한 것이고 겸하여 이승(二乘)과 보살을 위하였다고 하시었다. 이승과 보살은 여기서는 애초의 목적이 아니고 훈수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약점을 가진 우리 같은 범부로서는 다만 나무아미타불을 뇌이고 아미타불에 의지할 뿐이다.

상수불학(常隨佛學)을 앞에서 항상 부처의 학문을 따라서 배운다고 풀이하였다. 그렇다면 부처의 학문이란 어떤 것일까?

부처라는 것이 원래 자기가 스스로 깨치고, 그 다음은 남을 깨치도록 하고, 기르고 나서는 그들이 모여 그 깨친 바를 행동으로써 실천한다. 그리하여 실천하는 행동을 성취한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처의 학문, 불학(佛學)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과학이라는 것, 학문을 하고 실천하고 이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모두 광범위한 불학이다. 그런데 종교의 한 분야로서 불교의 학문, 불교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특정한 것을 가지고 이를 직업의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학도 필요는 하지만 부처님의 뜻으로 보아 사회와 우주의 광범위한 진리를 알고 터득하고 이 진리에 입각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불학일 터이므로 불학이라고 하여 특정한 것을 내세울 것은 없다.

상수불학이라는 이 말은 첫째 내 자신이 공부를 하고 자리행이 된다. 내 자신에게 새로운 행동이 된다.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은 나중일하고 우선 그 공덕이 자기를 중신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혜택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잘 생각해 본다면 자기 방성도 채 안 된 사람이 남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부처의 학문을 따라서 배운다. 옳은 것을 따라서 배운다. 지성스러운 것을 따라서 배우고 이를 성취케 하는 일을 우리는 우러러보고 칭찬한다.

상수불학은 이렇듯 중요한 대목이었다. 우리는 상수불학으로써 모든 중생과 더불어 저 안태한 극락의 지경에 이르러 거시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 일 기 도

축령산 보현사에서는 **'제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선근공덕의 인연으로 무루 동참하여 축령산 천하명당터의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 2017년 3월 22일까지
장소 : 축령산 보현사
문의 : ☎ 031)591-9023 (기도동참자 1인당 1년 10만원)

매월 셋째 토요일 신묘장구 철야기도 후 천도재 봉행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천일기도도량 축령산 보현사
보현선원 진명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23-34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교육원 학 인 모 집



◈ 염불경력 50년 대구팔공산 소리 최종보유자 동현스님!
◈ 사모곡,회심곡,백발가,참회곡,부모은중경(음반취입 632호)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교육대상 : 비구, 비구니스님, 또는 사찰에 항시 상주하시는 스님이 계시지 않아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드리겠습니다.
◈ **초 급 반 : 교육과정** –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초급(일반)수업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초급(속성)수업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초급일반 : 10개월 / 초급속성 : 5개월
◈ **중 급 반 : 교육과정** – 시련.대령관욕, 시왕불공, 시식편, 봉송편, 상가염불 불상점안, 전점안, 안택고사, 방생편
중급(일반)수업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중급(속성)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중급일반 : 15개월 중급속성 : 10개월
◈ **작법 (3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까지**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오공양작법)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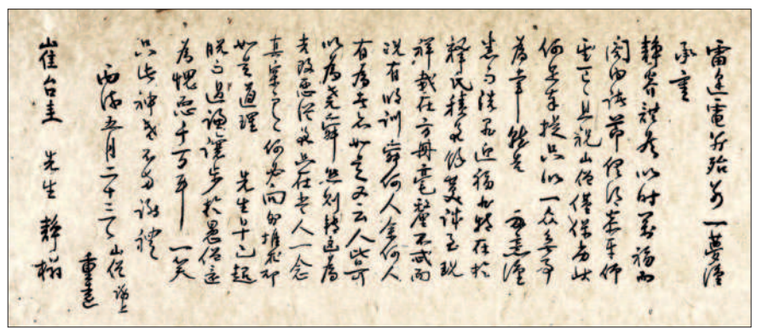
TEL 053)781-4200 / 팩스 053)851-2666 / H·P 010-2547-4200

원장 동현 합장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3〉

“진실한 한마음이 악을 선으로”



최태규 선생에게 보낸 답서

번개처럼 만났다가 번개처럼 이별하게 되니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합니다. 삼가 편지를 받고서 고요하게 요양하는 가운데, 존체가 시절에 따라 만복(萬福)하고, 집안도 두루 평안하시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산승(한암선사)은 겨우 노쇠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릴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산내(山內) 대중들이 무사하니, 그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입니다.

편지에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죄를 씻고 복을 맞아들이는 것은 꼭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善)을 쌓으면 남은 자손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되며, 정성이 지극하면 상서로움이 나타난다는 말은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명훈(明訓, 명확한 가르침. 맹자의 말)에 “순(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다 이와(순임금) 같이 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요순(堯舜)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흉(凶)함을 바꾸어서 길(吉)함으로 만들고 악을 고쳐서 선(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당사자의 한 마음 진실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굳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도리는 선생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시고 또 초탈하셨는데 겸양이 지나치셔서 우승(愚僧, 한암선사 자신을 가리킴)에게 묻고 있는 것뿐입니다. 천만번 부끄러울 뿐입니다. 한번 웃습니다.

이만 줄이오며, 정신이 흐려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병술년(1946년) 5월 23일
산승 중원 올림

한암선사의 이 편지는 강원도 강릉에 사는 최태규(崔台圭) 거사에게 보낸 답서이다. 광복 다음 해인 1946년(丙戌) 5월 23일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보낸 것이다.

최태규 거사가 한암선사께 “어떻게 하면 죄를 씻어 버리고 복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은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선(善)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후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되[積善之家, 必有餘慶]”는 말을 인용하여 선행(善行)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말은 불교에도 있지만, 특히 맹자의 말씀에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다 그와 같이 된다”고 하였고, 또 “사람은 노력하면 모두 요순(堯舜)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복 얻을 수 있는 방법’ 물음의 답
“善을 쌓으면 자손에 경사”
불교 밖에도 있는 가르침”
〈맹자〉의 ‘등문공’ ‘고자’ 등 인용

것과 같이 ”흉(凶)을 길(吉)로 바꾸고 악을 선(善)으로 만드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암선사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명훈은 좋은 명언을 뜻하는데, 여기서 인용한 문장은 모두 《맹자(孟子)》 〈등문공(文公)〉 상편(上篇)과 〈고자(告子)〉 하편(下篇)에 있는 말이다.

편지 첫 구에 “번개처럼 만났다가 번개처럼 이별하게 되니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합니다.”는 대목은 매우 문학적인 표현이다. 한편으로는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법)의 이치를 설하고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지구촌 이웃 돕기 보현행 20년
“자비나눔에 작은 보탬 됐으면…”

국제구호단체 JTS 박지나 대표

“지난 20년을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구호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특별히 자원봉사라 생각해 본적도 없고 내가 일을 한다 안 한다, 누구를 돕는다 안 돕는다 하는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열심히 일 하다보면 일이 커지고 또 일이 있으니 하게 되고 좋은 일이니까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해외 구호를 마치고 돌아오면 주변에서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좋아서 한 일인데 인사까지 들으니 쑥스럽기까지 했죠.”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사장부터 실무자까지 100%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JTS는 지난 20년 동안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면서 자비의 손길을 전해왔다. 1994년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를 시작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교육사업, 긴급구호 등을 펼쳐오면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JTS의 창립부터 현재까지를 함께해온 박지나 대표가 있었다.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던 그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을 만나 1993년 인도JTS 설립 당시 자원활동가로 일했다. 이후 꾸준히 JTS의 해외 활동가로 일하다가 2000년 한국에 정착했고 2002년 JTS 해외사업본부장을 거쳐 2011년도에 JTS 대표로 취임하며 해외사업과 국제구호를 진두지휘해 오고 있다.

뉴욕에서 법륜 스님을 만나다

미국 뉴욕에서 보석관련 기업의 지사장으로 일하던 박지나 대표는 소위 말하는 워크홀릭이었다. 26세에 입사해 새벽 2시에 퇴근하고 6시에 출근했고 주말도 없이 오로지 앞에 놓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3년 만에 지사장 자리에 오르며 고속 승진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싱글 여성 지사사장이 거친 남자 부하직원들을 거느리기가 쉽지 않았기에 늘 강하고 나이든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퍼머에 올림머리를 했고 눈에는 살기를 띠며 일했다.

일하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하던 어느날 간절히 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보았던 기와지붕의 절이 너무나 그리웠다. “어느날 수소문 끝에 뉴욕 맨하탄의 불국사를 찾아갔는데 아파트에 있는 절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기와지붕의 절이 아니라 실망해서 주빗거리고 있는데 한 보살님이 손수건을 깔아주며 거기 앉으라고 했죠. 그렇게 한 보살님과 인연이 되어 계속 절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보살님께서 뉴욕 플러싱 전등사에서 정말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 오는데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좋은 법문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보살님을 운전해 모셔준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어요. 두 시간을 운전해 절에 도착했는데 그때 법문을 하신 분이 바로 법륜 스님이었어요.”

하지만 박 대표는 당시 오랜 미국 생활에 영어가 익숙한 터라 한국말 법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법문 말미에 일주일 후에 ‘깨달음의 장’이 있으니 할 사람들은 신청하라는 얘기가 귀에 꽂혔다. ‘깨달음 그게 뭘까?’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고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1992년 가을 어느날, 박대표는 미국에서 최초로 열린 깨달음의 장을 이수하게 된다. “산 아래 있는 여관 하나를 빌려 17명이 함께 깨달음의 장을 했어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 나중에는 등을 구부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 들었죠. 법륜 스님의 예리한 지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제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뉴욕서 법륜 스님 만나 깨달음의 장 이수
1994년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건립 당시
통역 봉사에서 2011년 대표 취임까지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등 8개 국가서
해외사업과 국제구호 활동 펼쳐
“JTS 내실은 일과 수행의 통일로”

그해 연말 박 대표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 법륜 스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스님께서 뜻밖에 마중을 나오셨고 당시 정토회 홍제 법당에 가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만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인도에 학교를 짓게 되었는데 통역이 필요하다며 같이 가지고 하셨죠. 그렇게 통역으로 인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 지역 둥게스와리

법륜 스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 지역 둥게스와리였다. 그곳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올랐다고 하는 전정각산이 있는데 그 아래에서 200여 명의 마을주민들이 동냥을 하며 사는 열악한 곳이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사람들이 시체를 버리던 마을, 자신들 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과 손을 스치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먹을 것이 없었고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딴 세상의 이야기였다. 일반인은 거의 출입이 없었고 티베트나 스리랑카 등에서 온 순례객들이 오갈 뿐이었다.

법륜 스님은 이 마을에서 숙식하며 주민들과 학교를 지었고 통역을 맡았던 박 대표는 보드가야 호텔에서 출퇴근을 했다. “제가 20년 동안 전 세계의 오지를 많이 다녀봤지만 지금까지도 둥게스와리 만큼 낙후된 곳을 보지 못했어요. 다들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렸고 택시마저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던 곳이죠. 그러니 스님은 당시 마을에서 숙식했던 최초의 외국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짐승의 축사를 수리하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소똥을 발라 스님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스님은 그곳에서 침낭을 깔고 주무시면서 학교를 지었죠. 당시 그곳은 버려진 땅으로 재산의 가치가 없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선행의 기회를 주기 위해 10명의 땅을 보시를 받아 학교를 지었죠.”

보드가야에서 출퇴근했던 박 대표는 통역 이외에 또 다른 일을 시작했다. 바로 마을 주민들에게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목욕시켜 옷을 입혀주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노동자 30여명만 밥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밥을 해놓으면 노동자들이 옆구리, 가랑이 사이로 자식들을 끼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집마다 솥을 가져와 마을 아낙들과 함께 150~200명 분의 밥을 해 같이 먹게 되었죠. 또 한국에서 가지고 간 옷들로 아이들을 목욕 시키고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만큼 마을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려 있었죠.”

학교가 건립 되면 교사가 필요했는데 지역 전체 인구 1만명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한 이가 고작 두 사람이었다. 이 둘을 교사로 채용해 나무 밑에서 수업을 했고 한쪽에서 공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1994년 1월



2003아프간 칸다하르 밀 분배 현장


2009인도네시아 웨스트수마트라 지진 지역의 피해가옥 조사



2014년 1월 수자타아카데미 20주년 기념식

지장보살님께서 대한민국 대구에 무량의 가피를 드리우시다!!

현지사 대구분원은 왜곡된 세계불교를 바로잡고 21세기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는 영남권의 중추적인 정법 도량이며, 불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험한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기도로 아들의 허리디스크가 완치되다

허리가 안 좋은 아들이 작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 통증이 심해 쓰러졌는데 국군통합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허리디스크로 판명이 났습니다. 디스크가 파열되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음 날 오전 10시에 수술 스케줄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제일 먼저 현지사 대구분원에 전화를 드려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를 올리고, 그날 뜬눈으로 밤잠을 새우면서 지장보살님만 찾았습니다. 수술해도 재발해서 완치가 어렵다고 하므로 제발 큰 수술 없이 완쾌해 달라고 ···· 직장에 출근해서도 오전 내내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을 찾았습니다. 점심때 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세한 건 가서 말하겠다며 일단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일이라 그런지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입니다.
····· 얼마 전에 국군통합병원에서 1년만에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와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아들보고 크게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 대구시 수성구 황금 1동 장미라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지장보살본원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품씩 나누어 읽는다)
츰부다라니를 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미륵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654-5557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
7월 6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3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교실 세 칸의 수자타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한 번도 학교라는 것을 가본 적 없었던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를 오지 않았다. "사탕을 주니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나마도 수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두세 살 된 동생을 데리고 오니 수업이 제대로 될리 없죠. 그래서 유치원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수자타아카데미는 2014년 현재 3개 학교에 500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그 규모가 성장했다. 또한 직업교육을 위한 기술학교 설립은 물론 유아들을 위한 17개 유치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지바카 병원도 운영하고 있을 만큼 성장했으며 지금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되었다. "학교가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양민들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천민들과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죠. 우여곡절 끝에 학교 안에서만은 신분제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자신감 있게 태권도, 전통춤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걸 보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지구촌 이웃 돌보기 20년

JTS는 지난 20년 동안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1997년도부터는 대북지원 사업을 실시해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해왔고 2006년부터는 북한 전역 50여개 고아원과 양로원, 장애인 시설을 지원해 왔다. 또한 2004년 룡천역 폭발사고와 2006년~2012년 수해 당시 긴급구호를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 지원은 JTS에서 비중이 높은 사업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식량은 물론 학용품 옷 신발 이불까지 지원을 했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2년 정도 거의 중단된 상태죠. 하지만 현재는 중국 JTS를 통해서 강냉이 국수를 매달 20톤씩 보내고 있고 지난 5월과 6월에는 묘목 10만 그루씩을 보내는 등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JTS는 2003년 위험한 분쟁지역으로 알려진 필리핀 민다나오섬에도 진출했다. 무슬림 지역 마을에 학교를 짓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31개의 학교를 건축했으며 이와 더불어 현지 주민의 문화 보존과 평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JTS는 전 세계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찾아 자비의 손길을 전해왔다. 특히, 2002년~2003년 아프가니스탄의 구호활동은 가장 위험했기에 잊을 수 없는 곳이라고 박 대표는 말한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탈레반들의 총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어두운 새벽에 구호 지역에 도착하면 돈 없는 여행객으로 위장해 여관을 찾아야 할 만큼 위험했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웃음) 하지만 그만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인 만큼 구호활동도 보람이 컸어요. 그때 당시 5명의 아이들을 직접 돌봐준 기억은 지금도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구호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려는 중 사진 속에서 엉덩이가 곪은 아이를 보고 안타까웠던 박 대표는 다음날 그 아이를 찾아 치료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픈 아이는 그 아이 뿐이 아니었다. 눈이 아픈 아이, 허리가 구부러진 아이, 피부병이 걸린 아이 등등 한 아이만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주일 더 머물기로 결정한 박 대표는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각각 그에 맞는 치료를 해주었다. 또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었고 신발도 한 켤레씩 사주었다. 두 달 후 다시 그곳에 도착하니 박 대표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가 있었다. 바로 아파서 걷지도 못하던 아이였다.

"긴급구호를 가서 현장 사람들을 보면 잠이 안 와요. 내가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루 빨리 양식을 주고 싶고 담요를 덮어주고 싶죠. 소명감과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요. 내가 혹은 내 형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일처럼 하게 되죠. 명예와 돈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일은 정말 보람 있죠."



박지나 대표는 … 1961년 부산 출생으로 1979년 미국으로 이민, 1986년도 유닉패키진그룹 매니저로 입사해 1989년 동부지사장으로 발령받아 일해왔다. 1992년 뉴욕에서 깨달음의 장을 이수하며 법륜 스님과 인연을 맺었고 1993년 인도 JTS 설립 당시부터 활동가로 일해왔다. 2000년 한국에 정착해 2002년부터 JTS 해외사업본부장을 역임했고 2011년 JTS 대표로 취임해 국제구호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다보니 20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박 대표. 미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2000년 한국에 정착해 활동가로 살아온 그녀는 이처럼 봉사에서 보람을 찾지만 그것을 봉사라 생각하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저는 다만 그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늘 세상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고민하고 또 세상을 돕기 위해 일하시는 법륜 스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평화에 보탬이 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밥 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은 정말 보람된 일이죠. 저 혼자의 힘은 작지만 법륜 스님과 활동가, 후원자 모두가 같이 하는 일이니 많은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JTS는 수행과 일의 통일이라는 정토회 이념을 적용해 활동가들의 내실을 다지는데에 주력할 생각이다. "JTS는 100% 자원활동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무자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전문가가 부족하죠. 그동안 JTS는 수행적 관점보다는 NGO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일과 수행의 통일이라는 정토회의 이념을 철저히 적용해 활동가들이 수행의 관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베트남 해우소 프로젝트

베트남에서 시골학교에 화장실을 지어주기 위해 마라톤을 뛰었을 때의 일이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라톤 첫날 5시간 만에 체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은주는 영상 38도. 수분이 계속 땀으로 배출되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자 나중에는 눈앞의 길과 나무가 나에게 달려드는 환각에 시달렸다. 손등으로 연신 눈으로 흘러드는 땀을 닦아내며 얼굴을 꼬집거나 뺨을 때렸다.

눈앞에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다가도 베트남 간판만 한글로 바꾸면 1970년대 한적한 한국 농촌과 너무나 많이 닮아서 여기가 베트남이 맞는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달리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폭우 수준이라 반드시 비옷을 걸쳐야했다. 결국 승복을 벗고 마라톤 복으로 갈아입었다. 피부가 옷에 쓸려 아프고 땀띠가 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일행 중 한 사람은 달리는 도중에 넘어져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심해 피가 흘러내렸다.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멈추자는 의견도 있었고 차를 타고 위험한 거리를 지나가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나는 달려야만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니 속이 상한 나는 아무 말도 않고 무조건 걸었다. 불평도 사치일 뿐이었다.

처음 마라톤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다. 스님이 왜 가사를 벗고 저리 속살을 드러내놓고 뛰는지 모르겠다, 마라톤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차라리 절간에 앉아서 수행을 해라 등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말들이 있었다. 나는 다만 사람들이 '왜 스님이 달릴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다.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의 관심을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베트남 시골 학교에 해우소를 지어주겠다고 했을 때 몇 몇 사람들은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베트남이고 해우소냐고 묻는다. 먼저 베트남 파병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조금만 이성적으로 되짚어보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자가 생긴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 구미에는 6천여명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베트남 출신 노동자만 1,200여명이 들어와 3D 업종에 일하고 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불가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는 베트남과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그렇다면 해우소란 어떤 곳인가. 화장실의 불교용어로 근심을 푸는 곳이다. 먼 과거 우리 선조가 입었던 은혜, 베트남 파병으로 받은 전쟁 피해 가족들의 상처, 베트남 노동자와 신부들의 홀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묵은 근심을 풀자는 의미에서 해우소 108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108이란 인간이 갖는 번뇌의 숫자를 나타내기에 불가에선 108배 절을 통해 참회와 발원을 다지는 수행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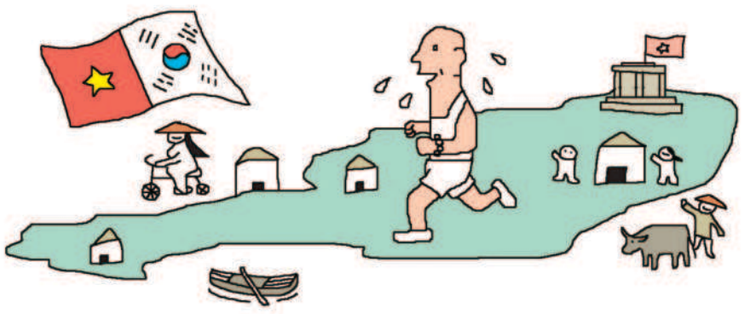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나씩 해우소가 완공 될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말은 안통해도 서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의미를 더했다. 우호증진이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오래간다는 것을 느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나는 여전히 뛴다. 낮 동안 달궈진 땅의 열기가 식지 않아 마치 찜질방에서 달리는 기분이다. 지금까지 총 16군데의 해우소를 신축지원했다. 아직은 한걸음을 내딛은 단계지만 베트남에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져서 우리 후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늘도 나는 달린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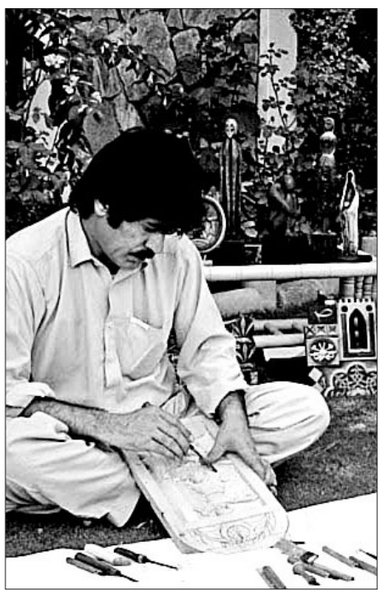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간다라 미술 전통 잇는 목공예 사라질 위기

〈Express Tribune〉 "스왓트 목공예 보존 시급" 보도





나무새김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스왓트 출신의 유명 작가 나사르 쉰(Nasar Sheen · 사진 왼쪽). 그는 "간다라 미술의 전통을 잇고 있는 스왓트 지역의 목공예는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스왓트 지역의 목공예가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정부가 고대 우디야나 왕조의 전통 목공예술을 보존하고 있는 스왓트 지역의 목공예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Express Tribune〉지는 6월 24일(현지시간) "스왓트 지역 목공예술은 고대 우디야나 왕조의 전통 목공예술과 그리스의 석공예술이 융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목공예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 대부분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고대 목공예술의 맥은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왓트 지역의 목공예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공예가 가족의 생계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목공예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목공예가가 늘어나면서 전통 장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스왓트 지역 목공예는 초기 불교미술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로 생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에서 재현되고 있다.〈사진 참조〉 특히 꽃모양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나열한 섬세한 스트로크 문양은 '초기 불교 미술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Express Tribune〉 지는 "스왓트 목공예술은 지중한 문화사적 가치를 담고 있어, 보존에 필요성일 절실하다"는 도리스 메트 스리빈바사(Doris Meth Srinivasan · George Washington Univ.)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가 및 국제 수준의 전시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작가의 작품 세계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는 갖가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press Tribune〉지는 또한 "앞선 지원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면 고대 우디야나 왕조의 목공예술을 배우려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 스왓트 지역 목공예술의 저변 역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이어져 내려온 목공예술의 근원은 간다라미술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스왓트 출신의 유명 목공예가인 나사르 쉰(Nasar Sheen) 작가는 "과거 목공예술은 우리의 전통 문화이자, 또 일상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구, 대문, 기둥, 액자 등을 수놓았던 예술"이라며 "파키스탄 정부가 목공예술의 맥을 잇는 장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왓트 지역 목공예술은 1926년에서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곳을 탐험한 헝가리계 영국인 아우렐 스타인(Sir Aurel Stein) 경은 자신의 저서에서 "스왓트 지역의 목공예는 고대 불교미술의 궤적을 찾을 수 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목공작품 속에서 사원의 모습과 여염집의 모습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영국 고고학자이나 탐험가인 아우렐 스타인(Sir Aurel Stein) 경은 3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를 탐험하며 천불동을 발견하는 등 고대 동서 문화 교류와 교역로 규명에 적잖게 공헌한 학자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원 규모보다 불심 키우는데 주력해야"

허핑턴포스트, 물질 성장에 관심 두는 태국불교에 경고



태국 방콕의 랜드마크 사원인 담마카야(Dhammakaya) 사원

'태국 불교계가 물질적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듯하다. 〈Huffington Post〉지는 태국 방콕의 랜드마크 사원인 담마카야(Dhammakaya)를 오랫동안 연구한 레이첼 스콧(Rachelle Scott) 박사의 말을 인용, "태국불교계는 사원의 규모에 상응한 불심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레이첼 스콧 박사는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종교와 윤리(Religion & Ethic)〉의 최근 기고문에서 "태국불교는 지금 물질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이는 자칫 태국불교를 연구하는 서양 학자에게 '영적 굶주림에 떨고 있는 대중'과 '자본주의 성전에 억류된 불교'라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레이첼 스콧 박사가 주목한 사원은 바로 '방콕의 랜드마크인 담마카야 사원으로, 현재 1만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사원 규모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한 〈Huffington Post〉지는 "이는 태국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서양 불자가 태국 불교의 외형적 성장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태국 내에서도 태국불교에 쏠리는 '호불호'의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NOB, 배불 승려 고발 '핫라인' 개설

"일반 대중과 승려 도박, 과소비 등 막을 것"



태국 국립불교사무소는 승려의 이탈을 감시 ·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선인 '핫라인'을 개설했다.

태국불교계가 자성의 깃발을 세웠다. 〈The Guardian〉지는 "태국불교계 스스로 승려의 이탈을 감시 ·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선인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태국불교계가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한 배경에는, 도박이나 약물 등에 빠져든 승려의 모습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불교계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번 핫라인 개설을 주도한 국립불교사무소(National Office of Buddhism, 이하 'NOB') 측은 "태국 인구의 95%가 불교에 의지하고 있다는 데 승가는 주목해야 한다"며 "핫라인 개설이 승가 내 반대 여론으로 어려운 과정을 밟았지만, 그 효과만큼은 대중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 내에는 NOB 추산 24만여 명의 스님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제한 〈The Guardian〉지는 "지금까지 태국의 일부 스님들의 재산 축적, 약물 복용, 도박 중독, 과소비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우려와 비판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핫라인을 개설한 NOB이 대중들의 우려와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서래사, '음악·예술 축제' 대중 눈길 잡아

북미 최대사찰로 개원 25주년 맞아 기념행사 열어



북미에서 가장 큰 사찰인 서래사는 개원 25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와 전시, 공연 등을 선보이며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사찰로 알려진 서래사를 찾는 발길이 올 한 해 부쩍 늘어나고 있다.

〈Topix〉지는 "캘리포니아 하시엔다 하이츠(Hacienda Heights)에 세워진 서래사가 개원 25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와 전시, 공연 등을 선보이면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며 "6월 30일까지도 '음악과 예술 축제(Music and Art Festival)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불교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며, 사찰은 이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서래사 주지 후이 동(Hui Dong) 스님은 "최근 진행한 '음악과 예술 축제' 역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장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Topix〉 지에 따르면 '음악과 예술 축제'에는 12개 이상의 밴드와 다양한 아티스트 등이 참여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래사 25주년 기념행사를 기획 · 진행하고 있는 마리오 씨(Mario Cee) 조직위원은 "서래사의 이번 '음악과 예술 축제'에는 1990년대 이후 포스트 펑크 록, 인디 포크 팝, 집시 등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았다"고 전했다.

〈Topix〉 지에 따르면 이밖에도 실크로드 불상에 모티브를 둔 유화로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낸시 코워딘(Nancy Cowardin)의 작품도 전시, 판매됐고, 수채화가 조이 즈항(Joy Zhang), 팝아트스트 카렌 즈하오(Karen Zhao), 영화감동 에밀리 첸(Emily Chen), 판화가 크리스 리베라(Chris Rivera) 등도 이번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또한 〈Topix〉 지는 "낸시 코워딘 작가는 이번 진시 · 판매 수익금 전부를 캘리포니아 암환자 후원 기금으로 내놓아, 서래사 25주년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고 덧붙였다.

서래사는 1988년 캘리포니아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에 대만 불광산사의 분원으로 출발했다. 당시 20여만 평 규모에 중국 전통 양식의 대웅보전, 박물관, 국제회의장 등이 건축되어, 캘리포니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서래사의 불사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만 불광산사 신도들의 보시금만으로 세워진 게 알려지면서 서구사회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전통 축제 '웨이 상 페스티벌' 중국 쓰촨성 아바장족창족자치주 훙위안에서 6월 18일(현지시간) 티베트 전통 축제인 '웨이 상 페스티벌(wei sang festival)'이 열렸다. 티베트인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공중에 '롱다(longda)'를 뿌리고 있다. '롱다'는 기도 문구가 적힌 종이 조각을 뜻한다. 매년 5월 혹은 6월 열리는 이 축제 때 티베트인들은 사이프러스 나뭇가지를 태우고 더 나은 삶과 풍년, 건강,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문을 뿌린다.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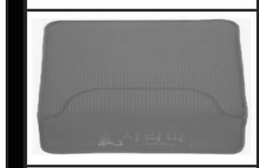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백용성 조사 탄신 150주년 · 봉암 대희 대선사 성도 75주년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호국영령 천도대재와 국가 안녕 경제부강 기원 대법회

일시 : 2014년 6월 5일 10시 / 장소 : 가야산 해인사 용탑선원 / 주최 : 봉암문도회 / 주관 : 천도대재 봉행위원회



봉암문도회가 주최하고 봉행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백용성조사 강탄 150주년 및 봉암당 대희 대선사 성도 75주년을 맞이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산 용탑선원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희생자 및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제와 국태민안 기원 대법회가 6월 5일 봉행되었다. 기원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법전(해인사 방장)스님을 비롯하여 대각교단 총재 가산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스님, 세계불교 법륜종 종정 보산스님, 대한불교 총남종 종정 남산스님, 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화산스님, 호국불교 조계종 종정 혜산스님, 용화교단교령 미산스님, 우리불교 조계종 종정 홍산스님,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대산스님, 해동불교 화엄종 종정 엄산스님, 봉암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되었다. 세월호 희생자 천도재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호국영령 천도대재와 국가 안녕 경제부강 기원 대법회

봉행된 이날 기원 대법회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의 집전으로 대령관욕과 천도 다례재 봉행하고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보산 대종사의 개회사와 대한불교총남종 종정 남산 대종사의 고불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화산 대종사의 봉행사와 용탑선원 선원장 중천 대선사의 환영사에 이어 범어사 흥교 대율사의 용성조사 행장 소개가 이어졌다. 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산 대종사의 추도사와 용화교단 교령 미산 대종사의 추모사,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홍산 대종사의 기원사에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이시며 해인사 방장이신 법전 대선사의 법어가 이어졌다. 법전 대선사의 법어에 이어 대각교단 총재 가산 장로의 제문헌운,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대산 대종사의 공지사항, 해동불교화엄종 종정 엄산 대종사의 폐회사를 끝으로 대법회가 성료되었다.



龍城 祖師

석가여래부촉법 75세 조선불교중흥율 5세 가야산해인사강맥 조사

탄생일 : 1864년 음 5월 8일
성도일 : 1886년 음 8월 29일 (23세)
독립운동 : 1919년 양 3월 1일 (56세)
열반일 : 1940년 음 2월 24일 (77세)

용성조사 悟道頌
(응화세존 2913년 8월 29일)
洛東波萬里 낙동파만리
金烏月千秋 금오월천추
漁舟何處去 어주하처거
依舊宿蘆花 의구숙로화

용성조사 專法頌
山頭石矗矗 산두석촉촉
岩下水澄澄 암하수징징
讀書又睡眠 독서우수면
花枝鳥聲亂 화지조성난

용성조사 涅槃頌
(응화세존 2967년 2월 24시)
諸行無常 제행무상
萬法俱寂 만법구적
匏花穿箬 포화천리
閑臥麻田 한와마전

용성조사께서 말씀하시길
개새끼에게 불성이 없다 하니 조주가 망령되이 분별함이로다. 동정호 봄 물 푸르르니 앉고 나름은 흰 갈매기에 맡기노라. 용성조사께서 자신의 초상화를 보시고 다시 말씀 하시기를 내가 너냐? 네가 나냐? 초당에 봄날이 따사로우니 백화 꽃이 만발하게 피었구나.

法語 :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해인사 방장) 법전 대선사

"일화개오엽(一化開五葉)이요, 조종지육엽(祖宗之六葉)"이라는 게송처럼 근대의 용성조사는 해동의 달마요, 삼한의 육조이신지라 문손이 번성하여 처처의 욱일 되어 원근상하를 밝힘이로다.

해인사 동쪽의 극락전 축발지는 광효사 예발탑에 비견되고 가야산 서쪽에 남긴 치사리탑은 불치사 보궁을 방불케 하며 박물관 인근의 대선사 행적비는 하늘을 이고서 땅을 떠받치며 수미산처럼 우뚝하시도다.

지리산 화과원은 선농일치의 보청도량으로 만세의 귀감이며 종로 대각선원은 참선대중화의 당간을 내걸며 재가대중을 개안토록 하셨고 고려대장경의 목판장식 보수와 그 후의 미타회 창립은 외호의 전범을 보이심이라 결제 때는 금강산 표훈사의 무봉선사께 받은 무자 화두를 참구하시고 산철에는 육조단경과 전등록 열람으로 자리를 하면서도 여가에 선문촬요의 편지과 의역은 중생을 향한 이타심이라 조계의 정맥인 환성지안선사의 열반 135년 후 용성스님으로 환생하시고 그로부터 일백년에 또 반백년을 더하여 경사스런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사부대중과 호법선산들이 용약하고 제불제조께서 환희 하시도다.

가야명가고청구(伽倻名價高靑丘)하니 명심도사기왕래(明心道師機往來)런가? 가야산의 명성은 청구(한국)에서 높으니 선지식들의 왕래하심이 그 얼마이던가?

원하오니 당신께서 자찬(自撰)하신 이 무학도송(無學道頌)을 친히 읊조리면서 다시 가야산으로 나투시어 어리석은 후학들을 제접(提接)하소서.

祭文獻韻 :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장로

아문자애 아자녀야 고도벽해 포외기심 기갈기한 원천무궁 兒們自愛 我子女耶 高濤碧海 怖畏機甚 飢渴機寒 怨天無窮

"아가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아 짙푸른 바다 높은 물결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느냐 얼마나 춥고 배고팠고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하늘이 원망스러움이 끝이 없구나!

백년지상 가생백년 부모지심 유여혐의 (百年之上 加生百年 父母之心 猶如嫌矣)
백년지중 미만이십 자자녀수 하기단야 (百年之中 未滿二十 慈子女壽 何基短耶)
백년 위에 백년을 더 산다고 해도 이 부모의 마음 싫다 않으리오 만은 백년가운데 이십년도 채우지 못한 사랑하는 아들딸의 목숨이 어찌 이리도 짧단 말인가?

아고아고 단간부모 만루건곤 누불누보 불능전시 (我苦我苦 斷肝父母 漫淚乾坤 淚佛淚菩 不能前視)
내가 내가 아프고 괴로워, 부모의 간장이 끊어지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부처도 울고 보살도 울어 앞을 볼 수가 없구나.

니문부모 기운기의 애민애국 용성봉암 양대조사 녕불애재 (你們父母 旣云己宜 愛民愛國 龍城鳳菴 兩大祖師 寧不哀哉)
너희들 부모는 마땅히 그러 하거니와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시던 영성봉암 두분조사가 차라리 애달파 하지 않겠느냐.

연이 아문자애 아자녀야 안심불외 양대조사 자비무량 (然以 兒們慈愛 我子女耶 安心不畏 兩大祖師 慈悲無量)
인로극락 금차산승 양대조사 의지법력 초탈삼계 척하극락 (引路極樂 今此山僧 兩大祖師 依止法力 超脫三界 擲下極樂)
그러나, 아가들아 사랑하는 아들딸아 안심하고 두려워말아라.
두분 조사께서는 자비가 무량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리니 지금 이제 산승이 두분 조사님의 법력에 의지하여 삼계를 뛰어넘어 극락으로 보내노니 제위열위 열명영가여! 환견마! 환문마! 회득마! 악!(諸位列位 烈名靈駕여! 還見麽! 還聞麽! 會得麽! 愕!)
제위열위 열명영가여!
보았는가! 들었는가! 알았는가! 악!



봉암당 대희개사 수법상좌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장로



사단법인 산지약용식물협회(회장 백성기)로 부터 산양산삼 330만주를 기증받아 300뿌리를 해인사 선원과 강원 수좌스님들에게 공양하고 200뿌리는 참가하신 스님들께 공양하였으며 해인사 신도회장이었던 봉암 대선사의 마을상좌 고 장재학 거사가 소장하시던 조계종 초대 종정 하동산 대종사가 선술하고 3.1독립운동 33인중 한분이시며 당대 명필이신 오세창 선생이 제목을 쓰신 용성조사 법어록 등 많은 희귀본의 불교서적을 봉암 대선사의 은.법.강.율.이은 상좌 석가산스님이 기증 받았다.

鳳庵 祖師

기미 11.3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용성조사의 은.법.강.율을 이어받아
석가여래부촉법 76세 조선불교중흥율 6세 가야산해인사 강맥 2세

봉암 조사 悟道頌
(응화세존 2966년 5월 8일)
眞如法界 진여법계
自他不二 자타불이
萬法一如 만법일여
何勞是非 하로시비

봉암 조사 專法頌
釋迦本無法 석가본무법
迦葉何曾傳 가섭하증전
山登君爲峯 산등군위봉
庵前翠竹重 암전취죽중

봉암 조사 涅槃頌
(응화북전 3002년 1월 3일)
釋迦本無法 석가본무법
我亦無所得 아역무소득
還地本面目 환지본면목
雲水自去來 운수자거래

탄생일 : 1909년 음 10월 1일
광주학생운동 : 1929년 양 11월 3일
성도일 : 1939년 음 5월 8일
열반일 : 1975년 음 1월 3일 (67세)



열반, 궁극의 행복을 찾아서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7월 1일~8월 24일

열반은 단순히 '지금 이 삶의 끝' 이 죽음이 아니라 더 높은 나를 위한 '완전한 행복' 에 있음을 의미한다. 육신을 벗고 '궁극의 행복' 을 찾아가는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은 '열반과 사리신앙' 을 주제로 2014년 특별전 '열반, 궁극의 행복' 전이 7월 1~ 8월 24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난문화재로 삼성문화재단에서 회수해온 현등사 사리 △'사라진 1500년 전 사리의 비밀' 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보물 제176호) △'인간이 만든 가장 신비한 주문' 무구정광다라니경 진본과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제126호) △우리나라 최초 불상복장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제사리호(국보 제233호)를 비롯해 국보 4건, 보물 17건 등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 171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현등사 사리는 2005년 불교계 환수 이후 일반인들에게 최초 공개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현등사 사리는 1991년 당시 삼성의 호암박물관 소장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도록에 소개되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도난 유물임이 밝혀져 소송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불교계가 반환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2005년 여론에 힘입어 불교계에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중앙박물관은 "사리는 성물로 여겨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 공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따라서 전시 오픈일인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운식을 봉행한 후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부처님 열반의 의미 △사리를 담는 그릇, 사리장엄구 △불상과 불화에 모셔진 사리 △사리신앙의 다양한 변화 △스님의 열반, 승사리장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사리장엄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사리장엄구는 미감과 안정성을 고려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든 신앙의 결정체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불교금속공예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도 유리, 금, 은, 동과 같은 용기들을 여러 겹 겹쳐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식이다. 이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 부처님의 보관(寶棺)이 금, 은, 동, 철의 4중관이었다고 하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은 "불교에서 부처님 열반은 무척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교미술 초기부터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부처님 열반의 의미와 그 모습들을 되새기고, 이후 사리신앙의 성행으로 이어진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현등사 사리 장엄구

'열반과 사리신앙' 주제로
171건 문화재 한자리에
현등사 사리 이운식도


불교중앙박물관은 '열반과 사리신앙' 을 주제로 2014년 특별전 '열반, 궁극의 행복' 전을 7월 1~ 8월 24일 연다. 사진은 왕흥사지 사리기

3003 나한도에 대중의 행복 발원

적산 스님 大아라한전
인사 갤러리 미술세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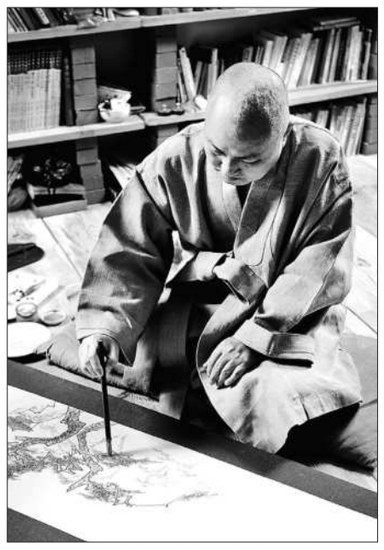
"다양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북한산 노적사 계곡 옆 소나무 아래서 수행정진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극락세계 도솔천 길목에 이르러 아라한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꿈인가 생시인가하며 깨어나니 이미 제 손에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친견한 수많은 아라한을 모두 화폭에 담기까지는 무아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반복하며 10년이 필요했습니다."

적산 스님의 작가 노트 中에서

삼천삼 아라한을 선보이는 적산 스님의 '3003위 大' 아라한' 전이 7월 16일~29일 인사 갤러리 미술세계 전관에서 열린다. 1999년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개인전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전시로 스님은 중생교화에 힘쓴 '시선존자' , 지옥고의 중생을 구제한 '근계 존자' 등 3003 아라한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스님은 10년전, 북한산 노적사 계곡 옆 소나무 아래서 수행정진 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본 아라한을 그림에 담아냈다고. "1999년에 10년 동안 작업한 첫 전시를 잘 마쳤지만 제가 진정 그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선에 들어갔는데 수행 도중에 아라한의 세계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하는 아라한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원을 세웠습니다."

서예와 산수풍경을 그려왔던 스님은 전통 회화 기법의 선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인물화를 그려냈다. 수많은 경계를 만났지만 그림을 그리며 이를 극복해 냈고 10년 만에 3003 아라한을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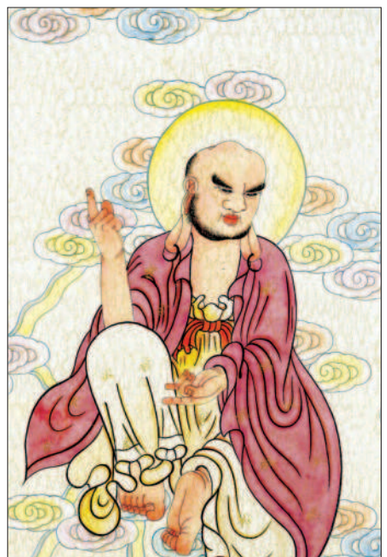

적산 스님은 지난 10년간 고양시 토굴에서 작업에 매진해왔다.

전통 회화 기법 10년 수행 결정체
다양한 표정의 아라한 완성
7월 16일~29일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주변 정리를 잘하고 정갈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 작업에 임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장애가 오니까요. 지난해에는 막바지 작업을 앞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작업에 매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었죠. 생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그림을 포기할 뻔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3003점의 그림을 완성해 이렇게 전시를 열게 되어 너무 뿌듯할 따름입니다."

10여 년 고행 끝에 탄생한 아라한 연작은 오랜 수행의 과정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아라한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수행 끝에 얻어지는 불교적 세계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시대 속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각 개인의 구원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물인 삼천 아라한을 통해 이 땅의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심의 힘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각기 다른 외모를 하고 있는 3003 아라한의 모습 속에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음에 분명하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 순간 순간을 아라한의 표정 하나하나에 담아낸 그림 속에는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스님의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지옥고의 중생을 구제하는 '근계존자'


중생 교화에 힘쓰는 '시선존자'

경기도 고양시 토굴에서 꾸준히 작업해 온 스님은 앞으로 불교 포교에 매진하는 저술 활동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10년의 작업을 마친 지금은 무념무상의 상태인 거 같습니다. 어떤 욕망도 번뇌도 머물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마무리 정진을 위해 마음공부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대중서도 만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02)2278-838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경기북부음악예술제… 7월 5일

경기북부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0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 가 7월 5일 오후 5시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북부 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4월 25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연기되었다가 이번 7월 5일에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식전공연으로 청련사 안정불교대 영산재와 고양 신한류예술단의 아카펠라 '원더풀' 등이 무대에 오른다. 1부 법요식에 이어 제2부 행복나눔 음악예술제(연합합창단공연)에서는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원효대사 일대기' 가 연주된다. (031)969-0108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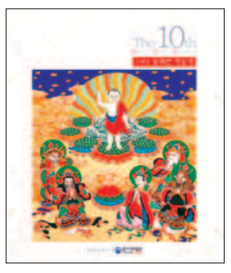

지난해 경기북부음악예술제 공연 장면

10회 맞은 통도사 불화반 전시

영산회상도 등 수강생 작품 전시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반(회장 신윤희)이 7월 2일~27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10회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경희의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38명 수강생의 후불탱화, 탄생도, 백의관음, 42수 관음 지장보살, 인로왕보살, 신중탱, 팔금강, 동진보살, 칠성탱, 독성, 산신, 용왕, 비천, 쌍용, 6곡 연단 등이 선보인다.

또한 청원 스님의 '석가모니불' , 불화강사 조해종의 '영산회상도' 오기웅의 '수월관음도' 이승규의 '지장탱화 석가모니불' 권영수의 '석가모니불(홍탱)' 문경옥의 석가 삼존도가 전시된다.



불화반 수업은 매주 수요일 연구반, 목요일 기초반이 진행되며 강사 조해종(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강사)선생의 지도로 수업이 진행된다. (055)384-0020

정혜숙 기자





문화人

‘순정소년’ K-Pop으로 청소년 포교 나서고 싶어요

아이티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



아이티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고자 불자 아이돌 그룹 순정소년을 창단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젊은 불교 만들고 싶다는 발원으로 아이돌 그룹 창단

8월, 상설 무대서 찬불가 공연도

“방송사 연말 시상식장에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학생들의 꿈 1순위가 연예인이라는데 만약 연예인이 되려는 청소년들이 저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일부러 교회에 가려 하지 않을까 정말 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불자 아이돌을 키워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싶다는 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티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44)가 불자 아이돌 그룹 순정소년을 창단한 이유다. 현재 15명의 멤버로 구성된 순정소년은 올 하반기 정규 앨범을 발매 공중파 데뷔를 앞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대표는 순정소년이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청소년 중에 한 반에 불자가 5명이 될까말까 한다고 해요. 그나마도 친구들에게 낡은 종교, 구식 종교 왜 믿냐는 핀잔을 듣게 되어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까지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데 이렇게 인식되고 있나 답답했죠. 그래서 불자 아이돌 그룹을 통해 불교를 알리고 젊은 불자를 양성하고 싶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순정소년은 얼마전 박 대표가 작사 작곡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는 싱글 앨범 ‘모두 함께’를 내놓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순정소년의 공식적인 데뷔 전에 싱글 앨범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멤버들과 팽목항을 찾아가 봉사도 하고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도 했습니다. 지난 5월20일 조계사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의 추모공연 무대에서 ‘모두 함께’를 불러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모두를 위로하기 위한 곡인만큼 이 앨범의 음원 수익금은 아름다운 동행에 전액 기부할 생각입니다.”

매일 조계사에 들러 절 기도를 한다는 박 대표. 20대에 가수의 꿈을 꾸다가 5억원을 사기 당하고 부유했던 집안의 몰락으로 방황했던 그는 상경해 지인의 도움으로 신사동에 작은 분식점을 열었다. 고향 부산에서 100평짜리 집에 살았지만 서울에서는 고작 한 평짜리 고시원에 살며 하루에 12시간씩 떡볶이를 뒤집으며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러던 중 탱화불사 소식을 듣고 낙산사를 방문해 천 배의 절을 올렸고 그 이후 자주 낙산사와 홍련암을 오가며 천배 삼천배 등의 기도를 해나갔다. 또한 서울로 돌아와서는 매일 절 기도를 했고 틈이 날 때면 언제 어디서든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했다.

“명동 한 복판에서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하고 쳐다볼 정도였죠. 이런 기도의 가피였는지 집안의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었고 분식점 규모도 키울 수 있었죠. 급기야는 제가 소원하던 명동에도 진출할 수 있었어요. 명동에 케이팝 공연을 하는 한정식집을 오픈했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많아 꽤 많은 수익이 났고 그 자금으로 이렇게 기획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올 하반기 순정소년의 정식 데뷔를 앞둔 박 대표의 행보는 분주하다. 15명의 멤버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8월 일본 진출과 국내의 상설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케이팝 상설공연에서는 찬불가도 한 두곡 정도 부른다고 하니 불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좌석의 20%는 불자 청소년들과 소외이웃들이 무료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불교를 알리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매진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5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불자아이돌 그룹 순정소년



조계종의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에서 ‘모두 함께’를 불렀다.

만월 같은 그 모습 친히 뵙고 싶어라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㉗ 낙산사 (上)





낙산사의 신앙적 중심공간인 원통보전과 칠층석탑

관음신앙의 중심 도량

금강산과 설악산의 절경을 곁에 두고 일망무제의 푸른 동해에 접해 있는 낙산사(洛山寺)는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중심 도량이다. 신라 때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기도하여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절을 창건했고 원효대사도 이곳에 와서 관음보살을 친견했으며 범일국사 또한 정취보살을 친견하여 절을 더욱 확장 했다고 전한다. 낙산사의 이름 역시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보타락가산에서 온 적이다.

승경(勝景)으로서의 낙산사를 말할 때는 일출과 월출을 감상하는 풍류를 빼 놓을 수 없다. 낙락장송으로 둘러싸인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사랑한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다. 이식(李植 1584~1647)이 “안견의 수묵화와 임억령의 시, 천년 가람은 두 사람의 시화로 기이해 졌네”라고 표현한 것처럼 낙산사는 신앙의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이름을 얻어온 것이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동국이상국집〉 제25권에 낙산사 관음보살상의 복장(腹藏)을 보수한 데 따른 글을 남기고 있다. 이 글에서 낙산사의 풍경과 관음보살상에 대한 고려시대 사람들의 신앙심을 읽을 수 있다.

“동해 가 낙산 위에 한 승지(勝地)가 있는데 청정하여 티끌 한 점 없으니, 수월(水月 물속에 비친 달)의 청수한 실상이 이곳에 의탁하였다. 아, 저 완악한 오랑캐는 무지막심하도다. 그들이 횡행하며 노략질할 적에 심지어 절의 불상까지도 훼손을 입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우리 대성(大聖)의 존구(尊軀)도 또한 그러하여 비록 형체는 겨우 보존되었으나 복중(腹中)의 진장(珍藏)은 모두 수탈당하거나 흩어져서 텅 비었다.

지인(至人)의 경계는 본래 영허(盈虛)·소식(消息)의 이치가 없는데, 금강(金剛)의 진체(眞體)에 어찌 훼멸이 있겠는가? 그러나 범부(凡夫)의 보는 바에 있어서는 어찌 상심이 되지 않으랴? 하물며 제자(弟子)로서는 경앙하는 마음이 전부터 간절하였었는데, 이제 복중의 진장이 분산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남보다 배나 가슴 아프게 여기고 동시에 용감히 보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전일의 소장된 것을 참작하여 삼가 심원경(心圓鏡) 2개와 오향(五香)·오약(五藥)·색사(色絲)·금낭(錦囊)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어 복중을 채워서 완전히 복구하여 예전 것과 손색이 없게 하였으니, 바라던 바에 무슨 문제될 게 있겠는가.”

이 같은 설명에 이어 이규보는 복장을 새로 조성한 공덕을 찬(贊)하는 시를 붙였다.

구경불훼(究竟不毁)
금강진신(金剛眞身)
외지상설(外之像設)
성훼유인(成毁由人)
인비일류(人非一類)
혹경혹모(或敬或侮)
피모이잔(彼侮而殘)
아경이보(我敬而補)
여월사결(如月斯缺)
미기부전(未幾復全)
범백사여(凡百士女)
일심귀처(一心歸處)

마침내 헐어버리지 못할 것은
금강의 진신이다.
그 밖의 상설이야
이루고 허는 일 사람이 하거늘
사람이 똑같지 않을진대
공경하거나 업신여기나니
저들은 업신여겨 손상하고
나는 공경하여 보수하네.
저 이지러진 달과 같아
얼마 안 가서 다시 둥글었다.
모든 사녀(士女)들은
일심으로 돌아가 공경하라.

형상으로서의 관음보살은 진신이 아니다. 그저 형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 형상을 보고 진신을 염원하는 신앙의 자리에서는 형상 또한 형상 이상의 의미를 얻는다. 이규보는 이 기문을 최충헌의 아들 최우를 대신해 지은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 당시 상당한 권력자였던 최우가 불사에 관여했다는 뜻일 게다. 그렇다면 오랑캐는 관음보살상을 허물고 ‘나’는 공경하여 보수한다는 구절의 ‘나’는 최우일 가능성이 크다.

꽃을 물고 온 파랑새

고려 때의 문신 유자량(庾資諒, 1150~1229)이 지은 시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에 ‘낙산사’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전한다. 유자량은 독실한 불자였다. 그가 병마사로 양양에 와서 낙산사 관음굴 앞에서 분향하고 배례를 하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꽃을 물고 날아 와 갓 위에 떨어뜨리자 크게 감격하여 이 시를 지었다고 전한다. 원효대사도 낙산사에서 파랑새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파랑새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것이다.

해애고절처(海崖高絕處)
중유낙가봉(中有洛迦峰)
대성주무주(大聖住無住)
보문봉불봉(普門封不封)
명주비아욕(明珠非我欲)
청조시인봉(靑鳥是人逢)
단원홍파상(但願洪波上)
친첨만월객(親瞻滿月客)

바닷가 벼랑 높은 곳에
그 가운데에 낙가봉이 있네.
대성은 머물러도 머무는 것이 아니요
보문은 봉해도 봉한 것 아니네.
명주는 내가 바라는 바 아니지만
청조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네.
단지 원하노니 큰 파도 위에서
만월 같은 모습 친히 뵈었으면.

유자량은 시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싶은 불심을 아주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흠모하는 마음과 유위의 세상에 드러나는 관세음보살의 방편을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 것이 시적 긴장감을 준다. 대성과 보문은 관세음보살을 말하는 것이고 명주와 청조 역시 관음보살의 중생구제 방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지막 구절 ‘만월 같은 모습 친히 뵈었으면’이라는 원력은 모든 중생들이 갖는 소망일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6번째 저서 출간!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 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8 ~ 6/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곽철환	불광출판사
5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일운	담앤북
6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7	명상선물	현빈	이층버스
8	불교에서 본 우주	강승환	운주사
9	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심경	송찬우	비움과소통
10	니까야와 아비담마의 철학과 그 전개	와타나베 후미마로	동국대학교



신비·환상 걷어낸 석굴암의 '원형' 찾기

석굴암, 법정에 서다

성낙주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2만3천원



국보(24호)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토함산 석굴암.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인 751년(통일신라 경덕왕 10)에 조성된 석굴암〈사진〉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신비스러운 이야기들과 놀라운 과학 등으로 인식되어온 소중한 유산이다.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있어왔다. 특히 일제의 개축공사와 1964년 문화재관리국의 복원공사를 거치면서 '원형'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책은 저자인 성낙주 석굴암미학연구소장이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요 쟁점들을 총 정리한 것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원형논쟁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이 환상과 신비주의로 포장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석굴암의 입장권에는 동해의 아침 햇살이 석굴암 본존불 이마의 백호(보석)에 반사되어 온 누리에 반사된다는 신화가 담겨 있다. 수십 년 동안 중등과정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물론, TV다큐멘터리 방영 등으로 인해 20세기의 한국인 치고 이 낭만적이고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신라인은 동짓날 동해의 아침 햇살을 석굴 내로 수렴해 본존불의 백호에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석굴암을 지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빌려 신라인의 예지를 칭송했고,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으로 삼아왔다. 일명 '햇살 신화'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저항하기 어려운 절대담론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석굴암은 그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지난 1964년 7월 1일 문화재관리국의 복원공사 때 전실에 목조전각을 덮어씌웠기 때문이다. 복원공사는 곧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그 역사적 정당성과 성과가 부정당하게 되고 원형 논쟁이 시작된다.

'햇살 신화'는 석굴암 원형 논쟁의 주요 논점 중 하나이다. 햇살 신화가 석굴암의 원형이라면 지금의 목조전각은 걷어내야 옳을 일이다. 또한 햇살 신화론을 원형으로 받아들으면 논쟁의 하나인 석굴암의 '개방구조설'까지 원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책은 전각을 걷어냈을 때 발생할 현상들에 대해 지적한다. 석굴암은 해발 575미터의 심산유곡에 있다. 철따라 눈비가 퍼붓고, 산짐승과 날짐승에다 파충류와 양서류와 갑충류 등이 우글거린다. 뿐만 아니라 바다가 지척에 있어 일 년 열두 달 염도 높은 바다안개에 수시로 휩싸인다. 석굴암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햇살 신화와 목조전각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라고 말한다. 즉 신라인들이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그렇게 지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책은 햇살 신화와 개방구조설이 토함산의 현실을 놓친 신비주의적 사고의 분비물은 아닌지 묻는다.

책은 원형 논쟁의 주요 논점인 햇살 신화를 비롯한 개방구조설, 광창설, 홍예석 일제 악의설, 석조신전설, 비도 대문설, 샘물 위 축조설, 전실 절곡설 등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제1부 햇살 신화'에서는 '햇살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포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책은 민족의 신화처럼 부상해 있는



원형 논쟁의 쟁점들 오류 지적
"오류의 뿌리는 환상과 신비주의"
'햇살신화', '샘물 위 축조' 등
1990년부터 제기한 쟁점 총정리
'햇살…' 주변환경 고려 안한 오류
'샘물…' 반과학적 사고로 인한 오류

석굴암의 아침 햇살 이야기를 일제의 태양신앙이 투영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달콤한 문화식민사관의 하나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개방구조설과 광창설 등의 가설 역시 진의가 어디에 있든 일본식민사관에 봉사는 결과라고 덧붙이며, 일본의 햇살 진화에서 파생된 '광창설'과 '홍예석 철거론', 석굴암이 석굴사원이 아닌 그리스나 로마에서 유행한 대리석 신전과 비슷한 '일반 건축물'이라 주장하는 '중각석굴설'도 함께 살펴본다.

'제2부 석굴암의 20세기'에서는 구한말의 석굴암의 실상에서 총독부의 개축공사의 명암을 살펴보고, 석굴암 원형논쟁의 씨앗인 1960년대의 문화재관리국 복원공사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다. 이와 함께 석굴암 논쟁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개방구조설'과 우리나라 학계의 '철거지상주의', 잊음 만하면 등장하는 '석굴암 위기론'의 배경을 살펴본다.

'제3부 석굴암, 역사의 법정에 서다'에서는 그동안 과학 전공 연구자들이 제출한 석굴암 담론들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광 속의 옷장론', '샘물 위 축조설' 등 과학을 배반하는 논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토함산의 기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1960년대 복원공사 때 세운 전각의 당위성과 실재 고서에서 발견되는 전각 실재의 증거들을 살펴본다.

석굴암은 단순히 불교문명의 산물이 아니다. 동서양의 경계를 뛰어넘은 건축, 토목, 조각, 수리학 등의 위대한 실험들이 응집된 문화유산이다. 여기에 신라인의 예술적 영감이 더해져 절대 조화의 경지에 이른 것이 석굴암이다. 저자는 석굴암의 창건주 김대성이 자신의 깨우침을 석굴암이라는 조형언어로 구조화시켰듯이, 오늘날 석굴암 연구 역시 "과학자의 눈길로 응시하고, 시인의 상상력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환상이나 신비주의의 눈으로 석굴암을 바라본다면, 소모적인 논쟁에 묶여 우리의 석굴암 연구가 '근대'에 머문다면, 고대 동서양문명의 꽃이자 예술혼의 절정인 석굴암은 이내 우리 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13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석굴암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신화와 환상을 걷어낸 석굴암의 맨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편하게? 꼼꼼하게 읽는 시 읽기



느티나무 비명

유재영 지음
동학사 펴냄
1만2천원

"붓자국도 희미한 밀서(密書) 같은 길을 가다 / 눈부신 기척 있어 되돌아본 그 자리에 / 한지 빛 하늘을 이고 번져 오는 묵매(墨梅) 향기-어느 날의 진경산수"

시인 유재영이 〈절반의 고요(2009)〉 이후 5년 만에 시조 스물세 편으로 한 권의 시집을 냈다. 수 천 권의 책을 디자인하고 수백 권의 시집을 디자인한 한국 1세대 북 디자이너이기도 한 그는 이 번 시조집에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시조 한 수 한 수를 독립 페이지로 편집함으로써 '천천히 읽는 시집'을 만들고자 했다. 시조 한 편을 쓰는데 며칠 몇 달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독자들은 길어야 2,3분만에 읽고 작품을 평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새로운 시 읽기를 디자인으로 극복해보고자 했다.

이 시조집은 다소 불편한 시 읽기를 통하여 독자들이 '후루룩 읽는 시집'에서 '생각하며 꼼꼼하게 읽는 시 읽기'를 제안한다.

과작 시인으로 알려진 유재영 시인은 "함축과 절제가 생명인 시조는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에게 더 없이 가혹했으며, 앞으로 절필하는 심정으로 시조를 쓰겠다."고 '시인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이번 시조집에서 '유재영 시를 읽는 9가지 방법'을 쓴 문학평론가 장석주는 그의 시를 가리켜 "지존의 당당함, 한 치의 타협도 없다. 한 점의 더러움도 없다."고 평했다.

박재완 기자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길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

부복정 글 | 손윤영 그림 | 참글어린이 펴냄
9천5백원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옥야경〉의 가르침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다시 해석해 주는 책이다.

선주와 선호의 할머니는 어느 날 선호네 집에 왔다가 옛 친구를 만난다. 추자 할머니이다. 추자 할머니의 아들이 허리를 다쳐 병석에 눕자 며느리는 집을 나가고 추자 할머니는 식당일을 해가며 아들과 손자들을 돌보며 살아간다.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집에 돌아오려 하자 추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때 선호 할머니가 친구의 며느리에게 〈옥야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다. 부처님 시절 급고독 장자의 며느리 '옥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다.

누구나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친절한 미소로 웃어 주기 같은 것들이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기, 양보하기 같은 것들이 그렇다. 내가 먼저 베풀거나 양보를 했는데 상대방이 되갚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계산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옥야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여인, 특히 아내 혹은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전이다.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부복정 작가는 〈옥야경〉에서 올바른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만을 꺼내 오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진 한 가정의 일화를 통해 남자 역시 그와 똑같이 아내를 공경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마찬가지로 형제나 남매끼리도 상대가 내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가 먼저 상대에게 베풀고 양보한다면 너와 나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부처님이 걸어간, 그 길에서…

불의 설법

이승하 지음 | 서정시학 펴냄 | 9천원



이승하 시인의 신작 시집이다.

제1부는 부처님의 생애를 소재로 한 시편이고, 제2부는 〈삼국유사〉 소재 설화 14수와 〈화랑세기〉에 나오는 향가 1수를 재해석한 시편 및 원효에 관한 시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집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와 부처님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한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시편의 결집이다.

이 시집의 전작에 해당되는 시집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시편이 결국 '길, 구도의 여행'에 관한 것이었듯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번 시편 역시 50년의 구도적 여정에 관한 것이다. 이번 시집의 주요 관심은 인간, 드라마틱한 갈등 양상, 그리고 구도와 고통스런 여정이라는 것, 즉, 인생에 대한 알레고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부처님에게서, 향가에서, 시인은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시집에 묶인 시편일 것이다.

이승하 시인의 이번 시집은 인도의 불교 유적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혜초가 지나갔던 길을 따라 여행한 뒤에 쓴 것이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쿠시나가라 까지 50년에 걸쳐서 한 이동의 경로를 따라가는 동안, 시인은 저 먼 시간의 간격을 넘어 부처님의 존재를 그 길 위에서 더 가깝게 느꼈을 것이다.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한 인간이 역설적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고투했던 길을, 시인이 되어 되밟아 감으로써 '구도, 드라마틱한 인생'은 그 자체가 초월이 아닌 '지상의 종교'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박재완 기자

동해의 아침 햇살은
석굴암 본존불의 백호를 비추지 않았다!

혼신을 다한 20여 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석굴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1,300년 동안 한민족과 함께해온 국보 제24호 석굴암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낙주 지음
408쪽
23,000원

만약 석굴암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면,
석굴암은 머지않아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이다

- 동해의 아침 햇살이 석굴암 본존불 백호를 비추게 한다
- 석굴암 돔 지붕 앞에 빛이 들어오는 창을 뚫는다
- 석굴암 바닥으로 샘물을 흐르게 해 법당 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석굴암 바닥 아래에 샘물이 흐르게 한다
- 석굴암은 본래 전면이 뚫린 개방구조였으므로 입구의 전각을 제거한다

석굴암, 법정에 서다
신화와 환상에 가려진 석굴암의 맨얼굴을 찾아서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는 그릇

201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송나라 개보대장경으로 시작해 초조대장경 그리고 재조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교정이야기, 대각국사의 교장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 대장경에 담긴 고려인의 정신세계 등 동아시아 지식의 보고 고려대장경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속에 가려진 오해와 진실을 말한다.



오윤희 지음 | 400쪽 | 20,000원

원더박스

2013년 중앙일보 올해의 책 후보도서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는 다채로운 사랑,
19세기 영국에서 찾아낸 일의 본질,
고대 일본에서 배우는 여행의 기술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을 낯선 역사 속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로먼 크르즈나릭 지음 | 강혜정 옮김
528쪽 | 20,000원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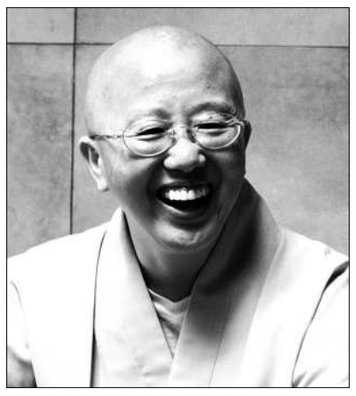
미술관에 간 붓다
명법 스님 지음
나무를 심는 사람들 펴냄
1만 7천원

〈미술관에 간 붓다〉는 수행자이자 미학자인 명법 스님이〈반가사유상〉이나〈서산 마애삼존불〉처럼 누구나 한번쯤 접해 본 불교예술을 통해 미학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현대불교신문에 2013년에 연재한 내용을 묶은 것이다. 지금까지 서양 미학적 관점서 예술 작품을 분석한 것이 주류였다면, 이 책에서는 배트맨과 사천왕의 공통점서 로댕의〈생각하는 사람〉과 〈반가사유상〉의 차이까지 새로 해석한 불교예술과 미학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저자는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불교와 기독교, 동양과 서양, 회화나 조각은 물론 영화 예술까지 전 장르를 넘나들며 불교예술의 사상적, 문화적,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고담시의 수호자 배트맨과 불교를 지키는 호위무사 사천왕. 이들은 악으로부터 선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힘을 사용한다는 점과 완전한 이타적 희생을 통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저자는 설명한다.〈반가사유상〉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비슷한 자세와 유사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이 가지는 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말한다.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두 눈을 반쯤 감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반가사유상〉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고뇌의 표정도 없고 뒤틀린 자세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양 회화서 자주 등장하는 〈죽음의 무도〉도 죽음을 해골로 의인화해 느닷없이 나타난다. 죄 많은 자들은 겁에 질려 끌려가고 고관대작이나 성직자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며 버티지만 죽음은 끝내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불교에서는 전쟁서 이름 없이 죽어갔거나 이승을 떠나고도 선뜻 생을 내려놓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수륙재를 열어 그들을 다음 생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도한다. 이때 장엄하게 제단을 차리고 대형 걸개그림을 내거는데, 이 그림을〈감로도〉라고 한다. 이 세계에서 죽음은 징벌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의 하나일 뿐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들을 대비해 보여 줌으로써 불교미학의 핵심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 책이 지닌 강점이다. 저자는 불교예술 작품의 사상적이고 미학적인 근거는 모두 붓다와 그가 깨달은 법에 있다고 설명한다. 배트맨과 사천왕의 ‘분노와 두려움’이 미학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영웅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희생으로 타인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길 자처했기 때문이다.〈반가사유상〉의 몸은 인체의 사실적인 표현은 없지만 단순한 곡선만으로 모든 사유가 끊어진 적멸의 고요함을 보여 준다. 〈감로도〉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며, 어느 날 불현 듯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죽음과 함께 있는 것이 삶의 진실임을 보여 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미지와 실제, 가상과 진상이 교차되는 이야기들을 예술작품에 녹아든 상상력을 통해 설명한다. 저자는 종교예술 작품들은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한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에게 지금껏 사랑받아 온 것이라고 강조한다. 호랑이 뼈로 호랑이를 만든 마술사가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인도의 전설과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는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 이야기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진짜라고 믿지 않으면 예술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예술가의 의식세계를 보여 준다. 가짜 현실이 진짜 현실을 지배하는 일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진다. 옛사람들은 불상을 돌에 새겨진 이미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인 힘을 가진 영험한 존재로 생각했다.


불교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말하는 명법 스님

불교예술 통해 새로 읽는 미학 산책
이미지 범람 시대 ‘선적관조’ 제시
150컷 자료사진 이해 쉽게해 줘

저자는 현대인들 역시 대중음악,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컴퓨터 게임 등 또 다른 이미지로 가상과 진상의 경계를 뒤섞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 더욱 현란한 이미지들로 감각의 황폐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지적대로 자신이 만든 환영에 먹혀 버린 자는 인도의 마술사가 아니라 현대인들 자신이다.

그렇다면 망가진 감각을 복원하고, 가상과 진상을 넘어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사물을 소유와 무관하게 바라보는 불교의 ‘선적인 관조’와 서양 미학에서 일컫는 사적 이익과 무관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감성적인 경험, 즉 ‘무관심적 관조’ 사이의 유사성이다. 관조는 자신을 잊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떠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가능하다. 사물을 소유와 무관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와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아사세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연히 자신을 죽이려 했던 부왕의 비밀을 알게 된 왕자 아사세는 원한에 가득 차서 아버지 빔비사라 왕을 죽이고 어머니 위제희 부인을 유폐시킨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는 모든 것을 다 아는 현명한 왕이었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는 못했다. 오이디푸스의 자기 인식은 비극의 출발점이고, 아사세의 자기 인식은 더 많은 증오와 복수,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저자는 피폐해진 감각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각을 없애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궁전에 유폐된 위제희 부인에게 붓다가 16가지 수행법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바로 저무는 해를 관상하는 ‘일몰관’이다. 빛은 우주 만물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현상적인 차별을 드러낸다.

책 곳곳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고려 불화의 정수를 보여 주는〈수월관음도〉, 우리 민족의 따뜻한 심성과 해학적인 기질이 돋보이는 운문사 작압전 석조사천왕상, 조선 3대 화가 중 하나인 의겸이 그린 〈선암사서부도전감로도〉, 동아시아 정신세계가 도달한 최고의 단계인 일격의 모습을 보여 주는 나한상 등 풍부한 시각적 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홍상현 사진작가는 저자가 세밀하게 설명하는 부분까지 150여 컷에 달하는 사진에 담아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태종 중흥조 원묘 요세 백련결사 지평 열어



원묘 요세의 백련결사 연구
최동순 지음
정우서적 펴냄
1만5천원

고려 중기 원묘 요세에 의해 결성된 백련결사는 한국 천태종의 사상적 신앙적 시원을 마련해 준다. 그간 보조 지눌의 수선사 결사 연구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원묘 요세의 백련결사를 연구하는 이 책은 한국불교 연구사에 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원묘 요세의 사상적 경향은 백련결사서 볼 수 있듯이 종교성과 민중성을 추구한다. 한 때 지눌의 수선사에 참여 했지만 예경과 참회, 준제주 지송의 행법을 통해 근기가 수승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도 불법을 닦는 법을 일러준다. 일반 민중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가르쳤던 신라 원효의 사상과 그 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비문에 의하면 원묘 요세 스님은 원효의 증성가를 노래하며, “법계에 있는 몸의 모양은 알기 어렵다. 적막하여 함도 없고 하지 않음도 없다. 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을 따르기만 해도 반드시 그 나라에 왕생하리라.”라고 설명한다.

원묘 요세에 대한 자료는 비문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현장을 답사하며 이 책의 논문들을 완성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사적을 탐방하는 데로 그치지 않고 원묘 요세의 사상적 근원을 천태 지자와 사명 지례에서 확인하고 논증하고 있다.

이 책은 요세의 생애, 요세의 천태사상, 요세 사상의 배경, 백련사 행법과 그 연원, 천태종 사자상승과 요세, 요세 연구의 문제점, 원묘 요세의 비명 역주 등 7장으로 이뤄졌다. 책의 구성과 각 항의 제목만 일별해도 이 책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 한국사상사의 한 편을 점유하고 있는 법화 천태사상과 한국불교의 예참의 근원, 준제행법의 변천과정 등을 밝혀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이 책의 연구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적지 않다. 원묘의 생애를 탐방해 나가며 완성한 글들이므로 그 면밀성과 구체성이 잘 드러나는데, 남원과 강진지역의 백련결사를 밝혀내기도 했다.

또한 원묘 요세가 ‘서참회’로 불리게 된 데 대해 그간 ‘선가의 폄훼’라는 그간의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 설명해 주고, 그간 요세 관련 연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드러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서양 집착을 놓는 순간은 삶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강신주 지음 | 동녘 펴냄 | 1만 9500원



〈무문관〉은 1228년에 나온 가장 압축적인 화두 모음집으로, 무문 혜개가 48개의 화두를 선별해 해설을 덧붙인 선불교의 대표적인 교과서격이다. ‘무문관’(無門關)이란 제목은 바로 문이 없는 관문(The Gateless Gate)이라는 의미다. 제목부터가 고난도 화두다. 문이 없는 관문이라니, 그렇다면 이 관문은 과연 문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문이 아닐까? 〈무문관〉에 실린 48개의 화두가 문이 없는 48개의 관문이다.

화두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면, 이는 상식을 넘어서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지점이 바로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로 인문학 관련 저술과 특강을 통해 유명해진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선불교의 핵심 정신이다.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은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는 것, 오직 나이기에 살아 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화두란 상식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역설로 보이지만,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풀리는 문제다. 그리고 자기만의 삶에 이른 그 사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즉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 화두란 다시 말해 부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찾아야 하기에 문이 없는 관문, 즉 무문관인 셈이다.

어떤 권위에도 억압받지 않는 자유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인문학의 가장 강력한 힘임을 갈파해 온 저자이기에 어쩌면 〈무문관〉과의 만남이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지도 모른다.

불교는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 즉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긍정하는 사유체계다. 절에서 만난 스님과 불제자들 사이에 주로 하는 인사중 하나가 바로 “성불하세요.”이다. 이는 부처가 되라는 인사다. 부처님과 스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 부처가 되라는 것이다.

싯다르타의 마지막 사자후마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것이 아니었던가. 내가 주인이 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부처님마저 “마른 똥 막대기”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한다는 선불교의 정신만큼 인간의 자유와 힘을 긍정하는 사유가 있을까. 저자는 무문관을 뚫어 내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주인공의 삶을 사느냐고 말이다. 절벽에서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존해 절벽에 매달려 있을 것인지, 그 계단과 사다리를 걷어차고 스스로 설 것인지를 말이다.

저자는 나아가 무문관의 48개의 관문에서 어떤 외적 권위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와 함께 자신만 주인공의 삶을 살아 내는 것이 아니라 타자 역시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돕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인문학의 강력한 정신을 발견한다. 바로 선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롭게 만들고 타인도 이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불교의 이상향은 모든 사람이 주인공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세계, 즉 들판에 핀 다양한 꽃들처럼 자기만의 향과 색깔로 살아가는 세계, 바로 화엄세계다. 때문에 자기만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깨달음을 돕는 것은 깨달은 자에게도 남겨지는 책임이 된다. 그렇기에 백척간두(百尺竿頭), 즉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힘들게 오른 자도 그 한 발을 떼야 한다고 말하는 선불교의 절절한 외침은 타자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에 다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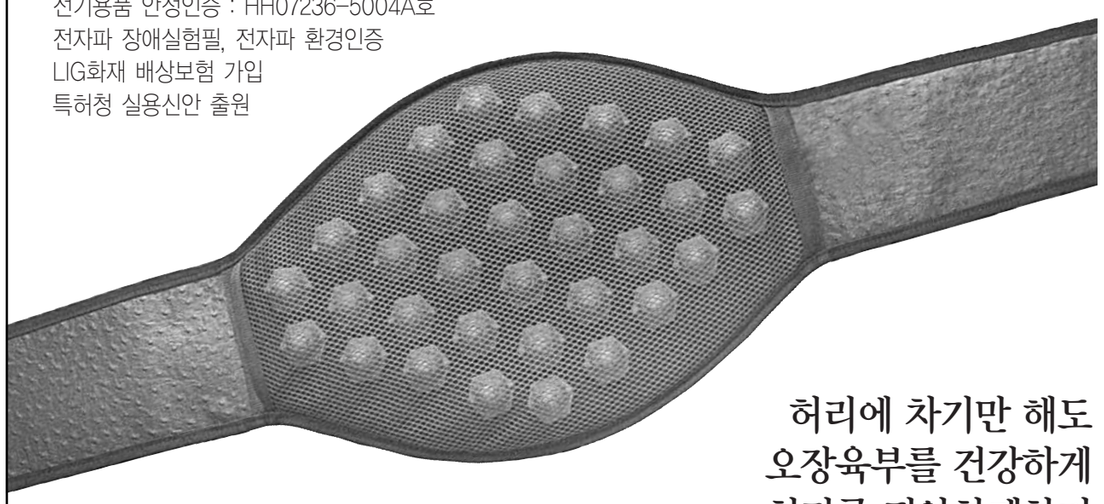
화두 48개 선별한 ‘무문관’
서양 철학과 맛깔나게 버무려

저자는 〈무문관〉의 48개의 화두를 두고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는 이야기”라고 표현한다. 화두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역설로 보이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역설이 아니라 자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의 성장이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방향으로 성장, 일반인에서 부처가 되는 방향으로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당혹스러운 48개의 난제들을 통과하며 저자는 우리의 성장을 독려하고 독촉한다.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었지만 슬프게도 힘과 자유를 갖지는 못한, 그래서 진정한 어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싸워 힘과 자유를 얻어내 단 한 번이라도 어른이 되어 살아보자고 말이다.

그래서인지 선불교에서 자유와 사랑의 정신을 읽어 내는 것뿐 아니라 선불교의 강력한 인문정신을 지금 여기의 독자들에게 더 깊숙이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이 책의 곳곳에 묻어난다. 동서양 철학을 종횡무진하며 인간의 힘과 자유를 긍정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선불교의 인문정신을 길어 올린다.

김주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중용의 핵심 中·和… 불성·바라밀행의 다른 이름

불교로 읽는 古典

동양학의 요체 〈중용中庸〉



문광 스님
탄허기념박물관 연구실장

붓다는 중도(中道)를 깨쳤다고 했고, 공자는 중용(中庸)이 모든 성인들의 전수심법임을 밝혔다. 불교의 중도와 유교의 중용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중(中)' 이라는 이 한 글자에 동아시아학의 모든 비밀이 숨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안(正眼)을 통해 양자를 비교해 보는 것은 융합과 콜라보레이션 운운하는 현대의 지식인이라면 한 번쯤은 거쳐보아야 할 통과의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퇴계와 함께 조선유학의 최고봉을 점했던 율곡은 유학 전체의 핵심을 요약한 그의 저술 〈성학집요〉의 서두를 다름 아닌 〈중용〉 제1장으로 장식하고 있다. 즉 유교의 핵심사상을 중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자가 군자와 소인을 중용(中庸)과 반중용(反中庸)이라는 키워드로 매우 심플하게 구분했던 것에 그 근거가 있을 것이다.

동양학은 주역과 중용에 그 요체가 담겨있다는 뜻의 '역용지학(易庸之學)' 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곤 한다. 주역이 점을 치는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군자(君子)' 는 이러해야 한다는 말이 늘 따라붙는데 군자의 핵심은 바로 중용을 어떻게 체득하고 세상에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중국 북경 자금성 중화전(中和殿)의 용상위에는 청나라 건륭제의 친필 '윤집궐중(允執厥中)' 이라는 편액이 지금껏 남아있어 이를 선명하게 반증해 주고 있다.

〈중용〉은 〈예기〉의 한 편에 불과했던 것인데 주자(朱子)가 〈대학〉과 함께 따로 떼어내어 〈논어〉·〈맹자〉와 함께 사서(四書)로 만든 이래로 유교의 핵심 경전이 되었다. 이미 당나라 때부터 중시되었던 것이 남송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유교의 대표경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성리학의 정립에 큰 역할을 했던 정이천(程伊川)은 '중(中)' 에 대해서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여 과불급이 없는 것의 이름' 이라 주석했다. 하지만 '중(中)' 에 대해서는 정이천의 주석을 보기에 앞서 다음의 경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희노애락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 이라 하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 라고 한다. '중(中)' 은 천하의 대본(大本)이요, '화(和)' 는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중(中)' 과 '화(和)' 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생육될 것이다.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중용 제1장)

그렇다. 유교에서 말하는 '중(中)' 의 본래적 의미는 희노애락의 미발(未發)이다. 즉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불생(一心不生)과 다르지 않다. 주자가 당송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로 넘어간 헤게모니를 다시금 유교로 되찾아 오려했을 때 마음의 수련 문제에 있어서 불교의 심신수련에 대응하여 유교에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의 〈중용〉제1장 구절이었다. 이 감정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의 문제는 불교의 핵심인 마음수행에 대한 유교식의 담론이며 성리학의 기획에서 골자가 되는 것이었다.

주자는 나이 40이 되기 전에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미발과 마음이 일어났을 때 절도에 맞게 조절하는 이발의 문제에 골몰했다. 즉 중(中)과 화(和)가 불혹이전 주자의 주된 화두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미발의 중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중화구설(中和舊說)이라는 것이며, 이후에 문제를 발견하고 미발의 중과 이발의 화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요지의 중화신설(中和新說)을 입론하기에 이른다. 나이 마흔이 되면서 마음의 미발과 이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정립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유교 경전에 대한 전면적인 주석이 봇물같이 쏟아져 나왔던 것을 보면 주자학적 체계 역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미발의 중이 바둑판의 천원(天元)과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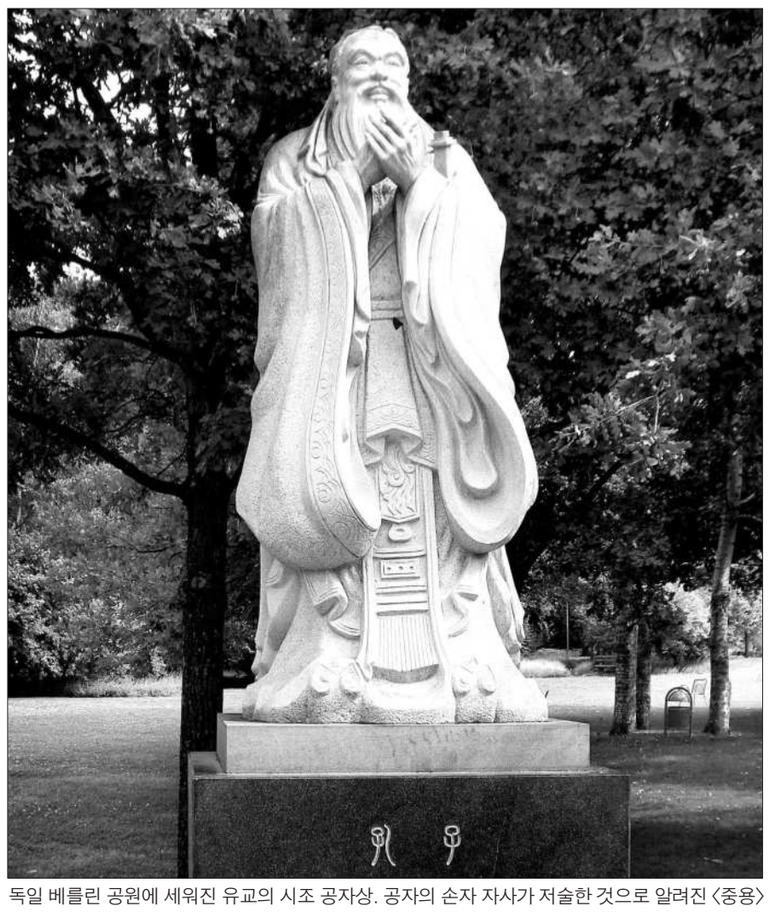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은 주자가 불교의 선(禪)과 화엄에 대해서 대대(待對)의 타자의식을 철저히 담지한 유학자로서 고뇌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바로 성리학이었음을 간과하고 그의 결론만을 취하기에 이른다. 성리학의 미발이발론(未發已發論)과 중화설(中和說)에 관련된 많은 담론들은 불교수행론의 자극을 받은 신유학의 반작용이자 불교의 대체물이었다.

조선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명대(明代)에 이르러 유교를 성리학과 다른 체계인 양명학(陽明學)이 발흥했다. 중국에서의 주자학과 양명학은 동일한 유교의 범주에서 논의되며 양자 모두 한족의 전통에 속한다. 대조적으로 조선에서는 주자학만이 정통이며 양명학은 이단으로 치부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는 중국과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했다.

주자학이 발흥한 중국의 남송은 한족이 남하한 수치의 시대였고 이를 이은 원(元)은 몽고 오랑캐가 건국한 왕조였다. 정통 지식인인 한족은 몽고 치정하에서 최하의 신분으로 내몰렸고 대거 드라마작가가 되기도 했다.

원나라 희곡인 원곡(元曲)은 한족 중심의 왕조에서는 사대부로서 유교를 가르치고 경전을 주해할 만한 인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새로운 문화행위였다. 원나라를 청산하고 다시 한족의 왕조 명나라가 건국하며 탄생한 양명학은 비록 주자학과 성격이 달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중화문명이요, 한족의 사상이며, 유학의 한 학파였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다. 조선은 불교국가였던 고려를 유교로 뒤바꾼 왕조였기 때문에 불교를 용인하는 것은 국체를 흔드는 일이었으며 양명학을 허락하는 것은 자칫 선불교로 회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일이었다. 이런 까닭에 중국에서는 동일한 유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조선 땅에서는 함께 병존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조선 성리학적 입장에서 주자학은 불교를 극복한 사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중국 신유학의 입장에서 주자학은 선불교의 심학(心學)을 유교의 언어와 코드로 재탄생시켜서 중국인에 맞게 다시 디자인하여 불교를 회통한 그 무엇이었다.



독일 베를린 공원에 세워진 유교의 시조 공자상. 공자의 손자 자사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중용〉은 유교를 비롯한 동양학의 요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희로애락을 미발(未發)하는 개념은 불교가 말하는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학의 요체 담아낸 '중용'
희노애락 未發하는 것이 '中'
已發해 절도에 맞는 것이 '和'
불교 '一心不生' 과 같은 의미
"마음수행의 유교식 담론" 평가

이런 연유로 조선에서는 〈중용〉을 불교적 시각으로 해석하거나 유교와 불교를 회통하여 해설하는 방식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중국의 명나라 때의 4대 선지식이었던 감산덕청(憨山德淸, 1546~1623)과 우익지욱(藕益智旭, 1599~1655) 같은 고승은 〈중용직지〉라는 동일한 제목의 저술을 통해 자유롭게 유교와 불교를 넘나들며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이 두 선지식은 모두 출가이전 양명학의 학풍을 경험했고 유불융합 내지 유불회통의 사상을 전개했다.

감산은 〈중용〉 텍스트 전체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미발의 중과 마음이 일어난 이후의 절제와 조절인 이발의 화로 요약했다. 이는 주자가 〈중용〉 후반부의 주제를 '성(誠)' 으로 본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며 결국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근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우익은 유교와 불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유교 〈중용〉의 미발지중(未發之中)은 불교의 삼매에 비교해 볼 때 그 깊이가 얕은 것으로 보아 제6식의 독두의식(獨頭意識) 정도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즉,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중용〉의 미발은 불교수행에서 제7식인 말라식과 제8식인 아뢰야식의 미세한 번뇌는 쉬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깊은 마음수행을 위해서는 불교의 수행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유교의 미발수행도 넓은 의미에서는 방편을 열어 실상을 드러내는 개권현실(開權顯實)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용가능하고 병존가능한 인류의 소중한 가르침임을 천명했다.

근현대 한국의 고승 가운데 성철 선사(1912~1993)는 중국의 감산과 우익에 비해서 보다 엄격하여 유불융합적인 견해에 매섭게 반대했다. 유교의 미발의 중 정도로는 여전히 망상경계를 벗어지 못한 것이라 단언한다. 꿈을 꾸면서도 화두가 들리는 몽중일여의 경지나 숙면 시에도 화두가 들리는 숙면일여의 깊은 무심(無心)의 경지에 비교해 볼 때 유교의 희노애락의 미발은 여전히 미세망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경지임을 선언하여 불교의 수행에 비해서 유교의 마음수행은 한참 모자란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반해서 유불선 삼교회통으로 유명했던 탄허 선사(1913~1973)는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 두 마음이 없다(天下無二道 聖人無兩心)' 고 하면서 유교·도교·불교 삼교의 근본이 다르지 않음을 역설했다.

삼교성인의 경지는 동일하여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경지, 우주의 시공간이 끊어진 경지,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경지는 모두 다른 용어의 같은 경지에 불과함을 천명했다. 이는 노자가 말한 '천하모(天下母)' , 주역에서 말한 '적연부동(寂然不動)' , 화엄에서 말한 '최청정법계(最淸淨法界)' , 선불교에서 말한 '부모미생전소식(父母未生前消息)' 과 '제일구(第一句)' 와 같은 의미로 이는 모두 '성(性)자리' 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멸진정의 깊은 삼매도 결국 '미발'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이보다 얕은 삼매도 역시 '미발' 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불교가 유교보다 마음수련의 방법과 체계가 자세하고 섬세하여 많은 중생들에게 수행의 길을 고구정녕하게 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유교의 〈중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견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다.

탄허 선사는 소동파의 동생인 소자유(蘇子由)가 〈중용〉의 미발지중(未發之中)과 이발지화(已發之和)에 대해서 "중(中)은 불성(佛性)의 이명(異名)이요, 화(和)는 육도만행(六度萬行)의 총목(總目)" 이라고 주석한 것을 극찬하였고 자주 인용했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미발은 곧 인간의 근본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은 유교와 불교가 결국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진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에 찬 언명이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이 근본자리인 중(中)에 대해서 붓다는 49년을 설하고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는 "일자불설(一字不說)" 을 역설했고, 공자는 "나는 말하지 않으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予欲無言, 天何言哉)" 고 하였으니 두 성인의 도가 근본에서 있어서는 불이(不二)임이 분명하다고 탄허 스님은 가르쳤다.

이처럼 유교의 대표경전인 〈중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선승들의 견해를 비교해보자면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인간의 근본 심성(心性)자리에 있어서는 유교나 불교, 도교나 기독교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근본자리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며 어떤 언명과 언설로도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탄허 스님은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과 성령(聖靈)마저도 말과 생각이 끊어지고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다름 아닌 성(性)자리요,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태극(太極)이요 각(覺)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극력 강조했다.

다름을 주장하긴 쉽다. 그러나 근본이 같다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다. 21세기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반목과 투쟁이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모든 지구상의 존재자들이 고대하는 시대이다. 인간의 근본 심성인 한 마음 일어나지 않은 자리는 불교의 무심(無心)과 유교의 미발(未發)이 결코 상이하지 않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무애(無碍)를 자득한 불자라 할 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는 세계인의 마음의 평화에 그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고 하겠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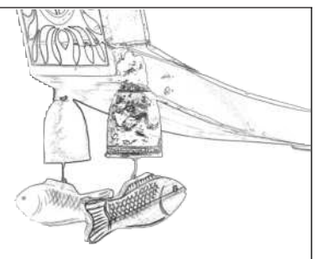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연잎에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
송곳 끝에 겨자씨가 머물이 못하듯 욕망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그를 아라한(최상의 도를 성취한 사람)이라 한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양평)
031)773-7746
010-8777-17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주역을 배워 대도를
펼칠분 1인
(수행경력 5년이상인
젊은 분, 남녀불문)
소승은 노비구로 장애가
있어 도를 펴지 못했음
(대가없음)
010-3221-0839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양주)
031)529-2855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명리학(사주철학) 지도
(1)명리학+성명학
(2)완전기초부터 자격증
합격까지 완벽한 지도
(3)주1~2회, 3~4개월 완성
(4)경력34년, 병제철학원장
(5)사주,작명,개명,택일,모든상담
010-3695-1626
서울 9호선 가양역 10번 3분거리

디자인 결혼정보
초혼, 재혼
처음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결혼,사랑행복,사랑미래
결혼은 인생의 디자인입니다
010-5230-3671
02)816-3671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보국문로 195
반야도 합장

인연 찾습니다
조건 최상으로 학교와
종단 괌, 등록 인수하실 분
미국령 GUAM사이버대학교
미국령 종단
2007년 등록 현재 라이센스
010-8774-2040
인터넷 070-8844-2030

양 도 공 고
학교 & 종단
미국령. 현지법인
조건. 양도&동업
2007년 등록
010-8774-204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 용암사)
010-9350-3216

기도의 대가 대주스님
?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전통 선묵화(禪墨畵)연구원
(마음 닦는 그림, 선묵화를 통해서 참나를 찾고자 하시는 분)
(연구회원 모집)
자격요건
1. 서예, 사군자, 문인화 중 1년 이상 공부 하신 분
2. 선(명상) 공부 1년 이상 하신 분으로 그림에 관심 있는 분
3. 초보자는 면담후 결정
지 도 월 2회 1년
1. 1회. 선강의, 명상체험 , 선묵화 지도
2. 1회. 통신 선묵화 지도
지도 법사 범주 스님 지도
(홈페이지: http://www.dalma-art.com)
속리산 선(禪)문화 예술원 054)535-037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달마일장금(경) 강의 (공양/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 4일 (1일 8시간) 총 24시간 강의
• 강사 : 유천명리학당 원장직강 011-838-1134
•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 장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540-5번지 3층 유천명리학당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1시) (오후 2시-6시)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안 손으로 짚어 1분 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월요일 오후 2시 ~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백중 천도재
▶ 입재 : 7월 1일(음. 6. 5, 화), 조계종 대종사 성파큰스님
▶ 초재 : 7월 9일(음. 6. 13, 수), 쌍계사 방장 고산큰스님
▶ 2재 : 7월 14일(음. 6. 18, 월), 조계종 대종사 성우큰스님
▶ 3재 : 7월 19일(음. 6. 23, 토), 조계종 대종사 불심 도문큰스님
▶ 4재 : 7월 25일(음. 6. 29, 금), 조계종 대종사 현해큰스님
▶ 5재 : 7월 30일(음. 7. 4, 수), 봉선사 조실 월운큰스님
▶ 6재 : 8월 7일(음. 7. 12, 목), 조계종 대종사 암도큰스님
▶ 막재 : 8월 10일(음. 7. 15, 일),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밀허스님
※ 백중 천도재 동참하신 분께는 회주 無一 우학스님의 금강경 CD와 천도 법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 053-474-8228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화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화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몸은 청정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청정하고,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 처님의 법이다."

- 중음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자금자족 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 :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법당 50평, 요사채, 산신각, 다실, 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전 문
연 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공주시 토굴 양도
- 요사채 신축 거의 완공 90㎡
- 토지1600㎡.바위와계곡이흐름
- 심산유곡으로 조용하고기도처임
- 양도금액 : 1억 2천원(조정가능)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0-3426-9393(사찰경매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40평, 대지총면적 45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725-590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4억9천
- 위치 : 대전
- 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3억3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부근
- 135평, 임법당, 건물3동, 삼존불
- 신중단, 지장단, 칠성단, 영가단
- 도로에서 200미터 심야전기 보일러, 화목난로
- 가액 : 4천 5백만원

010-4146-65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010-2772-72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81번지
- 뉴서울쇼핑 2층 총 80평
- 가액 : 5,500만원, 월 40만원

010-8552-39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225-0012
02)403-3333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 IC 바로 앞
- 암자 적임지
- 1천평 평당 10만원

011-9323-86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 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시 북구 (일곡지구)
- 30년 넘은 사찰로 최고 위치
- 최상급 법당 내부 (약 50평) 최상급 요사 내부 (약 50평)
- 방 3, 거실, 실내화장실 2, 실외 화장실 3, 차고, 옥상
- 2층건물 대지 : 74평, 도시가스
- 가액 : 3억5천(융자 1억원 있음)

010-3621-8747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IC 2~3분 거리 탐산 온천 부근
- 임야 22,215㎡, 대지135평
- 전기 수도 2백미터 앞 4차선
- 가액 : 6천 5백만원
- 위치: 경북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 전 1028㎡ 계곡물 철철 평당 7만원

010-4504-7809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주차장 완배, 실내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 목조, 천불전(목조),
-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15억

010-8625-1225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가 3층 48평
- 아파트밀집, 재래시장 인근
- 시설 : 법당, 거실, 방2, 주방완비,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물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정가능)
- 현재 7년째 법회중
- 불사관계로 저렴하게 급 양도

010-3102-532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주차장 완배 실내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 찰 안 내
고추장, 된장, 간장에 들어가는 새로운 숙성 알코올 분말을 특허 받았습니다.
제조에 참여 하실분 전화요망
- 토굴 200평, 삼존불, 황토방
- 가액 : 8500만원

010-3595-98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500만 조정가능

010-3589-8115

싼토지 안내(주택)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 임야 1만 3천평 건물 20평
- 대공식수 시설, 한적 한 곳 관리지역 번지 알려드립니다
- 가액 : 1억 6천

010-3288-1317

토 굴 최 요 지
(큰 저수지가 앞에 있음)
- 위치: 경북 영천
- 평수 : 200평 (실사용평수는 1천평임)
- 가액 : 평당 10만원 (대출금액 일천만원있음)

010-3753-7844
010-7589-96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시장입구)
- 평수 : 약90평, 4층건물, 3층 대법당, 최고의시설 완비
- 가액 : 전세 200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 상담하시는 스님 최고요지

010-3750-5424
02)826-6409

사 찰 안 내
고추장, 된장, 간장에 들어가는 새로운 숙성 알코올 분말을 특허 받았습니다.
제조에 참여 하실분 전화요망
- 토굴 200평, 삼존불, 황토방
- 가액 : 8500만원

010-3595-98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 3층 50평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1년 20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9592-95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 2개, 20평, 시설 완벽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8872-13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양산시 북정동 아파트 단지내
- 평수 : 80평
- 삼존불, 후불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인등, 주지스님 방1칸, 공양간 공양주방 1칸
- 앰프 등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됨

010-3827-1299
010-5716-10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재래시장 입구
- 법당20평, 공간활용 15평 1층, 7보 삼존불 4자, 좌우보처 석자반 동소불 40불, 상담실, 주방, 에어컨, 냉장고, TV 컴퓨터(집기일체)
- 가액:1천5백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집기일체 양도(700만원)

010-2397-90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전세 토굴 안내
- 명기 좋은 산당
- 위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 산신각,용궁,대웅전,요사채 큰방 2개, 작은방 5개, 화장실 3개, 주차 5대 가능
- 가액 : 전세 3,500만원 (양도가능)

010-9381-485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낭월동 산 16-1
- 방 2, 부엌1, 법당1
- 가액 :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42)273-1677
010-8775-167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 3층 50평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1년 20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9592-95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계성마을
- 평수 : 730평, 법당 : 30평
- 삼존불, 산신각(신중탱화, 나한탱화), 칠성탱화, 연못, 정각, 두줄기 흐르는 냇가가 있음
- 주지실 : 방2칸, 공양간2칸, 방3칸 화장실2칸
- 가액: 3억2천만원(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55)931-7971
010-4844-7098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10동 1627-26
-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탱화, 에어컨2, 방2, 주방, 다용도실
- 총평수 40평 법회 즉시 가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사정상 저렴한 가액 (급)절충 가능

010-4415-5780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대로변
- 3층 건물에 2층(3층 옥상 사용 가능)
- 지장보살님, 약사여래, 종
- 내부수리 깨끗 법당, 주방1, 상담실1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8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293-17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주시 성근동
- 4층 중 3층, 아래시장 근처 시외터미널 10분거리
- 총평수 80평, 법당 30평, 방4, 거실, 주방 시설일체 완비
- 가액:1,000만원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863-4956
054)777-2064

절터로 좋은곳
-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을 낀곳
- 토성작업 한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청도읍
- 마당있는 독채
- 가액 : 삭월세 200만원 시설비 350만원

010-3381-3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사찰 근교에 바다가 있음
- 개인사정상 급매
- 가액 : 3억 3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가격조정가능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평수 120평, 인법당 27평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M 지장보살
- 가액: 1억7천5백만원

010-5555-87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2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명상가 · 임상심리학자)

〈3〉 RAIN: 고통스러운 순간의 마음챙김

‘그래’ ‘인정해’를 되뇌며 나를 받아들이자

지금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감정과 함께 머무는 것은 무척 어렵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또는 충격을 받고 혼란에 휩싸일 때마다 잠깐 멈춰서 그 감정을 자각하겠다고 우리는 진심으로 다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즉각 대응하거나 도망치거나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매우 강하게 조건화돼 있다.

그렇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아득히 멀게만 보이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릇된 귀의처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숨을 틔워줄 때도 있다. 하지만 명료하고 다정하게 현재에 존재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커지고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타인과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약 12년 전 많은 불교 명상 지도자들이 강렬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즉석에서 다루게 도와주는 새로운 마음챙김 기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네 단계의 첫 글자를 따서 RAIN이라고 부르는 그 기법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RAIN은 우리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끌어서 혼란과 스트레스를 약화시킨다. 그 네 단계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귀의할 곳을 제공한다. RAIN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고향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능력이 강화된다. 시원하게 비가 내린 후의 청명한 하늘과 공기처럼, 이 마음챙김 기법은 일상생활이 다시 고요해지고 활짝 열리게 해준다.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수련생과 내담자,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RAIN을 가르치고 계속 수정하고 확장해왔다. 이 기법은 나의 삶에서 핵심 수행법이기도 하다. 내 경험에 의하면, 아래의 순서로 제시된 네 단계의 RAIN이 가장 도움이 된다.

R(Recognize):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식하라.
A(Allow): 삶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라.
I(Investigate): 내면의 경험을 다정하게 조사하라.
N(Non-identification): 비동일시

RAIN은 우리가 매순간의 경험에 습관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을 없애준다.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든, 강박적 사고에 골몰하든, 당신의 저항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내적 삶과 외적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당신을 자신의 마음과 단절시키고, 살아 있는 이 세계와 실제로 단절시킨다. 첫 단계를 취하자마자 RAIN은 이 무의식적인 저항 방식을 소멸시킨다.

R: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인식은 내적 삶의 실상을 보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 느낌,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인식이 시작된다. 광범위하게 한결같이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특정 경험이 다른 경험보다 더 확실하게 감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예로, 당신은 바로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안한 생각에 골몰한다면 몸이 경험하고 있는 뒤틀림이나 조임, 짓눌림은 알아채지 못한다. 한편, 몸이 불안하게 마구 떨고 있더라도 “나는 또 실패할거야.” 라는 숨은 믿음이 그 떨림을 촉발하고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인식을 가능케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자문하라.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호기심을 발휘해 내면에 초점을 맞춰라.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고 다정하고 너그럽게 당신의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A: 삶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라

허락은 당신이 인식한 생각이나 감정, 느낌, 감각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혐오감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냥 기꺼이 내버려두려고 한다면 주의의 성질이 달라진다. 허락은 치유의 일부다. 이 점을 깨달으면 내버려두겠다고 의식적으로 다짐할 수 있다.

내버려두겠다는 다짐을 강화하기 위해 나의 수련생들은 격려해주는 단어나 구절을 속으로 속삭인다. 예컨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래.” 슬픔이 점점 커질 때 “그래.”라고 속삭인다. “그냥 내버려둬.” 또는 “인정해.”라고 말해도 좋다. 처음에는 불쾌한 감정이나 신체 감각을 그냥 견디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수치심에 “그래.”라고 속삭인 후, 그 감정이 감쪽같이 사라질 거라는 희망에 “그래.”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허락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하지만 허락을 처음 시도하고 “그래.” 또는 “맞아.”라고 단지 속삭이기만 해도 날카로운 고통이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당신의 온 존재가 하나로 뭉쳐서 거칠게 저항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온화하게 격려하라. 그러면 당신의 방어벽이 헐거워지고, 당신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경험에 자신이 항복하거나 그것을 모두 수용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I: 다정하게 조사하라

RAIN의 처음 두 단계, 즉 R과 A를 간단히 실행하기만 해도 대체로 편안해지고 현재에 다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식하고 허락하겠다는 간단한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일 때나 실직을 앞두고 있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투병 중일 때는 강렬한 감정에 쉽게 휩쓸린다. 조만간 헤어질 배우자에게서 전화가 오고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고 통증으로 잠을 설칠 때마다 강렬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습관적인 대응이 갈수록 확고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AIN의 세 번째 단계를 통해 더욱 바짝 깨어서 자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는 타고난 호기심–실상을 알려는 욕구–을 발휘하고 현재의 경험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잠깐 멈춰서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인식이 시작된다. 하지만 조사 단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나의 관심을 가장 원하고 있지?” “내 몸은 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지?” “나는 어떤 믿음을 고수하고 있지?” “이 감정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지?” 등의 질문이 그 예다. 가슴이 휑하게 빈 느낌이나 불안한 떨림을 감지하다가 당신은 그 느낌들 밑에 무가치감과 수치심이 놓여 있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밑에 깔린 믿음과 감정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경험을 좌우하고 부족한 작은 자아와의 동일시를 영속시킨다.



내면에 초점 맞추고 선입견 내려놓고
너그럽게 내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자
생각·감정·느낌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은
허락이자 치유… 연습하면 변화 생겨

RAIN을 수련생들에게 처음 소개했을 때 조사 단계에서 난관에 직면한 이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을 느껴서 그것을 조사하면 저는 무엇이 두려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지 자꾸 그 생각만 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감정이 몸의 어느 부위에서 가장 확실히 느껴지는지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내 몸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조사 단계에서 많은 수련생이 판단에 휘말렸다. “이 수치심을 조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이 정말 싫어요…수치심을 느끼는 내가 너무 싫어요.”

이 모든 반응은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저항을 보여준다. 즉,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우리는 몸에서 주의를 거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판단한다. 수련생들의 체험담은 RAIN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조사를 통해 치유와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온화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면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냥하게 환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정하게 조사하라.” 고 말한다. 마음이 다정해지지 않으면 조사하기는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마음이 충분히 열리지도 안정되지도 않아서 내면과의 진정한 접촉이 불가능하다.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울면서 집에 왔다고 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정하고 너그럽고 온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똑같이, 자신의 내적 삶을 다정하게 들여다보아야만 조사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치유가 가능해진다.

N: 비동일시(타고난 자각 속에 머물러라)

RAIN의 R과 A와 I단계에서 일어난 명료하고 열려있고 깨어있고 다정한 현존이 N단계까지 이어진다. N은 비동일시의 자유, 그리고 내가 타고난 자각 또는 타고난 현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말한다. 비동일시란 당신의 자아가 제한된 감정, 신체 감각, 자기 대화와 합쳐지지 않고 그것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자아와의 동일시가 약화될 때 우리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다정하고 드넓은 자각을 직관으로 알고 사랑과 관용이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RAIN의 처음 세 단계에는 의도적인 활동이 조금 필요하다. 반면에 RAIN의 N은 결과, 즉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자각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이 자유를 선사한다. RAIN의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난다. 우리는 타고난 자각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머문다.

비난과 RAIN 수행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이 있기 두어 달 전에 나는 나의 습관적인 판단이 타인과의 분리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리고 이 분리의 고통을 계기로 나의 영적인 삶에 한 가지 수행을 추가하기로 다짐했다. 불쾌한 판단과 비난에 의도적으로 RAIN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서너 주 동안, 나의 정신이 타인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내면의 비판가가 남을 비하할 때마다 나는 그 밑에 어떤 믿음이 깔려 있는지를 알아냈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습관에 대한 조사는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실상을 보게 해줬다. 이 인식이 나의 수행을 심화시켰다. 그 그릇된 귀의처가 주는 고통을 더 자주 알아차릴수록 나는 그 너머에 있는 자유와 열린 마음을 더 자주 감지했다.

이 새로운 수행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 나는 내적 삶을 조사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가족들에 대한 온갖 판단이 마음을 들쑤시고 있었기에 신경이 바짝 곤두서고 피곤해서 재밌는 책이나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비난에 RAIN을 적용하겠다는 다짐을 끈질기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 종알거리는 입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나는 툴툴거리며 파카를 걸치고 12월 오후의 잿빛 대기 속으로 걸어 나갔다. 이슬비 속을 걸으면서 나는 가족을 한 명씩 떠올려 숙고하고 그 사람을 꼬치꼬치 비난하는 내 마음을 주의깊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의 판단을 지켜보았다. “아빠, 다른 사람이 말을 자를 때마다 아빠는 지나치게 화를 내고 흥분하세요. 그게 뭐 그리 대수예요? 그리고 너, 나라얀,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니? 도대체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어.” 그리고는 RAIN의 첫 번째 R 단계에 들어가 나의 반응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내가 지독히 싫어한다는 것, 그 방식이 전부 어느 정도는 잘못됐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RAIN의 두 번째 A단계로 넘어가서 나는 그 반응을 허락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고 비난하는 생각들을 인정한 다음, 그냥 내버려두었다. 판단하는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생각이야.”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다보니 가슴 한 군데가 뻐근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 느낌은 RAIN의 세 번째 I단계, 조사하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이었다. 조금 호기심을 갖고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 조임이 즉시 단단한 매듭으로 바뀌어 가슴을 힘껏 짓눌렀다. 온갖 불평불만이 마음을 휘젓는 동안, 나는 그것이 모두 한 군데에서, 뻐근하고 갑갑한 부위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제 나는 그 매듭진 부위에 대고 물었다. “네가 보기에는 내 삶이 어떤 것 같니? 너에게는 어떻게 보여?” 예전에 이런 유형의 질문이 내가 어떤 경험의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준 적이 있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불만이 묻혀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같이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가족의 중계자로서, 책임감 있는 엄마로서, 믿음직한 딸로서, 자상한 언니로서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촉발시켰다. 나의 질문은 비난으로 꽁꽁 엮인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그 매듭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제야 느낄 수 있었다. 그 매듭의 뒤에는 우울하고 침체된 실패감이 숨어 있었다.

지난 두 달에 걸친 RAIN수행을 통해 나는 타인을 비난할 때 내 자신에게도 반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다. R 단계에서 내가 남들의 ‘잘못’을 일일이 따진다는 것을 자주 인식했지만 자기혐오를 자각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난 밑에서 나는 익숙하고도 고통스러운 믿음, 작은 자아를 영속시키는 믿음과 다시 마주쳤다. 그 믿음은 바로 “난 뭔가 잘못됐어.”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타라 브랙의 〈삶에서 깨어나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갤러리 색즉시공



김호석 作 〈한용운-파리〉

만해 스님 생각

요즈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 인간에 대한 본질도, 안목도, 대접할 예의도 없는 듯하다. 원칙과 상식, 과정과 절차가 소외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적폐를 생각하면 만해 스님이 떠오른다. 스님은 사회를 곧은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스님은 비껴서 있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정면으로 서있는 현실주의자였다. 그의 정신은 그의 시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작고 더럽고 밉살스런 파리야 (중략) / 너는 흰 옷에는 검은 똥칠을 하고 / 검은 옷에는 흰 똥칠을 한다 / (중략) 그렇다. 나는 작고 더럽고 밉살스런 파리요 너는 고귀한 사람이다 / 그러나 나는 어여쁜 여왕의 입술에 똥칠을 한다 / 나는 황금을 짓밟고 탁자에 발을 씻는다 / 세상에 보검이 산같이 있어도 나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 한다 (중략) / 너희는 나를 더럽다고 하지마는 너희들의 마음이야말로 나보다는 더욱 더러운 것이다 /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없는 죽은 사람을 좋아 한다" **(한용운의 '파리' 에서)**

이 시의 의미는 크다.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정신을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은 생명의 원천이고 힘이다. 인간정신이 어떻게 살아나야 하고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하고 있다. 만해 스님의 시를 그림으로 그려 다시 불러오게 한 것은 지금 한국의 현실에 추상같은 불호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호석 작가는
조선시대 전통 초상화 기법을 계승한 국내 초상화 분야의 화가로, 만해 · 성철 · 광덕 · 법정 스님 등의 진영을 그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림 · 글 김호석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그리운 석정 스님

석정 스님의 금강산 이야기

불모이셨던 석정 스님은 지금은 입적하셨지만 나의 기억 속에는 '예인' 으로 남아 있는 선지식이다. 몇 번 찾아뵈면서 그 분만이 가지고 계신 예와 도가 느껴졌다. 예는 도다. 스님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겸손하고 다정한 분이셨다. 내가 금강산에 마음이 꽂혀 여러 번 뵌 후에 만나 뵈었기 때문에 금강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스님과의 대화가 풍성했다. 스님의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은 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내실에 걸어놓은 금강산 전경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저는 금강산에 다섯 번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더 좋았습니다. 전생에 인연이었나 봅니다. 보덕암에서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던지 목 놓아 울었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께선 겸손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러실 겁니다. 금강산은 사람을 품어주는 기운이 있는 곳이죠. 저도 금강산에서 어머니와 살다가 나왔어요,"

금강산 도인으로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효봉 스님의 스승으로 알려진 석두 스님의 아들로 태어난 스님은 세 살 때 금강산 신계사 아랫마을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네 살 되던 해 겨울, 그림에 소질이 있음을 간파한 어머니가 백로지를 사주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전생의 인연이었다고 보는데, 금강산에 살면서 항상 어머니와 둘이 절에 가서 탱화를 보면 그리 좋았어요. 탱화를 보느라고 하루 종일 들어앉아 있기도 했죠. 애들하고 놀면 한나절이면 싫증이 나는데 스님이나 선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거나 탱화를 보는 것은 하루 종일 보아도 질리지 않았으니까요."

스님은 열네 살에 아버님이신 석두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로 출가해서 불화장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스님은 어떻게 해서 금강산을 떠나오시게 되었나요?"

"해방이 되자 이북에서는 우리가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고 배급조차 주지 않더군요. 심지어는 괭이와 호미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양식이 없어 봄에 심을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죠. 지독스럽게 일을 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자 한 사람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주고는 종자를 얻었어요. 우리 모자가 굶어죽을 지경이 되자 어머니가 저보고 내가 농사지어 놓을 테니 남쪽으로 갔다가 가을 지나서 오너라. 하셨어요. 함께 가자고 했더니 어머니께선 당신은 금강산에 들어올 때 다시는 안 나가려고 한 사람이니 네가 들어오너라. 하셔서 가을에 다시 들어가리라 하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만 삼팔선이 그어져 돌아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 후 스물한 살 때 금강산에서 나온 한 보살님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와 헤어져 남으로 오던 날은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아마 영영 못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모양이죠."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불모 석정 스님의 편지〉

보살님 무덥고 비나리오는 삼복에 어떻게 지내시는 지요? 나는 요즘 죽은 뒤에 몸을 동대 병원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은 뒤에 몸을 썩혀 내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피 한 방울 털 한 개라도 쓸 수 있으면 좋고, 몸을 학습용으로 써도 보람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나의 마지막 작은 효도라 생각했습니다. 보살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자 적었습니다. 측근에서 몇 사람이 동참하기로 하고 백중 후에 일부러 내려와서 수속해준답니다. 신묘 여름 석정 상

감정을 싣지 않고 담담히 말씀하시는 스님에게서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느껴졌다. 자신의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하고 힘이 되어 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에 대한 한 때문인지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회고는 오래 이어졌다. 승속과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다름이 없는 것 같았다.

스님께선 사형인 효봉 스님에 대한 회고도 길게 들려주었다. 스님은 효봉 스님께서 3년 기한을 잡고 공부가 안되면 토굴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정진할 때 곁에 있었다고 했다. 판사직에 있다가 38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하신 효봉 스님이 그 유명한 오도송을 남긴 금강산 법기암 이야기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효봉 스님과는 손잡고 원정리도 가고 온천도 하러 가고 했어요. 판사를 그만두고 엿판을 짊어지고 전국으로 엿장사로 다니다가 보운암에 와서 우리 스님한테 출가하셨죠. 스님은 법기암에서 얼마 안 되는데 한 칸 토굴을 짓고 들어가셔서는 작은 창하나만 남겨놓고 마지막에 벽을 발라놓으셨어요. 나는 그때 법기암에서 멀지 않은 봉래암이라는 곳에서 어머니와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같이 가서 보면 가끔 효봉 스님이 창문으로 잠깐 내다보곤 했어요. 뒤를 보면 바깥으로 내놓고 일체 출입을 안 하셨죠. 법기암 스님이 하루에 한 끼씩만 점심을 가져다 드렸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엔 솜을 넣은 보자기에 밥을 싸서 가져다 드리는 걸 보았어요. 우리 스님이 견성은 못하더라도 3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따르신 거겠죠. 효봉 스님에게 우리 스님은 은사뿐만 아니라 법사이셨으니까요."

1년 8개월 만에 오도송을 짓고 나오신 효봉 스님께서 후학들에게 동구불출, 오후불식 장좌불와, 묵언 네 가지 규칙을 정해 엄격하게 지키셨다고 하는데, 자신만의 처절한 공부 때문이 아닌가 싶다.

스님의 금강산 이야기는 실타래 풀리듯 마치 어제 이야기인 듯 술술 풀려나왔다.

"금강산 정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시겠네요? 조계종에서 신계사를 복원해놓았는데 한번 안 다녀오세요?"

"어려서부터 성장한 곳인데 눈감고도 훤하죠.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간다고 해도 죄수를 호송하는 것 모양으로 길을 정해놓았다고 하죠? 내가 살던 곳이 신계사에서 5리 거리인데도 마음대로 가보지 못한다고 하니 나는 그런 입장에선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지요."

가봐야 살던 곳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것이 속상해서 그토록 그리운 고향을 찾지 않는다는 스님께서는 금강산을 찾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 그림을 그리는 화원 가운데 오른 손을 싸매고 불화를 그리는 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불화만 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으로 신심을 다한 거죠. 그래서 그는 아이 손처럼 때가 안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불사를 하는 와중에 금강산에 갔다 못 나오면 불사를 끝내지 못하니까 더욱 갈 수가 없죠. 불사가 없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나 가보려고 해요. 신계사를 책임지고 불사하는 스님에게 혹시 가능하면 우리 집터를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고 지도를 그려주었어요. 우리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세 개 있었거든요. 오십 년 묵었으니 숲이 되어있을 거예요. 법기암 가는 지도도 그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녀오는 길에 원정리에 있는 물을 길어와 한통 가져왔더군요."

연세에 견주어 스님의 음성은 명료하고 침착하셨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으셨다. 나는 금강산 신계암에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금강산이 고향이신 혜해 스님이 그곳에 계실 때 다녀왔다고 말씀드리자 스님께선 귀를 세우셨다.

스님께서 그린 부처님의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자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엄숙함과 자애로움이 공존할 수 있는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부처님의 32상 80종호 가운데 음성과 혀는 드러나지 않는데, 표현되지 않은 부분까지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고 답하셨다고 한다. 저 천진한 무심이 그 표현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감히 짐작해보았다.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음성과 혀까지 드러나도록 그릴 수 있을까?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도를 이루셨을 스님이, 가끔 금강산이 떠오를 때마다 함께 생각난다.

석정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면벽달마, 관음보살, 원상을 그린 작품 세 점을 보내주셨다. 스님은 우리가 돌아갈 때면 늘 문밖에까지 배웅해 주셨다. 그리고 후에 편지 한 통을 보내셨다.

〈여여원 원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대행 스님

마음을 잘 쓰면 우주 법계에서 다 돌보게돼 있어요

좀 더 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문) 직장 생활이 바빠서 절에 나가기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살아라, 맡겨 놔라 이럽니다. '맡기고 살아라.' 이러면 여러분이 더 실감이 날 거 같아서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한군데다 맡겨라. 한군데다 믿고 맡겨라. 믿지 못하면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맡겨라.' 이렇게 했죠. 무조건 맡김으로써 그것이 어디로 통과가 되느냐 하면 벌써 시각부터 통과가 되고 청각이나 촉각, 후각이 발로가 돼요. 그래 감각이 아주 영리하게 이 안의 심안이 밝아지죠. 그러니 그게 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쪼끔쪼끔, 자꾸자꾸 이끌려 가는 거기에 의해서 이 다섯 가지가 자꾸 발로가 됨으로써 그때는 지견으로 들어가고 지각으로 들어가요. 그럼으로써 오신통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쥐고 그대로 조끔조끔이라도 체험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해서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는데 그게 되는 것만이 공부가 잘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놓지 않고 이걸 모르면, 만약에 내가 누구를 구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내가 현실을 구할 텐데 과거로 돌아갈 줄 모르면 어떻게 현실을 구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양면을 다 놔야 됩니다. 안되는 거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안되는 거고 되는 것도 선업으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다 한데 합쳐져서 녹아 들어가서 자기가 그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지혜와 심안이 밝아져야 하고, 오신통이 다 밝아져서 그 오신통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이 자유자재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자꾸 놔야 됩니다. 놔라 하는 거 어폐가 있는 거 같지마는 다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감사해야죠. 거기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해야지 딴 데다간 안 되죠. 그게 자기 나기 이전 조상이니까. 자기 아비니까요. 자기가 현재에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들이라면 그건 아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체가 없고 가만히 능력만 있기 때문에 움쭉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꿰어 가지고 굴리는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심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원심력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한다면 바로 마음내는 거는 자꾸 그걸 역할을 해서 굴려서 쓰거든요. 그것이 법이라고 보죠. 우리가 몸을 활용하고 이러는 것도 활용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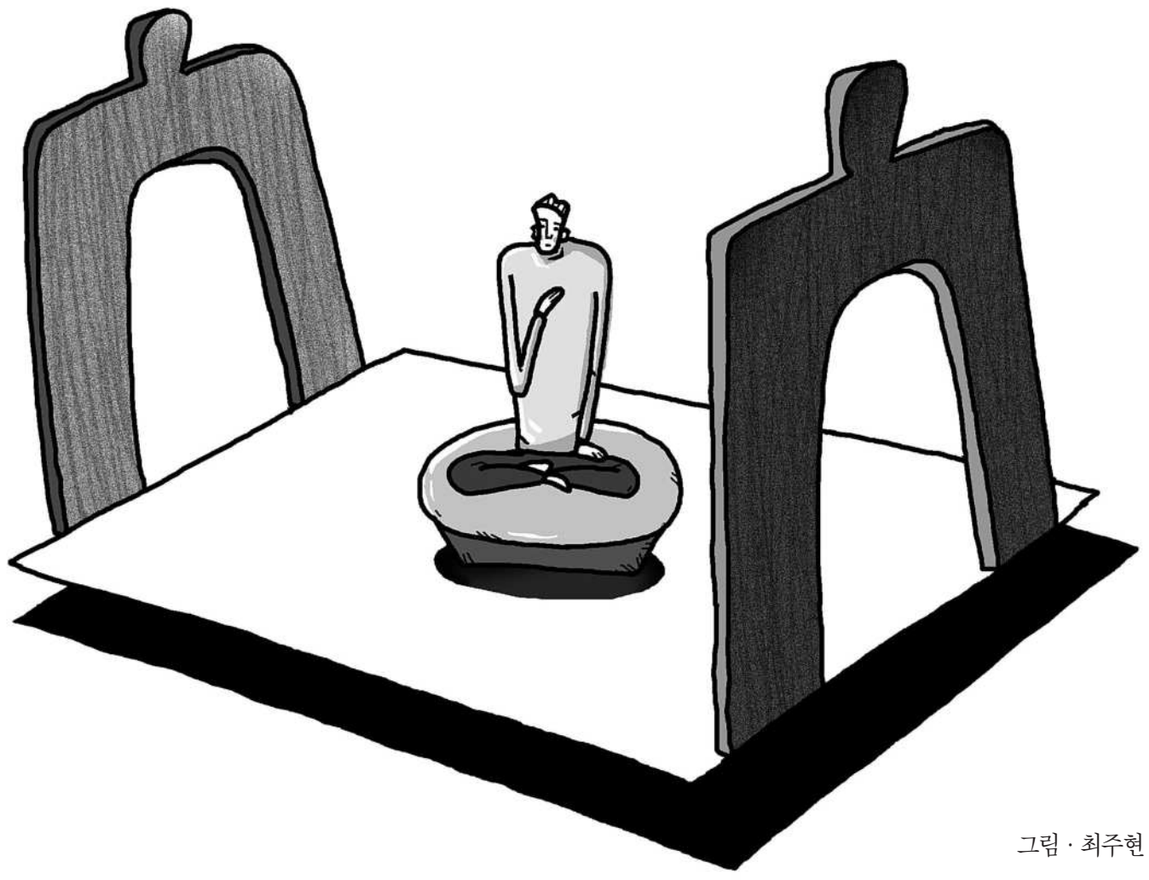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놓는다. 감사하게 놓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발견하는 데에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둘이 아닌 까닭이 왜 그렇게 둘이 아닌 까닭이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 요 50% 물질세계 요것만 보니까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50%를 마저 알아야 그게 죽어가고 살아나오고 하는 그 연결된, 이 유의 세계 무의 세계가 연결된 이 자체를 다 통틀어 봐야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둘이 아닌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 중심이 우뚝 서려면

문)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좀 아프다 싶으면 은근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마음 중심이 우뚝 설 수 있을는지요.

답) 부처님의 법은 아주 묘하고 광대무변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그것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공부하는 과정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겁도 나지 않아요. 하나도 겁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까짓 것 겁날 것도 없고 또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겁날 게 없어요.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른이 망가져서 오른을 다시 새 걸로 바꿔다 놓는 거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걱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한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생각. 한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옹쳐매 놓고 있고, 병자로 옹쳐매 놓고 있는 거지 누가 병을 갖다 준 겁니까, 뺏어 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겁니다. 과거의 자기가 한 대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가난과 병고와 그 모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생각에 그 고통과 그 문서를, 종 문서를 한꺼번에 태워 버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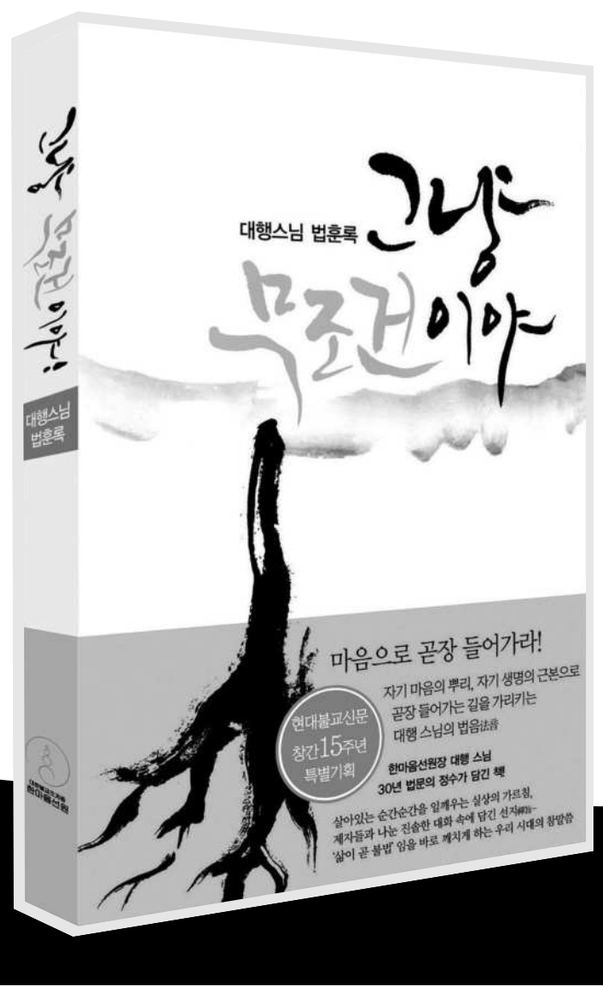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 이랬죠? 왜 그런가. 한 찰나 살림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죠. 우리의 살림살이는 한 찰나요, 한 인생 살아나가는 덴 한 철이라고. 여러분이 한 찰나의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요리 변덕 조리 변덕, 변덕쟁이거든요. 변덕쟁이. 도깨비 장난, 귀신 장난감.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변동이 무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공에 들어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목석인 거예요. 또 너무 말을 하고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한데 떨어뜨린다면 그건 귀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도 걸리지 마세요. 생각이 자꾸 나걸랑 그대로 그냥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버려두라고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다 저렇다 할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괜히 '고(苦)덩어리' 속에서 그 의식이 들고 나면서 괴로움을, 자꾸 또 즐거움을 주고 이러니까 즐겁더라도 그냥 빙긋이 웃고 말고, 괴롭더라도 빙긋이 웃고 말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하니까. 이열치열. '네 속에서 나온 거는 네 속에서 해결해야지, 딴 속에서 해결 못한다. 나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 네가 무체로서의, 즉 말하자면 큰 부처로 보이더라도 난 거기에 속지 않아.' 이렇게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들고 나면서 그 전자의 종 문서에 의해서 그 자기가 한 것대로 문서를 짊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 나는 것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똑바로 보시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나 하나를 버린다면 전체가 다 버려지는 겁니다

☞ 29면에서 계속

라. 말과 뜻과 행,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진실함을 알게 되면은 그냥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예요. 따르라 이겁니다. 왜 따르라고 그랬느냐, 그럼. 당신네들 주인공 안에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람이 이런 예가 있죠. 예전에 3대 위로 할아버지께서 아주 진실하게 청정하게 공양을 잘 바치고, 타력 신앙으로 한 게 아니라 자력 신앙으로써 진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2대의 손자를 왕으로다가 되게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왕으로다가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3대 위 할아버지가 이 3대 아래 손자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손자로 태어나서 참, 왕도 됐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이 흔들리면 남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또 욕심이 많아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충신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 자기가 한 것대로 '고덩어리'에서 그때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욕심으로 가득 찬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도 두 번, 서너 번 해먹으려면 이건 이렇게 없애야겠다.' 해서 그만 모의를 해 가지고 왕을 죽였단 말입니다. 어디 그런 소리가 샐까 봐 단 둘이서만 해 가지고 딴 방향으로써 모든 일처리를 해 가지고선 딱 죽였는데, 그게 죽으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싹둑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 요놈! 내 자식과 내 가정을 파괴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서도 네가 잘 살 수 있겠느냐?' 해서 항상 그 마음이 그 집 울 안에 항상 맴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의식이. 그러니깐 그 왕은 죽지 않고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은 거보다도 죽지 않고 죽은 것이 더 괴로움을, 그냥 시들어서 가면서 길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백 년 역사에도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고….

역시 지금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그 도리도 바로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면 스스로서 우주간 법계에서 돌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생각을 그렇게, 병에 대해서도, 가난에 대해서도, 우환에 대해서도, 괴로움에 대해서도, 허무감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 있는 고덩어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나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모든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다 놓고,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인도하는 내 주인공이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오장 육부 이 모든 세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 진화가 돼 가지고서는 오히려 보살로 화해 가지고 수호신이 돼 가지고 나를 보살피고, 보신이 돼 가지고 보살피고, 보현보살이 돼 가지고 보살피고, 약사보살이 돼 가지고 보살피고 아, 이러니 내 몸은 어느 새 낫는지 모르게 낫고, 어느 새 눈이 밝아지고, 어느 새 '아, 이거 이런 줄 모르게 됐어.' 이렇게 하게끔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서, 스스로서 자비의 칼로서 즉, 자루 없는 칼이 우주 법계를 꿰뚫어서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넘나다니면서 그 나와 같이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내가 돼 줄 수 있는, 전부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모두 이런 잠수함을 부수는 그런 그 기계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그 생명체가 좀 더 부실하고, 자기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좀 더 약해질 수가 있고 마음대로 그 살 수가 없지 않을까, 앞으로는 점점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공부를 하고 진리를 타파하고 어떤 석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자기 마음의 그 의식 자체를 넣는다면 두드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만 개의 영령을, 영혼을 가지고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없이 빼내도 줄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한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몸뚱이를 옴쭉 못하게 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소인의 그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각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소견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견으로 살면은 지각을 이룰 수 없고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둘로 보고 네가 망하게 해 줬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내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는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차를 가지고 운전수더러 가라고 그래야 그 차를 끌고 가는 거지, 만약에 차더러 "야 자가용아, 빨리 가." 이러고 아무리 외쳐도 그 자가용은 가지 않습니다. 운전수더러 가라고 그런다면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 것같이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처는 전 우주와 가설이 돼서 통신이 돼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미래에,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지마는 과거도 우리가 짊어지고, 지금 달구지에다 잔뜩 짊어지고 현실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달구지에 짊어지고 나온 그 인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딜 쳐야 가겠습니까. 그 물건을 끌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를 믿고, 이 소가 한 짓이니까, 이 달구지에 잔뜩 실은 게 자기가 전에, 내가 나오기 이전에 네가 해서 입력이 된 거니까 그 입력된 데다 다시 맡겨 놓고 '네가 한 짓이니까 네가 해. 네가 할 수밖에 없어.' 하고 주인공에게 모든 걸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그 인과는 무너지고 업보도 무너지고 또 유전성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삽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두고두고 무너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대신 해주 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신 아파 주기를 합니까 먹어 주기를 합니까? 똥을 눠 줍니까? 자 줍니까? 죽어 줍니까? 누가 해 줍니까? 아무리 친절하지 않아 천에 없어도 대신 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왔고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와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자기 몸 떨어지기 전에 자기를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불성이 '부' 라면 지금 현상계에 있는 자기는 바로 '자' 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거를 놓고 볼 때에 잠재의식은 현재의식 속에 들어 있고 현재의식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이 머리, 이 골도 반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려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것이 바로 통신만 왔다 갔다 하는겁니다. 거미줄 얽히듯 말입니다. 이 세포가 바로 법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혹성이 지구에도 세포가 있고 인간에게도 세포가 있고 어느 물질에게도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는 가설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선원에만 와라, 이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내가 배울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배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꼭 부탁할 건 한 가지 있죠. 어디를 가든지 내 주처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몸뚱이는 어디를 못 갑니까.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만남도 고정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한 것도 공했느니라 이런 거거든요. 분별 없다면 공한 것도 공했느니라. 그 공한 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공했다는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한 것도 체험할 수가 있느니라.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어려운 말을 해서 이렇게 경서를 놓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듯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시험하면서 내 주처에 맡겨 놓고 지켜본다.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기도 하고 실험입니다, 그게.

그리고 체험을 한다면 자기가 당당해지고 늠름해지고 지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인간의 그 자유스런 행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 얼마나 슬기롭고 자유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배우는 데 내가 그 절이니까 못 가고, 저 교니깐 가고, 이 교기 때문에 불교에 못 오고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가라, 가라 이러지 말고, 또 나는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내 마음 주처, 즉 하나님도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의 임을 발견을 해야만이 모든 임들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 남의 집의 전화를 어떻게 소식을 듣습니까? 내 집에 안테나를 세워 놓지 않고 어떻게 남한테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감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부터 알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내 몸뚱이 하나와 더불어 같이 그냥 송두리째
죽고 산다 뭐, 괴롭다 괴롭지 않다를 다 당신 주인공에다 일임해 버리면
죽고 사는 것도 아랑곳 없어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인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좀 허허 웃고 사세요.

불자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는데…

문)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하여 대행 스님 법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불자들도 투철한 자기 주관이 없으면 거의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 우리가 개종을 하고 개종을 안 하고 그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된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점의 상표처럼 생각하고 이건 내 가게네 가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지구를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크나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는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그 마음의 능력과 더불어 세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또는 지구를 집이라고 한다면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널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과학이 발전되고 있지만 이렇게 기계화로, 물질화로 치달아서 파손시킬

관을 했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와요

문) 주인공에 맡기면 걱정 없이 살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떤 난관에 부딪쳐서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 관을 했지만 명쾌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요.

답) 뭘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깐 거기까지 통신이 되질 않죠. 나 하나만 버린다면 전체가 다 버려지는 겁니다. 나 하나만 버린다면. 그럼 일상생활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 나가는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나는 내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해 나가는데 나는 그저 해 나가는 대로 심부름만 하면 그뿐이에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 나가는 데는 해당도 안되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내 몸뚱이 하나와 더불어 같이 그냥 송두리째 죽고 산다, 뭐 괴롭다 괴롭지 않다를 다, 몸뚱이 하나를 다 당신 주인공에다 일임해 버리면 죽는 거 사는 것도 아랑곳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주 '왔다' 예요. 허허허. 그럼 모든 게 해결 나는 판국인데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고 천 년 만 년을 사나요,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좀 허허 웃고 살면 어때요?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불자 세상보기

'관심병사'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박호석 법사
육군 제8350부대
안국사 지도

최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일어난 총기사고로 관심병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병영생활 중에 충동적인 성격으로 가혹행위나 규정위반, 사고유발, 또는 자살 등이 염려되는 병사를 심리검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심병사를 구분하는데,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병사의 20%가 관심병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관심병사의 4분의 1은 고위험 군에 속한다고 하니 너무도 충격적이고 놀라울 뿐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계급조직의 특성상 각종 스트레스가 일어나기 쉽고, 병영이라는 공동생활에서 동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 대인 기피증, 충동장애 등이 심화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해들이 급기야는 자살이나 사고로 발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의 총기사고나 그동안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군 관련 사고들이 대부분 이에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게다가 경쟁위주의 학교, 한자녀 중심의 가정환경, 외톨이 놀이문화의 영향으로 남을 배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성장배경이 이런 군대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방위이므로 군인은 언제나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강인한 전사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전사로 만드는 일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장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나라의 동량이 되도록 훈육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자녀를 나라에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사 개개인의 고민과 불만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는 심리상담이 관심병사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불상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갈수록 커져가는 장병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군내부의 문제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최근에는 군에서도 전문상담제도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관심병사들 모두를 보살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종분야에서도 상담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일부 종교에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크게 눈에 띄는 실적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아마도 인류역사상 심리상담을 처음으로, 또 가장 잘하신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때로는 직접 찾아 고통받는 중생들을 상담을 통해 제도하셨음을 많은 경전을 통해 알 수 있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고, 묻는 사람의 심리를 헤아려 근기에 따라 치료하시는 부처님의 대기설법이 바로 상담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화활동은 현대 심리상담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불교는 마음공부이니 바로 심리(心理)와 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오늘날 상담심리학과의 장단을 파악하여 이를 장병상담에 응용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종단, 군종교구, 일선 군승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동안 조계종 상담개발원이 육군 제1보병사단의 관심병사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사단 군승이 전역하고 나니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과 군대에서나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자신의 삶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돼야 합니다. 흔히 "군대를 다녀오더니 사람 됐다."는 말이 정말이어야 합니다. 요즈음 젊은이들의 생각처럼 군입대가 일생에서 가장 기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면 관심병사는 더욱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예측도 준비해야 나온다. 준비하는 자의 남다른 자격"

이영표의 족집게 해설 화제… '비밀노트' 100권의 독서도

'2002년 한 · 일 월드컵' 4강의 주역 이영표 KBS해설위원(37)이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인간문어' '문어 영표', '표스트라다무스'로 불리며 월드컵 경기 결과를 정확히 짚어내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예측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문어는 남아공 월드컵 당시 7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춘 '폴'이란 점쟁이 문어에서 따온 별명이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6월 20일 열린 일본과 그리스의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양 팀이 무승부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상은 들어맞았다.

이영표 해설위원의 예측이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영표 위원은 브라질 월드컵 개막 전 방송된 월드컵 특집프로그램에서 "칠레가 스페인을 6대4 정도의 확률로 이길 것"이라며 "스페인이 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 위원의 말대로 스페인은 네덜란드와 칠레에 1-5, 0-2로 잇따라 패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이영표 위원의 족집게 같은 예측에 외신도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판 블로그는 19일 이 위원의 활약상을 언급했다.

WSJ는 "월드컵 개막 이후 이영표 해설위원은 정확한 경기 결과 적중률로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점수까지 정확하게 맞히는 '신통력'을 발휘했다. 그는 이미 '문어 이영표'라는 애칭까지 얻었다"고 전했다.

족집게 예언과 시청률 수직 상승의 비결은 '남다른 노력'에 있었다. 이 위원은 방송가에서 악바리로 정평이 났다. 방송 시간 외에는 온통 분석에 매달린다. 자투리 시간까지도 꼼꼼히 활용한다. 그간 읽은 책도 100권이 넘는다. 이 위원은 "경기 분석에 주어진 시간이 이틀이든 혹은 반나절이든 상관없다. 해당 시간 모두를 공부에 쏟아붓는다"며 "경기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 머리에 완전히 입력해야 생중계 도중에 순발력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나름의 노하우를 전했다.

이영표 위원은 중계 노트를 빼곡히 채



우며 공부했고, 노트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또 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른바 이영표의 비밀노트다.

이 위원의 비밀노트 안에는 선수들의 정보와 경기를 분석한 통계가 빼곡히 적혀있어 그가 중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않은 이영표의 꼼꼼함과 치밀함이 엿보였다.

이영표 위원의 노력으로 KBS는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인간 문어'가 월드컵 TV중계의 이슈 메이커로 떠얼,먀 KBS는 대회 개막 직전까지 시청률 꼴찌를 면치 못했지만 이후 약진을 거듭해 1위로 치고 올라갔다.

네티즌들 호평 이어가

이렇듯 깊은 분석과 철저한 노력에 대해 시청자들은 호평을 이어갔다. "역시 노력하는 자를 따라잡을 수 없구나", "이영표 예측 뒤에 이렇게 많은 노력의 산물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SNS에서 james○○는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않은 이영표의 꼼꼼함과 치밀함을 보면서 정말 쉬운게 없다는 걸 느꼈다.", qwer1○○는 "노트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또 보는 이영표의 노력…저도 본받고 싶네요.", sibal○○는 "역시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저런 노력이 있으니 그런 분석과 예측이 가능할 수 밖에 없네요.", heojeob는 "선수들의 정보와 경기는 누구나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저런 꾸준한 근성으로 하기란 쉽지 않다. 노력하는 자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영표를 통해 배웠다." awjhOO는 "예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군요. 역시나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등의 의견을 냈다.

社說

조계종 新법인법 통과, 실효성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인법이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으로 대체입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5일 열린 제198차 임시회에서 법인관리법을 장시간 논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법 통과에 따라 경과조치를 마련해 선학원과 대각회 등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에 대해서는 9월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여타 법인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종단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새 법인법도 여전히 규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아예 사찰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항까지 신설했다.

법인 등록을 놓고 갈등 중인 선학원과의 관계를 새로운 법인관리법이 풀어낼 수 있지도 의문이다. 신임 총무부장 정만 스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한 번 통화한 것이 전부인 상황에서 소통없이 만든 완화 조항을 선학원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 같이 논란 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법인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일선 법인들에게 상당한 무리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종회 논의 과정에서 한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법인법 대체입법이 솔직히 불안하다. 확신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법안 발의자 스님은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쉬운 법 개정을 말하며 통과에 열을 올리는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총무원이 우려하는 대로 법인의 난립은 문제가 있다.

특히 사찰 재산으로 출연해 만드는 법인의 관리는 필요하다. 조계종이 만들어야 할 법인법은 종교 행위를 하는 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어디까지나 '관리'여야지 '규제'가 돼서도 안 된다.

남한산성을 호국불교 성지로 가꾸자

호국불교 성지인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석굴암 ·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건이 한꺼번에 등재된 이래 창덕궁과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에다 이번에 등재된 남한산성까지 모두 10건의 세계문화유산 보유국이 됐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삼전도 굴욕의 장소다. 왕궁과는 별개 산성이면서도 국가 유사시에 왕이 일상적으로 거주한 '비상 왕궁'이다. 세계적으로 남한산성밖에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이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대별 성곽 축성술과 다양한 무기체제의 방어 기술 변화상을 잘 나타낸 데 높은 점수를 줬다.

게다가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다만 단조조항이 달렸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 인접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주민들이 유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사실 최근까지 남한산성이 유원지 이미지가 강한 것 때문인 것 같다. 문화재청도 경기도와 함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 이행할 것이라고 한다.

남한산성에는 망월사지, 개원사지 등 다수의 불교문화유적이 남아있다. 우리 불교계도 앞으로 복원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장경사가 한발 앞서 꾸준히 하고 있다. 의승군이 머물렀던 남한산성 불교문화 복원을 위해 의승군 수륙무차대법회 등을 봉행한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가 합심해 남한산성내 불교문화재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三千三

세계 최초, 3003위 大아라한 展

작품 조성 기간 10년

수행과 예술 그리고 자신의 길

적산(寂山) 스님

모든 것을 던져 몰입했던 10년의 고행 끝에 탄생한 나한 연작에는
제가 유년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해온 작가로서의 꿈과, 출가 이후의 수행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한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불교의 세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다양한 나한들은 다원화된 시대속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각 개인들의 구제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대승적 주제의식을 삼천삼 점의 나한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인사 원각스님을 은사로 출가
E-mail : seungik320@hanmail.net



2014. **7. 16** (수) - **7. 29** (화)

오프닝 7.16(수) 오후 5:00

갤러리 미술세계 전관(3, 4, 5F)

전시장 내 특설법당 (1일 3회 기도)

국태민안 · 남북통일 · 소원성취

*기도 접수 문의 : 010-6432-0086



Gallery MISUL SEGYE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4 Tel. 02-2278-8388